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 구독신청 02)2004-8211~2 | buddhanews.com |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1월 21일(음력 10월 12일) 수요일 (주간) | 제654호

정호 스님 등 8명 동국대 이사 선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영배 스님)는 11월 16일 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제234회 이사회를 열고, 이사 8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오 스님 후임에 영담 스님 ▲장윤 스님 후임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황창규 이사 후임에 유광진 前 동국대 교수 ▲현성 스님 후임에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 ▲종상 스님 후임에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영담 스님 후임에 조계종 문화국장 수인 스님 ▲오영교 총장 후임에 오영교 총장 ▲ 김재기 이사 후임에 전순표 동국대 총동창회장 등이 선임됐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비공개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에서는 지하 스님과 정호 스님을 추천했다. **김주일 기자**

'청정교단 희망 한마당' 개최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는 12월 1일 오후 3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회관 2층 만해NGO교육센터에서 '2007년 정기총회 및 청정교단 희망 한마당'을 열고 교단 자정 필요성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교단자정 결의문을 통해 ▲자정운동의 생활화 ▲청정보시운동의 생활화 ▲1만 가족공동체 운동 활성화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낙상사 원통보전 낙성식 2005년 산불로 원통보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됐던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가 화마(火魔)의 상처를 딛고 11월 16일 원통보전 낙성식 및 범종 타종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1만 5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낙산사 재건(再建)을 축하했다. 사진은 복원된 원통보전의 현판제막식 모습. 양양 낙산사/글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 왜곡보도 적극 대처를"

조계종 언론 모니터링·미디어팀 신설 등 검토
개신교·가톨릭 등 타종교도 언론 감시 활동中

얼마 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불자라고 밝힌 그는 "공중파 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사주와 역학 등을 주제로 다루면서 배경 화면으로 사찰에서 절하는 모습을 썼다"고 제보했다. 최근 '신정아 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일들로 불교계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된 데다 '불교=기복'이라는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퍼질 것을 염려한 것이다.

불자라면 TV나 신문, 잡지 등 언론에서 종교 편향적인 보도를 접하는 경우가 한두 번 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인 분노를 느낄뿐 이를 어디에 제보하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올해 초 '월정사 문화재 보수지원비 유용'을 보도한 MBC는 월정사 측이 강경 대응해 정정 보도를 했고, 스님을 우스갯거리로 삼은 유머를 게시한 문화일보 역시 본지가 문제를 제기하자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개별 단체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왜곡보도나 불교폄훼 등은 대충 묻혀 넘어가기 십상이다.

최근 조계종이 불교계에 대한 왜곡보도를 이유로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펼침으로써 불자들의 언론 종교편향, 왜곡보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신정아 사건으로 언론의 '맹공'을 맞은 조계종은 내년부터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김재일)와 함께 정기적인 언론모니터를 실시하는 한편, 법무법인 바른(대표 김동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언론 왜곡보도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신속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대언론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언론모니터 및 분석보고, 불교미디어정책개발연구비 등 방송미디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기획실 내에 '미디어팀'을 신설해 홍보인력을 충원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이웃종교의 경우 이미 각 종파를 아우르는 대언론 기구를 갖추고 있다.

개신교는 한국교회언론회(이사장 최성해)가 언론모니터위원회를 두고 모니터링과 언론조사 등을 펼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실행위원회를 통해 언론 모니터링을 하고, 방송이나 기사에 대한 논평을 발표한다.

가톨릭은 올해 천주교중앙협의회 내에 미디어팀을 신설하고 외신과 국내 기사, 신문 · 인터넷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교구 내에 자체 미디어담당을 두는 등 각 지역 교구별로 언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지역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했다.

불교계의 유일한 방송모니터링 단체인 사단법인 보리의 경우 1990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교육을 실시하고 방송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후원회 조직이 없어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이다.

김재일 이사장은 "불교계는 왜곡보도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질 뿐 지속적인 지원이나 활동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전국 신도교육이나 본말사 주지교육 등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언론 마인드를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단 차원에서 전문 모니터팀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불자들이 언론의 왜곡보도를 접했을 때는 보리 사무국으로 전화를 하거나, 해당 언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언론의 왜곡보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02)745-5811

김강진 · 여수령 기자

社 告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보안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분량: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강의: 2007년 9월 16~27일(10일)
◆장소: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제작: 현대불교영상사업단
◆가격: 19만원(교재 포함)
◆교재: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5000원)
◆구입문의: 02-2004-8200, 2004-8279.
◆입금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에이치비엠씨)

※100부 한정 보급, '기회'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숭산 스님 3주기 추모제 개최

11월 20일부터 8일간…사진전·다례재 등 마련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며 수많은 외국인 제자를 배출한 숭산 스님이 입적한 지 벌써 3년이 됐다.

스님의 향훈을 기리는 3주기 추모행사가 외국인 제자들에 의해 다채롭게 마련된다.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는 추모사진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숭산 스님의 출가 전 모습부터 출가 후 한국불교의 포교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열린 순회법회 법문 장면 사진과 세계 각국 언어로 출간된 법문집들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볼만한 것은 작은 사진 2000여장을 합쳐 숭산 스님이 주장자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만든 대형 합성사진이다. 전세계 80여 개 선원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합성한 의미있는 작품이다. 각 사진들에는 숭산 스님이 생전에 각 선원을 방문해 수행 지도하는 모습과 외국인 제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전시회에서는 숭산 스님 생전의 법문 모습을 담은 오디오, 비디오도 상영된다. 법문 CD도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계룡산 무상사(주지 무심)에서는 세계 20여 개국에서 방한한 200여 외국인 제자들이 수행 정진한다. 또한 다음날인 27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3주기 추모다례재가 열린다. 이번 다례재에서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 스님이 법문한다.

무심 스님은 "큰스님께서는 이방인인 외국인 수행자들에게 '오직 모를 뿐'이란 가르침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환히 열어 주셨다"며 "스님의 가르침과 은혜를 기리는 마음으로 이번 추모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사과말씀 드립니다 현대불교와 도지탐여행사가 공동 추진하는 '라오스 탓루앙 축제 성지순례' 가 라오스 현지 일정 변경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와 사과를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도지탐여행사 拜上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옻이 오르지 않고 참 옻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 옻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순희)

'07.12.19 대통령선거에 즈음한 한국종교지도자 대 국민 호소문

바르고 깨끗한 선거실현을 위한 대 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 19 대통령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연이어 내년 4. 9에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의 선거문화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부심으로 승화시켜야 할 시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례적으로 선거를 치러오면서 우리나라 선거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연 · 학연 ·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에 끌려 투표하고,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과 다르다고 하여 적대시하거나 무시하는 등으로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할 선거가 불신과 반목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의견이 소통되고 반영되어 화합과 발전의 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입니다.

무관심은 바로 자신의 세금과 삶의 터전을 헛되이 잠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기적으로 참여하여 정견 · 정책 등에 대하여스스로 선택을 하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자신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은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하나된 힘은 국가 ·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환경문제, 전쟁과 기아 등 인류 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입니다.

우리 7대 종교 지도자들은 12. 19 대통령선거와 내년의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첫째,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실현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 둘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보자의 정책 · 정견을 꼼꼼히 살펴보기에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 셋째,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합시다.

2007. 11. 9

공동대표의장 지 관(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 동 대 표 이용규(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공 동 대 표 김희중(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공 동 대 표 이성택(원불교 교정원장)
공 동 대 표 최근덕(유교 성균관장)
공 동 대 표 김동환(천도교 교령)
공 동 대 표 한양원(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포교 매뉴얼' 작성 등 방안 논의

주지 포교활동 평가·제도마련 공청회

사찰 주지스님의 포교활동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방법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원)는 1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포교활동 관련 주지 평가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원 스님은 기조발제를 통해 "종단에서는 포교활동을 주지 인사에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은 있지만, 그 내용이 빈약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지 포교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오늘날 신도들은 사찰 주지스님에게 수행 · 설법 · 문화 · 교육 · 복지 등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며 "리더십 강화를 위한 지도자 아카데미를 통해 조직화된 리더십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 역시 "포교는 주지스님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게 마련"이라며 "초임주지에게 주지소임 매뉴얼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포교 활동 관련 주지 평가 및 인사 반영 방법'을 발제한 중앙종회의원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 주지)은 "철저한 출가문중 중심으로만 본사와 교구본사가 운영되어 온 지금, 조계종의 조직은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형조직이 됐다"며 "사찰과 교구조직에 대한 과감한 통합과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각 본사에서는 교구내의 시 · 구단위로 역점사찰을 지정해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고, 도심에 거점사찰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사찰의 소임자에 대해 ▲어린이 · 학생 · 대학생 청년법회 활동 ▲신도회의 실질적인 운영 ▲포교인력(종무원, 포교사) 변화 현황 ▲포교예산의 편성과 집행현황 등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혜경 스님(강화 전등사 주지)은 "주지 임명 후 2~3년이 지나면 중도 평가를 하고,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재임기간의 업적을 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전 스님(수원 용주사 포교국장)은 "포교 활동 매뉴얼을 만든다던가, 포교 관련 연구 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현재 활동 중인 사찰 중 포교거점이 될 만한 사찰을 집중 육성하는 방법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여수령 기자

조계사 원학·선본사 향적 스님 주지 임명

국장급 등 대규모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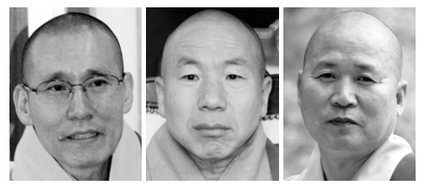
불교신문사장 혜자 스님

조계종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1월 13일 직영사찰 주지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에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팔공산 선본사(갓바위) 주지에 향적 스님(前 불교신문사장)을 임명했다. 불교신문사장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이 임명됐다.

또한 같은 날 총무원 교역직 국장급 인사도 진행됐다. 기획국장에는 미등 스님, 사회국장에 도은 스님, 조사국장에 현종 스님, 상임감찰에 덕현 스님, 조사과장에 법성 스님, 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진경 스님이 각각 신규 임명됐다. 前 재정국장 덕관 스님은 감사국장으로, 前 기획국장 원철 스님은 재정국장으로, 前 감사국장 경수 스님은 호법국장으로, 前 조사과장 지수 스님은 호법과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지관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국장이라는 소임은 총무원의 중간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열심히 배우고 익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직원들과의 화합에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학 스님 향적 스님 혜자 스님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이번 인사에 대해 "승려로서의 품위유지를 하고 있는지, 성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사와 선본사 등 직영사찰 주지 인사에 대해서는 "4년 임기를 넘긴 사찰 주지의 교체 필요성을 느껴 인사를 하게 됐다"며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가 특정 문중의 스님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며, 실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학 스님은 "이번에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국장 인사를 공개채용으로 채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11월 13일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관 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마곡사의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법용 스님은 "입후보자들 모두 총무원장 이하 스님들의 뜻에 따라 잡음 없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며 "화합과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마곡사 산중총회를 통해 선출된 법용 스님은 1965년 마곡사 석봉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선림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편, 11월 5일 조계종 중앙선관위에 법용 스님의 당선 무효 소청 심판을 청구했던 원혜 스님은 12일 선관위 사무실에 직접 들러 청구취하서를 제출했다.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법용 스님.

여수령 기자

태고종 원로회의 2기 출범

일우 스님 의장 재선임

태고종 원로회의 2기가 출범했다. 1대 원로의장을 맡은 일우 스님이 의장에 재선임됐고, 부의장에는 혜종 스님과 덕화 스님이 추대됐다

태고종은 11월 7일 한국불교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원로회의 제2기 구성 및 제7회 원로회의'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 · 부의장 선출에 관한 사항' '종헌 개정안 인준에 관한 사항' '원로회의 운영 및 현안 협의에 관한 사항' '종단 주요 현안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

운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원로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종단의 위상을 되찾고, 이를 후학들이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열린 원로회의에서는 원로회의 운영 및 현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했다.

김주일 기자

조계사 주지인사 거센 후폭풍

신도회 임명철회 촉구 묵언시위·노현 스님 단식 돌입

조계종이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에 원학 스님을 임명한 데 대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이번 인사가 급작스럽게 이뤄진데다 현 총무부장이 직영사찰 주지를 겸직했다는 점 때문이다.

주지 임명장이 수여된 11월 13일, 조계사 신도회(회장 이연숙)는 즉각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면담했고, 다음 날인 14일 주지 임명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총무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15일에는 조계사 큰설법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지 임명 철회와 원학 스님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연숙 신도회장은 "조계사 부주지를 맡고 있던 1998년, 정화개혁회의에 참여해 멸빈 조치를 받고 최근 복권된 원학 스님을 주지로 임명한 것은 신도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조계사 주지스님 해임을 유보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종무행정을 마비시킨 총무부장 원학 스님에 대해 강력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신도회는 주지 임명 다음 날인 11월 14일 당시 원학 스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조계사를 찾아와 신도들을 설득하는 등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회는 16일 조계사 경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묵언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영우 신도회부회장은 "묵언시위에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주지인사가 철회될 때까지 정근 등 시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화사 태백선원장 노현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용퇴를 촉구하며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노현 스님은 "종단의 청정성을 훼손하는 각종 사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이 솔선해 참회하고 책임지는 모습과 종단 안정을 간절히 기대했지만, 1998년 해종 행위에 앞장선 인물을 요직에 앉혀 분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용퇴를 간절히 호소하며, 총무부장 원학 스님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도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지(재산관리인)로 총무부장 원학 스님을 임명해 사찰운영을 어렵게 했다"며 "주지공채제도를 도입하고 인사청문회를 열어 주지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학 스님은 13일 인사 원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총무부장과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 "이전 월주 스님 당시에도 겸임을 하는 예가 있었다"며 "나 개인이 임명을 받았다 라기 보다 직영사찰을 관리하는 총무부장에게 임무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국제선센터 부지선정 놓고 '삐걱'

"조계사와 협의 없이 결정" 신도회 반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 이하 문화사업단)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선(禪)센터'가 부지선정에서부터 잡음을 빚고 있다.

문화사업단은 11월 7일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선센터 건립 부지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부지로 최종 결정했다"며 "올해부터 3년간 국고지원금 1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5층, 지상 5층의 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2110㎡(638평) 규모의 신정동 부지가 서울 조계사 소유라는 것. 조계사는 1992년 35억에 신정동 부지를 구입했다.

부지 선정 소식을 들은 조계사 신도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신도회는 11월 15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신정동 부지는 조계사 소유임에도 총무원이 조계사와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건립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번 사업 추진에 신도들은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신도회는 "신정동 부지는 고도제한이 80m로 2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임에도, 주변환경을 고려치 않고 5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사업단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7~9월 진행된 3차 조사 때만해도 영월과 문경 · 고성 · 안성 4곳의 후보지로 압축됐으나, 4차 조사가 시작된 10월 돌연 서울 신정동 부지로 급선회했다. 문화사업단은 "12월 초 단장 스님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최첨단 설비를 갖춘 대비로전

대비로전은 화재에 대비한 열 감지기, 지진에 대비한 진동 측정기 등 첨단장비가 설치돼 있어 유사시 불단 위에 모셔진 불상이 자동감지에 의해 지하 6m 깊이의 별실로 내려보내 안전하게 두분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특수 공법을 도입하였다. 별실 출입구는 뜨거운 열이나 중량에도 견딜 수 있도록 2중, 3중의 차단장치를 덧붙였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작동되며, 보수공사 등 필요시에는 수동 조작도 가능하다.

국운융창과 평화통일, 국민대화합을 기원하는

해인사 『대비로전 大毘盧殿』 낙성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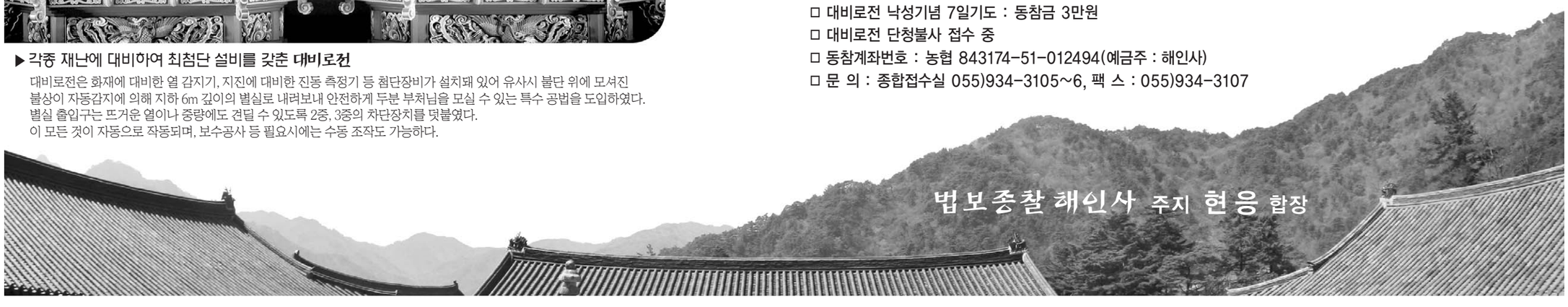
만산홍엽 만추지절에 한국불교를 대표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동형쌍불 목조 비로자나 부처님」을 봉안할 **『대비로전大毘盧殿』 낙성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비로자나불이 상징하는 광명과 통합의 의미를 담아 국운융창과 평화통일, 국민대화합을 기원하는 대비로전 낙성법회에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 2551(2007)년 11월 24일 (토) 오후 1시 ■ 장소 : 해인사 대비로전

□ 비로자나 광명 등 접수 : 1만원(1일등)
□ 대비로전 낙성기념 7일기도 : 동참금 3만원
□ 대비로전 단청불사 접수 중
□ 동참계좌번호 : 농협 843174-51-012494(예금주 : 해인사)
□ 문 의 : 종합접수실 055)934-3105~6, 팩 스 : 055)934-3107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현응 합장

불화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도

우리나라 사찰과 박물관이 소장한 불화는 총 3153점이며,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각단탱(73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세기 조성돼 남겨진 불화 35점 중 23점이 괘불이며,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에 전체 불화의 3분의 1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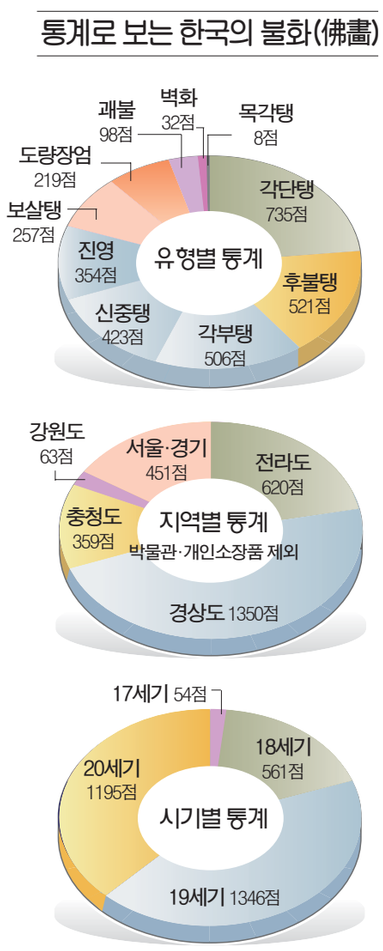
이 같은 결과는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이 20여년의 노력 끝에 완간한 <한국의 불화> 40권에 실린 불화를 토대로 집계한 것이다. 11월 10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10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에서 범하 스님은 '<한국의 불화> 조사 회고와 앞으로의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불화>에 실린 불화의 종류와 지역적 특성 등을 살폈다.

범하 스님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불화>에 수록된 불화의 수는 총 3153점이다. 각단탱이 총 735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후불탱 521점, 각부탱 506점으로 나타났다. 단일유형으로는 신중탱이 423점에 이른다. 후불탱 중에서는 아미타후불탱이 가장 많은 220점이고 그 다음이 석가모니후불탱인 180점이다. 또 각단탱에서는 칠성탱이 284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산신탱(155점)보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아미타후불탱과 칠성탱 모두 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조성된 것으로, 이로써 한국불교가 내세 기복 위주로 변화한 시기가 짐작된다.

시기별로는 17세기 이전에 조성된 불화가 19점 전해지고 이중 벽화가 9점이다. 현재 벽화를 제외한 나머지 10점의 불화는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17세기 조성돼 남겨진 불화 35점 가운데 23점이 괘불인 것도 주목된다. 괘불은 전시기를 통틀어 20세기 전반에 조성된 26점을 제외하고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에 대대적으로 조성됐다. 이것은 17~18세기에 의례절차상 괘불이 사용되기 시작했거나 괘불의 사용빈도가 많았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에 우리나라 전체 불화의 30% 이상이 있다. 가장 적은 수의 불화가 남아 있는 곳은 강원도로, 사찰의 수는 많지만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의 사찰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전남지역은 53불탱과 화엄탱, 밀교계 도상인 법신중위회37존도 등 특이한 도상이 전해지는데 이는 지역의 신앙적 특징을 알려준다.

범하 스님은 "앞으로 북한 및 해외소재 불화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대중이 불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출판물 발간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02)701-6830 조동섭 기자



Tip 불화용어

▲후불탱: 각 존상 뒤에 봉안된 불화로, 석가불탱 · 약사불탱 · 아미타불탱 · 비로자나불탱 · 삼심불탱 등이 있다. ▲괘불: 야외에서 의식을 치를 때 내어 거는 대형 불화 ▲신중탱: 호법선신인 범천 · 제석 · 천룡팔부 · 사천왕 등 여러 유형의 신중들을 그린 불화. ▲각부탱: 불전의 후불탱과 보살탱 · 신중탱을 제외한 불화로, 팔상탱 · 시왕탱 · 나한탱처럼 하나의 주제이지만 여러 폭으로 나누어진 불화 ▲각단탱: 예경의식에서 칠성단 독성단 · 산왕단 등 각 단에 봉안된 불화로 감로탱 · 현왕탱 · 칠성탱 · 독성탱 등이 있다.



11월 13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불교정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후보 "10·27법난 특별법 제정"

종단협 초청 간담회 참석 불교정책 공약 발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3일 서울 하림각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는 ▲불교관련 각종 법령 제 · 개정 ▲불교문화와 유적의 계승 발전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한 불교문화행사 지원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 지원 ▲10 · 27 법난 특별법 제정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를 정부 육성 청소년단체로 지정 ▲남북불교교류와 북한불교 문화재 복원사업 지원 ▲지속적 공양실천을 위한 불교전통문화연구소(가칭)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불교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이 후보는 "지난 11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7대 종단 대표들을 초청해 공정선거를 다짐하는 모임을 가졌었다"며 "이 자리에서 이용규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지관 스님에게 부산 벡스코 행사 등에 대해 교단을 대표해 불교계에게 사과하고 두 종교간의 화합을 위해 힘쓰자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주일 기자

이라크 심장병 어린이 치료 지원

불교여성개발원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최근덕, 이하 KCRP)가 지난해에 이어 이라크 어린이들의 의료지원에 나섰다. 이는 '이라크 어린이(일반) 환자 초청 치료사업'의 일환이다.

이번에 입국한 어린이는 모두 8명이다. 이 중 2명의 어린이가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고, 이들은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에서 파견한 자원봉사자들이 돌보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봉사자들이 돌보고 있는 두 어린이 라나(12)와 무니어(14)가 입국한 것은 11월 6일. 병원측과 함께 수술 절차를 상의하고 입원, 수술 날짜를 잡았다. 이 때부터 불교여성개발원 봉사자들의 역할이 컸다. 아랍어 통역을 통한 의사소통부터 두 어린이와 보호자 돌보기, 병실 수발하기 등을 모두 봉사자들이 맡았다. 특히 이슬람교도인 이라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서울 이태원의 음식점에서 하루 2번 배달시키는 세심함이 돋보였다.

불교여성개발원 황선미 과장은 "불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김강진 기자

불교문화 디지털콘텐츠 공모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4회 불교문화 디지털콘텐츠 공모전이 2008년 2월 11~29일 개최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공모전의 주제를 '템플스테이'로 정했다. 템플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는 72개 사찰과 관련된 설화, 문화재, 인물, 체험프로그램 등 불교문화 전반을 소재로 한 플래시애니메이션과 캐릭터 · 일러스트 등을 공모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지난해 수상작품들은 템플스테이 사이트(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011-1976

여수령 기자

'다문화시대 법회' 포교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다문화시대, 법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11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다문화시대에 맞는 법회의 형태와 이웃종교의 사례 등을 살펴본다.

김성철 교수(동국대)가 '다문화시대, 법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윤소희 동국대 강사가 '해외법회, 어떻게 이루어지나-대만 음악법회 사례를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한다. 또한 성철 스님의 선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프랑스인 신부 서명원 교수(서강대)가 '다문화시대, 이웃종교 법회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02)2011-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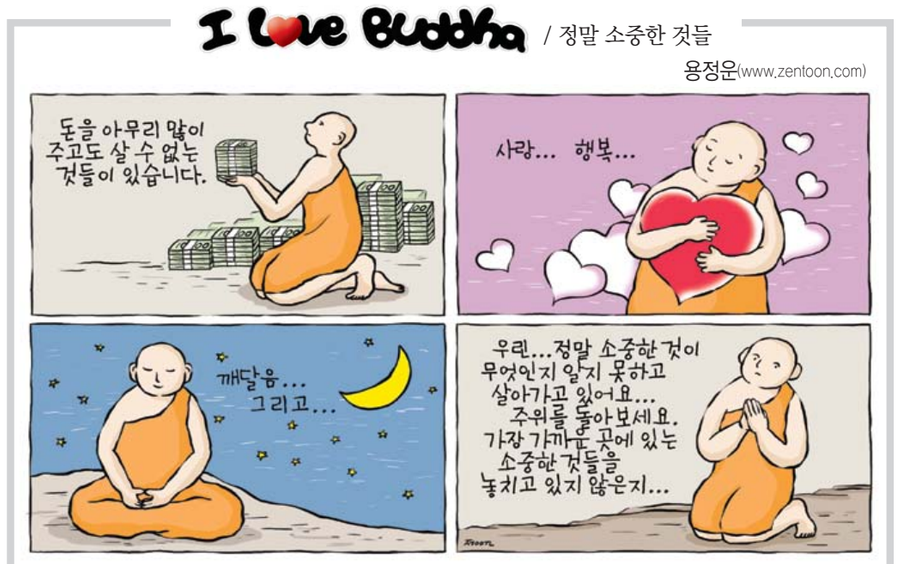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용주사서 국제포교사 재교육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국제포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11월 10~11일 화성 용주사에서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개최한 이번 연수에는 30여 명의 국제포교사가 참석했다. 교육은 입재식에 이어 보림 스님(안산 보문선원 주지)의 '불교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포교사의 역할' 강의와 국제포교사 역할찾기 워크숍, 정락 스님의 '자원봉사 신나게 하는 방법',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의 '아름다운 동행'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여수령 기자



교계단체들 "청정위 구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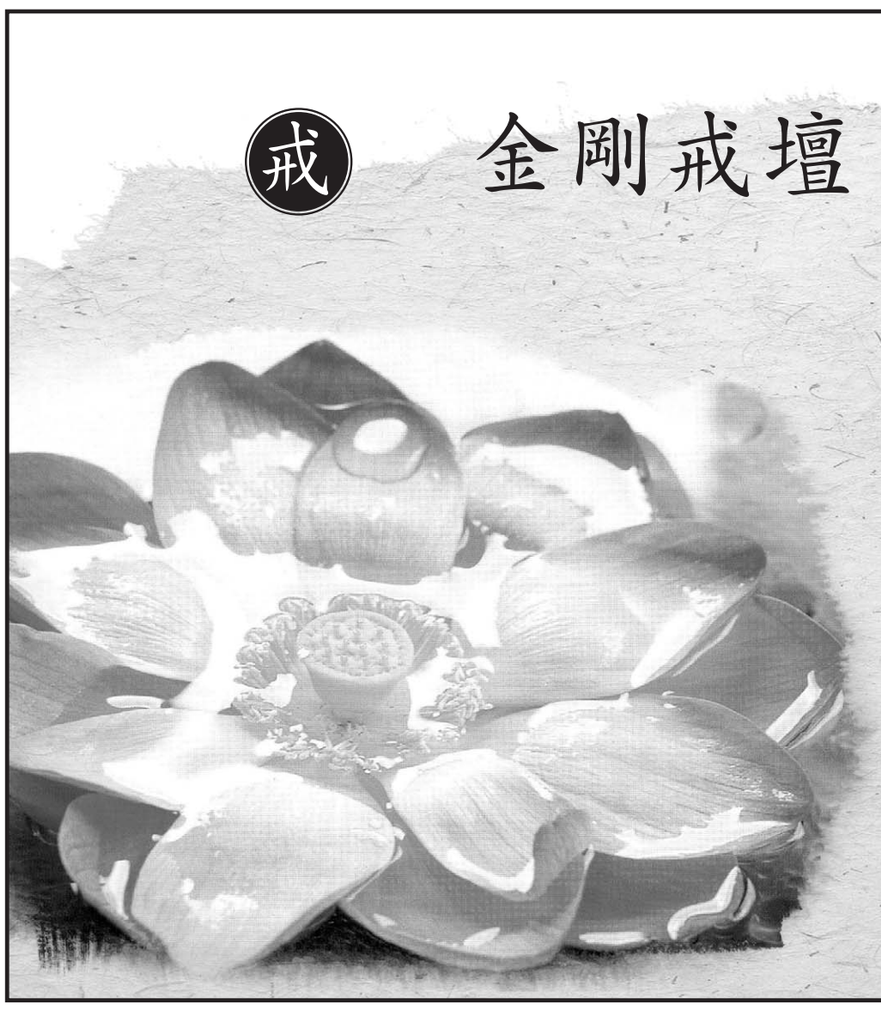
총무원 미온적 태도에 반발

불교계 단체들이 '종단청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을 강하게 질책하며 청정위 구성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불교여성개발원,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8개 단체는 11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청정위원회 구성이 결국 무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종도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행위며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 잡고자하는 의지가 없음을 반증할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단체 실무자들은 11월 13일부터 매일 오후 1시 총무원 청사 앞에서 종단 청정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戒 金剛戒壇 具足戒 山林大法會 行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비구, 비구니계율을 수지하며,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바, 원만히 회향하였음을 제방에 사룁니다

本 證 大和尙 龍海, 慧隆, 聖雲 大和尙
尊 證 아사리 錦峰, 明鐘, 修岩, 松隱, 圓覺, 慧雲, 法雲
奉行委員長 圓 覺 金剛戒壇長 智 空

수계산림일정 : 불기 2551(2007) 정해년 11월 5일 - 11월 7일
입제일 : 2007(정해)년11월 5일 / 회향일 : 2007(정해)년 11월 7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서울 강북구 수유 5동 440-27 엄지빌딩 4층/ 전화 (02)998-8161,2

"제2의 마부노호 만들어선 안돼"

피랍선원 석방운동 앞장서 온 해상노련 쟁의대책 공원범 국장



지난 10월 14일 부산롯데백화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확성기를 들고 있는 공원범 국장, 한석호 선장의 부인 김경심 씨, 해상노련 박희성 위원장, 해상노련 안대선 조직본부장.

지난 5월 15일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북동쪽 210마일 해상에서 무장 해적들에게 납치됐던 마부노호 선원 24명이 11월 16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5월 10일 케냐 몸바사항에서 출항한지 190일만이다.

정부의 외면 속에 선원들의 무사 귀국을 위한 성명서 발표, 성금모금 및 외교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사람이 있다. 바로 전국해상산업노동협동조합 해군조직본부(이하 해상노련) 쟁의대책 공원범 국장이다. 지난 11월 10일 범어사(주지 대성)에서 그를 만났다. 피랍 선원 가족을 위로하고 석방을 위한 성금 모금과 재발방지를 기원하는 법회에서다.

"12일 선원가족들과 함께 마부노호가 입항하는 예멘 아덴항으로 출국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모든 것이 무사히 해결돼 기쁩니다."

그는 선원 가족들과 규명활동을 펼치며 잠도 제대로 못자 마음고생을 했다고 한다. 석방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뻤다는 공 국장은 멀고 먼 예멘으로 가는 길이 행복의 길이라며 즐거워했다.

선원 가족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듯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설명해주는 공 국장이다.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져 있는 공 국장은 그동안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지 않고 국내에서 활동하며 해상노련과 함께 피랍가족들을 돕는데 앞장서왔다.

"정부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코웃음을 치고 유서까지 쓰면서 전쟁지역에 간 사람들에게는 정부 특사에 국가 정보원장까지 현지에 날아가는 등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아프간 피랍 사태와는 다르게 정부는 미온적으로 이일을 대처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주기를 선원 가족들에게 요구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지요. 종교, 직업, 지역에 상관없이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이니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분들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며 여러분이 협상을 해결해 준 당사자들입니다."

석방된 선원들을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는 공 국장은 앞으로 "선원들과 선원가족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한편 해상노련은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의 무분별한 감척사업을 규탄할 예정이다. 피랍된 마부노호는 정부가 감척사업의 일환으로 매각한 선박을 다시 해외 한국인 어선주에게 저렴한 값으로 되팔았던 것이다.

감척으로 인해 실직한 어선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위해 해당 선박에 승선했다 이러한 낭패를 당했다. 해상노련 관계자는 "무분별한 감척사업은 제2, 제3의 마부노호를 만들 것이다"고 우려했다.

하성미 기자



자비의 마음으로 촛불을 밝혔던 지난해 생명나눔 콘서트 현장.

100원으로 전하는 이웃사랑

부산 생명나눔, 11월 23일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다. 추운 날씨만큼 삶이 힘든 이웃을 돕기 위해 연말이면 온정의 손길도 늘어난다. 하지만 높은 기부금액을 보고 마음을 접는 사람도 많다. 이제 주머니 속 100원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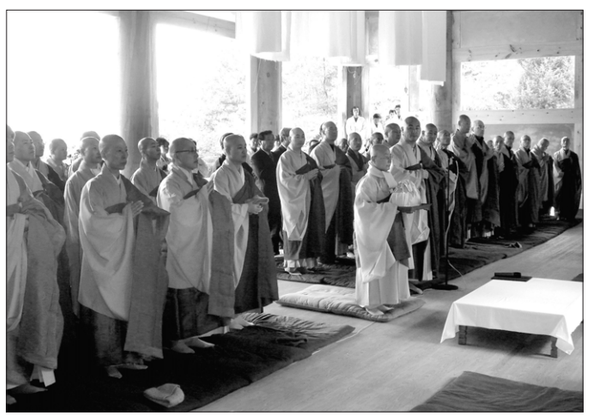
'100원을 모아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자'는 희망 콘서트가 개최된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2007 생명나눔의 날을 맞아 11월 23일 오후 3시 국제신문 4층 대강당에서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를 마련한 것이다.

생명나눔 편지 및 난치병 환우 사연 소개가 진행될 1부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호소하고 100원의 작은 정성이 모여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2부 콘서트에서는 불자가수 강혜윤, 순야타의 연꽃의 소리, 해동중학교 비보이팀, 국악, 정법 스님의 수화, 향상선원 어린이 사물놀이, 청공중창단이 공연한다.

이날 모인 성금은 서희진 어린이에게 전달된다. 초등학교 6학년인 서희진 어린이는 자가 면역성 질환인 '전신성 홍반성 낭창'을 앓고 있다.

희진이의 아버지는 간암과 위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당뇨로 인해 직장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051)853-0429

하성미 기자



음성 한마음 광명선원의 대웅전 상량·우주탑 봉안법회 모습.

대웅전 상량·우주탑 봉안법회 봉행

음성 한마음 광명선원서

음성 한마음 광명선원(지원장 청백)은 대웅전 상량과 우주탑 봉안법회를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봉행했다.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원 스님과 각 지원장 스님 신도 등 3000여 명이 동참했다.

대웅전 대들보에는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 만법을 들이고 내는데 걸림이 없어라. 아미타 한도량"이라는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의 법문이 적혔다. 2003년부터 불사가 시작된 광명선원 대웅전은 2300㎡(71평) 크기로 외 9포 내 11포의 팔작지붕이며 국내산 금강송 등을 사용해 건립하고 있다.

법회에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이렇게 훌륭한 대웅전을 건립하는데 뜻을 모아 준 불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정진 또 정진해서 나 아닌 나를 알아서 자성 청정한 삶을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청주 용화사 용화봉사단 지체 장애우들과 나들이

청주 용화사 용화봉사단(단장 김대근)이 지체장애 1급 장애인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성보나의 집(원장 알마수녀) 가족들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 덕진공원, 동물원 나들이를 11월 11일 다녀왔다.

현대건설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신축현장(소장 윤재령)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나들이에는 정신지체장애 1급 여성 35명과 선생님 등 70여명이 함께 했다.

단장 김대근 포교사는 "1주일 전부터 장소를 물색하고 차량준비 등 행사 준비에 흘린 땀들이 환우들의 함박웃음으로 깨끗이 씻겨 진듯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봉사의 기쁨이 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로 용화봉사단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며 자비희사 정신으로 봉사단이 필요한 곳이면 종교를 가리지 않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시켰다. 혜철 충청지사장

'비로자나佛' 불 나도 안심!

화재·재난 대비 안전설비 갖춘 대비로전에 보관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에서 2005년 발견된 국내 최고(最古) 동형쌍불목조 비로자나불상(경남지정 유형문화재 제41호)이 각종 재난과 화재를 이길 수 있는 최첨단 안전설비를 갖춘 대비로전(大毘盧殿)에 모셔진다.

이번에 선보이는 대비로전의 첨단설비는 화재에 대한 열감지기, 지진에 대비한 진동 측정기 등이다. 첨단 안정장치 구축으로 해인사 비로자나 부처님은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 6m 깊이의 별실로 자동 이동 된다.

출입구에는 뜨거운 열이나 중량에도 견딜 수 있도록 2중, 3중의 자동 차단장치가 덧붙여졌다. 보수공사나 필요시 수동조작도 가능하다.

"불이 나면 사라지는 문화유산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컸다"는 주지 현응 스님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일할 이 첨단 공법들은 앞으로 문화재 보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비로전 낙성법회는 11월 24일 오후 1시 해인사 대비로전에서 봉행된다. 이번 낙성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도림 법전 스님,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55)934-3111

하성미 기자

옥천어린이집 종교체험 행사

옥천어린이집(원장 이창희) 어린이들이 11월 13일 옥천 대성사(주지 혜좁)를 방문했다.

지역사회 바로알기 종교 체험행사의 일환으로 불교 바로알기 체험을 진행한 것이다. 지역 종교 탐방을 통해 종교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어린이들은 대성사를 방문해 부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합장하기 절하기 등 불교의 예법을 배웠다. 혜철 충청지사장

현대불교 후원 :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백담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발우공양을 체험하는 미국 언론인들.

美 언론인 백담사 템플스테이

미국의 주요 언론사 간부들이 11월 10~11일 인제 백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USA 투데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볼티모어 선, 미국 국영 라디오 등 미국의 주요 언론사 부장급 이상의 언론인 20여 명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이 운영하는 '국제보도 프로젝트(IPR)'에 참가하기 위해 4일 입국했다. 이들은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국내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는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참가자들은 백담사에서 다도와 발우공양 · 새벽예불 등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했고, 백담사 포교국장 도명 스님으로부터 '한국불교의 이해' 강의를 들으며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령 기자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창종 20주년 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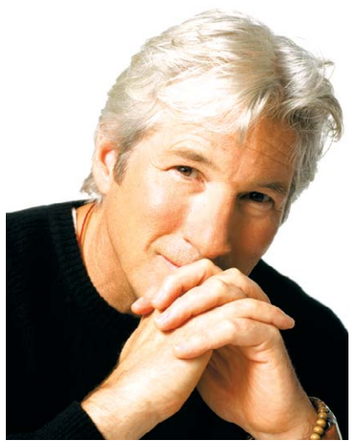
봉행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제6대 총무원장 혜염당 혜봉큰스님 취임법회

종단의 안정과 화합, 축하와 격려 속에서 제6대 총무원이 새로운 출범을 합니다.
뜻 깊은 자리에 수희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2551년 11월 30일(음. 10. 21) 금요일 낮 12시
■ 장소 : 하림각 다이아몬드홀
■ 문의 :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
TEL. (041)734-5371~2, H·P 011-859-2707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취임법회 봉행위원장 회광 · 집행위원장 성철 청혜 합장

리처드 기어 # “30년 중 사흘만 수행 못해… ‘나’ 비우려 노력”



리처드 기어 현각을 만나다

불교TV 주선, 뉴욕 맨해튼에서 특집 대담

숭산 스님의 푸른 눈 상좌로 알려진 현각 스님(43·사진 오른쪽), 그가 세계적인 영화 배우 리처드 기어(58·사진 왼쪽)를 만났다. 리처드 기어는 ‘미스터 굿바를 찾아서’ ‘사관과 신사’ ‘귀여운 여인’ ‘시카고’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현각 스님은 저서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 선불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이다. 둘은 서양인이라는 것 외에 미국의 전통적인 개신교 가정에서 성장했으나 성인이 된 후 불교의 매력에 빠져 수행 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은 불교를 공통분모로 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현각 스님은 출가자의 모습으로 한국 선불교를 경험했고, 리처드 기어는 재가자의 모습으로 티베트 불교에 심취해 있다. 세계 자본주의 중심이며 현대 문명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불교TV의 주선으로 뉴욕 맨해튼 리처드 기어 개인 사무실에서 만난 이 서양인 불자들의 30분간 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 눈푸른 이 두 불자의 대담을 듣다 보면 한국 불교가 세계속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듯하다. 11월 13일 방영된 두 사람의 만남을 다룬 불교TV 특집대담 ‘리처드 기어 현각을 만나다’의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주



▲불교와의 만남

현각: 불교의 매력에 빠져 수행 하다 어느 순간 스승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하버드 신학대학에서 숭산 스님을 뵙고 그분의 시자로 살면서 집중 수행을 시작했다. 100일 안거, 90일 안거 등 선불교 스타일대로 수행하며 ‘나’라는 존재를 오롯이 헌신한 채 그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기어: 나는 그리스도교적 환경에서 자랐다. 특히 개신교중 감리교도인 아버지는 목사나 다름없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탓에 나는 아버지와 다른 종교이지만 자신의 정신을 탐구하는 종교인 불교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됐다. 내게 있어 불교는 자연에 의지하는 농부의 엄숙함과도 같은 가르침이었다. 그 엄숙함이란 나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는 마음, 나는 햇빛을 만들 수 없으며, 그저 주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선불교의 특성이라 생각한다.

▲선불교에서 티베트 불교로

현각: 리처드 기어, 당신은 본래 선불교에 입문했었다. 모든 것을 비우고 쳐내면서 화두를 참구하며 사고(思考)가 일어나기 이전 마음의 본성을 직접 바라보는 공부를 했다. 그러다가 당신은 티베트의 가르침에 이끌렸다. 티베트 가르침의 무엇이 당신을 선수행에서 히말라야 불교로 이끌었는가?

기어: 선불교가 좋았던 것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수행법을 선불교의 엄격한 스타일로 경험하니 수행하는 습관이 붙게 됐다. 수행을 하다보니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본다는 것은 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던 중 달라이 라마를 인도에서 만났고, 그 순간 나는 커다란 자비심을 느꼈다. 물론 선수행에도 있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매우 분명하게 강조한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마주함은 바로 무아를 성취하는데 매우 직접적인 방식이다.

▲정신적 스승 달라이 라마는

현각: 나는 선승으로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불교를 만났고 특히 유럽에서 티베트 불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목격했다. 불교의 많은 전통 중에 나라를 잃어 특별한 후원도 없는 티베트 불교가 환영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기어: 가장 큰 요인은 달라이 라마다.

현각: 달라이 라마 한 개인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보는가?

기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달라이 라마는 그 어떤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한 분이다. 그는 소통에 있어 매우 지혜롭고 자재하다. 이것은 위대한 스승만이 갖춘 품성이다. 우리 시대에 많은 스승과 불교의 스승들이 있지만 그 누구와도 그렇게 지극히 단순하고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달라이 라마는 당신이 영어를 모른다 해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 알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의 유머, 극도의 단순 · 소박함이 중요한 장점이며 불교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보다 더 잘 설명할 사람은 없다.

우리는 다양한 가르침에 속한 많은 스승들을 접했지만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은 천년에 한번 있을 희유하고 복된 일이다.

▲수행은 곧 삶

현각: 당신은 일상의 삶에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는가?

기어: 나는 반드시 하루를 수행으로 시작한다. 수행을 통해 나의 참마음이 보편적이며 전혀 개인적이지 않다는 동기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남을 돕기 위해서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한다. 30년동안 단 사흘만 수행을 못했다.

수행을 하며 느끼는 것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수행이고 그런 수행이 무한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세상 속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가능성들에 대해 약간의 조절기능만 갖추면 족하다. 그리고 한 순간 “아, 내 생각은 이리로 가고 있구나!” “아, 내 감정이 그리로 향하고 있었구나!”하는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이 부정적이면 좋게 전환시키고, 긍정적이면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매우 중요한 수행이다.

또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역시 무아를 닦는 강력한 수행이다. 인내심 역시 혼자 있을 때보다는 가정에서 훨씬 더 닦을 기회가 많다.

▲사홍서원

현각: 사홍서원이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묻고 싶다. ‘첫째, 중생이 수도 없지만 모두 건지오리다.’ 이것을 당신은 어떻게 실천하는가?

기어: 동기가 중요하다. 언젠가 달라이 라마가 기도에 대해 법문할 때 “기도는 극히 복잡하고 어렵다. 이를테면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중생을 어떻게 구하겠노라고 기도하겠는가?”라고 물으며 “무엇보다도 우선 그냥 서원을 말하라”고 했다. “먼저 그 말을 믿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말하라.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너의 마음이 그 생각으로 꽉 차게 될 것이다”라고 말이다.

현각: ‘둘째, 번뇌가 끝이 없지만 전부 끊으오리다.’ 이것을 어떻게 일상속에서 실천하는가?

기어: 성숙이 관건이다. 그 무엇도 단 하나도 우리가 집착해야 하거나 항상하는 것은 없다. 약간만 훈련하면 사고와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훈련을 조금만 더 하면 그런 사고와 감정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

그런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

현각: ‘셋째, 법문이 한이 없지만 모두 배우오리다.’

기어: 우리는 하나로부터 시작한다. 나는 무아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관건이고, 감정적으로는 인내심이다. 나와 남을 향한 인내심 그리고 자비심.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혹한 경우가 많다. 나는 수행을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관대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현각: 마지막으로 ‘불도가 드높지만 기어이 다 이루오리다.’ 이 서원은 당신에게 매일 무엇을 하게 하는가?

기어: 불법이 개념화되었다면 그건 분명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피아노 연습과 마찬가지로 기술이 필요하다.

피아노가 무엇인지, 내 손가락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마음이 어떻게 배어나올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어떻게 동기가 부여되는지, 자신만이 아니라 남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 노래가 피아노에서 나올 때, 나의 생명력이 몸에서 나올 때 그것이 남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궁극적으로 전 우주가 함께 공명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정리=조동섭 기자



리처드 기어와 대담을 하고 있는 현각 스님(사진 왼쪽). 사진제공=불교TV

제작노트 - 불교TV 김준년 PD(사진)



특집대담 ‘리처드 기어 현각을 만나다’는 원래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을 대담하려고 기획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11월 중순 불교TV에서 방영 예정인 티베트 명상음악가 ‘나왕케촉’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불쑥 튀어나온 아이디어로 기획됐다.

과정은 이렇다. 나왕케촉 주변 인터뷰를 찾던 중 그와 리처드 기어가 절친하다는 것을 알았다.

리처드 기어는 1991년 미국 뉴욕의 티베트하우스로 나왕케촉을 초청해 공연을 열어줬다. 이후 기어와 나왕케촉은 절친한 사이가 됐으며, 나왕케촉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리처드 기어는 물심양면으로 그를 후원해줬다. 그래서 나왕케촉 다큐

각별한 ‘불교 사랑’덕에 리처드 기어 인터뷰 성사

를 위해서는 리처드 기어의 인터뷰가 필요했다.

8월말부터 리처드 기어 프로덕션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불자인 리처드 기어와 현각 스님의 대담을 기획하면 불자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시 현각 스님에게 취지를 전화로 알려 드렸더니 스님은 흔쾌히 허락하셨다.

인터뷰는 9월 12일 한국에서 함께 간 현각 스님과 뉴욕 맨해튼에 있는 리처드 기어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리처드 기어는 불교적인 내용이 아니었더라면 바쁜 일정 때문에 인터뷰하기 힘들었을 거란 얘기를 했다. 그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불교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는 불교가 영화보다 더 큰 삶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달라이 라마를 많이 만나 중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을 정도라고도 했다. 인터뷰는 주로 현각 스님이 묻고 리처드 기어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터뷰를 마친 후 현각 스님은 “그가 갖고 있는 불교적 지식과 수행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수행자적인 풍모가 많이 느껴졌다”고 피력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edu.cn

조기유학생 모집
초6 · 중 · 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7년 12월 28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제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 대학림

한국 총장 손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한·중·일 '상생 가위·바위·보' 하자

동국대 한·중·일 국제학술심포지엄 … 문화정체성 확립의 계기 마련

한·중·일 삼국의 문화적 이질성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 창출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북아 네트워크 국가 건설을 통한 공존과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11월 15~16일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동아시아 문화정체성 확립을 통한 한·중·일 협력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열린 한·중·일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이어령 前 문화관광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어령 前 장관은 '동 아시아의 융합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삼국은 정치와 경제적 접근이 아닌 문화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며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화는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며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시대의 동질성과 지역문화로 표현된다.

문화라는 용어에 대해 그는 "현재 우리에게 통용된 문화의 개념은 '문치교화(文治敎化)'가 아닌 서양의 '경작하다'는 의미의 컬처(Culture)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며 이것의 개념을 고치기 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세아라는 명칭은 16세기 후반 마테오 리치가 처음 사용한 말로 고대 희랍의 헤카타이오스에 의해 유래됐다. 헤카타이오스가 최초로 그린 세계지도에는 유럽과 아세아의 구분뿐이며, 동서 축이 아닌 남북을 축으로 유럽은 북쪽에 아시아는 남쪽에 그려져 있다. 콜호넨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아세아와 유럽은 각각 해가 뜬다는 '아수(asu)'와 해가 진다는 '에레브(erebu)'에 그 어원을 둔다. 현재도 동남아, 서남아 등 지역권별로 아시아를 부르는 호칭이 아세아 중심이 아닌 서양을 중심으로 한 방향의식임을 알 수 있다.

"아세아라는 지역과 명칭은 있으나 정작 아세아는 없다"고 주장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인용해 희랍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문제에 접근해야 함을 전제했다.



'동 아시아의 융합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이어령 前 장관.

"동북아 아세아의 각국이 서로 자신의 우월성만을 주장하면 또 다시 패권주의의 제물이 돼 역사상의 비극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존과 공생을 강조한 그는, 그 방법으로 유럽연합(EU)과 같은 동북아 네트워크 국가건설을 제안했다. 그가 삼국이 하나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제시한 것은 매화와 용이었다.

"목련은 중국인만이 으뜸으로 여기고, 벚꽃은 일본인만이 최고로 치지만 매화는 그렇지 않다. 중국에서 시작된 매화는 천년 가까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함께 지내온 친근한 나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용(龍)을 "소수민족들에게 토템의 대상이던 다양한 짐승들을 하나로 융합시킨 아이콘"이라고 말한 이 前 장관은 용의 이미지를 사슴의 뿔, 낙타의 머리, 소의 귀, 호랑이 발에 독수리 발톱, 토끼눈에 몸통은 악어의 형상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자기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조화의 아이콘은 봉황이나 현무, 주작에도 해당된다.

이 前 장관은 더 나아가 동양의 용과 서양의 키메라를 비교했다. 용이나 봉황 등이 조화를 이룬 모습인데 반해 흉측한 괴물로 묘사되는 키메라는 모든 문화 문명이 이항대립체제(binary opposition)로 발전해온 서양과 동양이 다름을 보여주는 예다.

이런 조화와 융합의 전통이 동양에서는 종교로도 나타났다. 이 前 장관은 "유교 · 불교 · 선도 등이 용처럼 습합되어 함께 삼교일치(三敎一致)한 것"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에 문화(종교) 충돌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슬기롭게 미래를 준비할 열쇠가 있음을 보였다.

"한 · 중 · 일 동북아 삼국이 대륙과 반도와 섬이라는 서로 다른 지리적 환경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도 서로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문화적 관용주의를 실현해 왔다"고 설명한 그는 동북아 삼국의 하나된 미래가 결코 요원하지만은 않다는데 무게를 두었다.

동북아 균형을 위한 한반도의 역할론에 대해 이 前 장관은 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강조했다. "중화사상으로 대변되는 강대한 대륙문화와 대동아공영으로 표현되던 강력한 해양문화 속에서도 한국은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고 평가한 그는 삼국의 무역균형을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로 설명했다. 실제로 삼국의 무역은 한국은 중국에 흑자를 내고 일본은 한국에 흑자를 내며 중국은 일본에 흑자를 내는 가위바위보의 구조로 이뤄져있다.

이어령 前 장관은 조정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가마솥에 비유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이 불이고, 일본이 물이며 한국은 물과 불을 상극이 아닌 상생으로 이끈 가마솥의 역할을 한다. "중국의 중화사상과 일본의 대동아공영의 우를 막고 공존 · 공생의 길로 가려면 한 · 중 · 일 삼국이 각기 가위바위보 하는 균형관계론이 필요하다"는 이 前 장관은 동북아 힘의 균형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공부(工夫)'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배우다(Learn)의 의미지만, 중국에서는 시간(틈)의 의미로, 일본에서는 생각한다(think)는 서로 다른 의미임을 예로 든 그는, "창조는 평범한 기술의 비범한 결합"이라고 설명하며 삼국의 문화적 이질성에서 새개념을 창조할 것과 가위바위보를 통해 공존 · 공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을 대표해 기조강연을 한 지앙리펑 소장(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은 '21C 한중일 협력방안 고찰'을 통해 삼국을 이익공동체라 규정하고 ▲공고한 정치적 기초를 통한 정치적 신뢰구축 ▲공고한 경제기초를 통한 경제적 상호이익 생산 ▲공고한 문화적 기초를 통한 문화의 상호접촉 ▲공고한 민간기초를 통한 국민간 상호존중을 주문했다.

일본을 대표한 기조강연에 나선 마루야마 코이치 교수(일본 복강여학원대학)는 '한 · 중 · 일 공통문화의 재인식과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 · 중 · 일 삼국의 경계선이 하나의 띠를 넘을 정도로 좁고, 이것을 넘어 상호 왕래하는 것이 간단하고 용이하다는 의미의 '일의대수(一衣帶水)'라는 중국말을 예로 들어 한중일 3개국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문화를 설명했다.

이번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함께 고민한 결과가 한 · 중 · 일 모두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공존과 공생을 위한 한중일 각계 전문가들의 실험은 시작됐다. 조동섭 기자

고려 초조대장경은 다문화 집합체

2007 한·일 공동 고려초조대장경 디지털사업 국제워크숍 개최

<남선사 일체경>은 초조대장경, 재조대장경, 개보칙판, 송판, 원판, 고려 사경, 일본 사경 등 동북아 대장경 문화가 두루 혼재된 컬렉션임이 밝혀졌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가 11월 10~11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개최한 국제워크숍에서 남권희 교수(경상대)와 정재영 교수(한국기술교육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 남선사 소장의 고려 초조대장경'을 주제로 발표한 남 교수와 정 교수는 "<남선사 일체경>은 한·중·일 삼국의 경전들을 취합해 한 질로 집대성한 경전"이라며 고려 초조대장경의 형태적 특징과 규모 전래경위 등을 설명했다. 또한 경전 뒷면에 찍힌 고려 충선왕의 심왕부(瀋王府) 인장 근거로 원판 대장경이 중국이 아닌 고려로부터 초조본과 함께 전래됐을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면서 원판대장경의 고려 유통설을 제시했다.

이어진 시연회에서 오윤희 소장(고려대장경연구소)은 대장경 자료 검색을 시연했다. 대용량 이미지 파일을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해 단시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색결과는 단순히 개별검색 결과를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경전 자료를 다양한 조건을 통해 한 화면에서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소장은 똑같은 내용의 경전을 서로 다른 판본으로 대조해 볼 수 있음을 시연해 보이며 "이제자 변천 추정등 시기별 문헌 연구를 위한 기준점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소는 대장경 검색 및 활용에 UCC 개념을 도입해 일반사용자 참여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경전 검색을 하던 사용자는 원하는 곳에 자기가 번역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입력된 내용은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검색서비스에 반영된다.

한편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11년 대장경 천년의 해를 앞두고 천년의 결연, 복원기금 마련 삼천후원인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장경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참조. 조동섭 기자


대장경 검색 시연을 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오윤희 소장.

Tip 용어설명

태깅(Tagging)이란? 콘텐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혹은 태그 등의 검색용 꼬리표를 다는 것을 말한다.

UCC(User Created Contents)란?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콘텐츠를 뜻한다. 영상, 사진은 물론 자막, 게시판 답변 등 개인이 제작한 저작물들을 뜻한다.

간화선 연구자 간다라 시대를 상상하다

보조사상연구원 제5차 국제학술대회 개최

간화선 연구자들이 사상적 원류를 인도 명상문화에서 찾자며 한자리에 모였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서울 법련사(주지 보경)에서 열린 11월 17일 제5차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3년간의 간화선 연구를 마치고 불교 수행론 전반에 관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법산 스님은 '정보화시대의 언어와 명상문화'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간화선 연구를 통해 중국 선종문화의 배경이 되는 인도불교의 명상문화에 대한 본질적 탐색이 필요하다는 중론에 따라 오늘의 학술대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불교: 언어와 명상'을 주제로 열린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고대 간다라어로 된 4개의 경전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앤드류 글라스(일본 교토불교대 강사)는 발표문 '간다라의 수행'을 통해 "간다라에서 해탈도에 이바지하는 수행에 사선정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불교의 수행법에 대한 기원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명상심리 치료의 권위자인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은 '명상과 심리치료: 명상유식관법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문에서 초기유식학파의 실천론을 정리했다.

한편 보조사상연구원이 명칭의 한계를 벗어나 학문적 영역을 확대한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긍정과 비판의 평가가 엇갈린다. 한정된 주제를 탈피해 그간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연구영역의 확대를 시도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학문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조동섭 기자

학술단신

■ 성철 스님 열반 14주기 추모 학술회의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1월 21일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성철 스님의 일상의례와 선: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성철 스님이 강조했던 수행법인 능엄주 독송과 백팔예참문의 연원 등이 조명된다. (055) 933-5775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3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개강안내 12월 6일 10:00~17: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농협408-01-086128
(예금주 : 임병국)

▶특전 :-.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 및 전생상담사증 발급

수료후 미국최면의과대학 편입학 가능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의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알레르지,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빙의장애 무료상담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상담전화 1577~1276 (일오칠칠 ~ 심리치유)



경선원에서 봉행된 다례재.

통일보살되어 불국정토 이루리

6.15 공동선언 실천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다례재 법회


경선원에 모셔진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진영.


기념식수.


천태종총무원장 정산 스님이(왼쪽) 심상진 부위원장에게 선물 전달.

안개가 자욱했다.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임진각에서 합류한 7대의 버스가 남측 CIQ(출입국관리소)를 거쳐 북측 CIQ에 이르는 시간까지 안개는 걷히지 않았다. 대한불교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정산 스님 등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신도들이 개성 영통사로 향하는 길이었다. 11월 14일, '6.15 공동선언 실천 대각국사 의천스님 열반다례재 법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간, 안개 자욱한 이 날은 '어제의 날'도 아니고 '내일의 날'도 아닌 오직 2007년 11월 14일이라는 '오늘의 날'일 뿐이었다. 물론 무시무종의 시간 속에 오늘이 있을 수도 없다. 900여 년 전, 1101년 늦가을 입적한 고려의 국사 의천 스님을 기리는 다례재의 의미를 분절체로서의 시간 속에서 따질 일은 아니다. 계절이 수 없는 반복으로 살아 있듯 인간의 시간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분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날의 다례재는 시간이 아닌 공간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의미를 품고 있었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향훈이 되살아 난 영통사는 남북통일과 민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숭고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영통사. 개성시내를 벗어나 산길을 돌고 호수를 휘돌아 도착한 오관산 영통사는 가을보다 깊은 고요에 침잠되어 있다가 불심 가득한 남측의 사부대중이 당도하자 덩실 춤이라도 추는 듯했다. 맑은 계곡물과 장엄한 봉우리들 그리고 산뜻하게 복원된 당우들이 한 폭 그림으로 남측의 사부대중을 반겼다.

대웅전격인 보광원(普光院) 앞 북측의 국보 제133호인 5층 석탑을 가운데로 하고 300여 남북의 사부대중이 정연하게 앉으면서 법회는 시작됐다.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의 정서중 서기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시작된 법회는 종정 도용 스님을 시작으로 헌화와 헌향을 하면서 엄숙함을 더하기 시작했다. 법회에는 남측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정산 스님 총무부장 무원 스님 사회부장 경천 스님 등 종단 주요 지도자와 270여 명의 신도들이 참가 했고 북측에서는 조불련 심상진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서중 서기장
한서중 부장 차금술
부장 최용호 김
진삼 장철수
(혜명, 영
통 사



주지) 스님 등과 안내원이 참가했다.

반세가가 넘는 분단의 시간을 뛰어넘어 남북 불자들의 합일된 의지로 영통사가 복원되고 그 너른 마당에서 남과 북의 불자들이 함께 합장하고 하나의 목탁에 맞춰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이어지는 법회. 분명 이 법회는 분단이라는 시간과 이념이라는 공간을 다 넘어선 곳에서 대각국사의 의천 스님의 '회삼귀일' 사상을 눈앞에 드러내는 역사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향연(香煙)같은 안개가 산허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법회에서 심상진 조불련 부위원장은 "불신 대결의 북남 관계가 6.15 선언의 기치 아래 화해 단합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북남의 불교도가 온 겨레의 통일열망을 물씬 담아 화합하고 통일불사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도 "대각국사의 회삼귀일과 회통정신을 분단의 오늘에 돌이켜 통일불국토를 이룩하는데 합심진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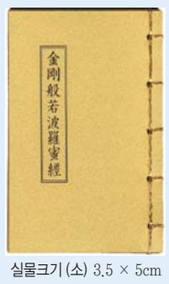
양측의 대표자들이 열망하는 민족 화합과 통일의 '열망'은 천태종 사회부장 경천 스님과 영통사 주지 혜명 스님이 함께 봉독한 발원문에서 절절하게 묻어났다.

"법계에 가득하신 거룩한 부처님, 뜻 깊은 10월에 이어 찾아 온 11월에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 한마음 기울여 합장 발원 하오니 오늘의 이 '6.15 공동선언 실천 대각국사 의천스님 열반다례재법회가 내 나라 통일을 위해 나선 북과 남의 사부대중들이 6.15 통일 시대를 빛내며 나아가는 어엿한 통일 보살로 거듭나는 소중하고도 또 소중한 순간이 되도록 무량한 가호를 내려 주십시오."

법회에 이어 대중들은 보광원 뒤쪽의 경선원(敬先院)에 모셔진 대각국사 의천 스님 영정 앞으로 모였다. 각종 재물이 차려진 가운데 종정 도용 스님의 헌향으로 다례가 봉행됐고 참가자들은 의천 스님의 가르침이 통일의 영광으로 나투기를 염원했다. 그 염원은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비가 서 있는 영통사 앞마당에 한 그루 소나무로 심어졌다. 소나무의 푸른 가지들은 새 땅에 뿌리를 내려 세세생생 그 푸름을 더해 갈 것이다. 남과 북, 북과 남의 불자들이 염원하는 통일불국정토가 열리는 그 날까지.

개성/글=임연태 사진=김주일 기자

6.15 공동선언 실천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 다례재 법회가 1월14일 개성 영통사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한성기, 최용호, 심상진 북측 스님,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 의장 도정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용 소장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통증완화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뜸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냉하신분 ◆손,발이차신분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氣회복 ◆생리통, 허리통증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 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배, 허리, 발바닥 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일주문



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묵 스님은 11월 18일 서울 봉은사에서 '부처님과 함께 만드는 제40회 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진행했다.



보광정사 대웅전 낙성법회
증평 보광정사 주지 보광 스님은 11월 25일 오전 10시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충북교구 종무원장 원해 스님 등이 참석한다.(043)838-4671



총무원장 지관 스님 예방
동국대학교 이명묵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1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원장은 "동국대병원을 불교계 건강 병원으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진관사 합창단과 합동음악회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동산아미타합창단, 진관사 묘음합창단과 합동음악회를 연다.(02)732-1206



선어강의 개강
도서출판 민족사 윤창화 사장은 11월 27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종로 민족사 사무실에서 선어(禪語) 강의를 한다. (02)732-2403



가족기능 강화 보호자 치료사 교육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이상호 관장은 11월 24일 오후 1시부터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보호자 치료사(놀이치료) 교육'을 진행한다.(02)431-9114

마르퀴즈 인명사전에 등재

동국대 수학교육과 김성아 교수



김성아 동국대 수학교육과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의 2008년도 판에 등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수학자, 교육자로 인명사전에 등재된 김 교수는 기하함수이론(Geometric function theory)의 대가인 데이비드 민다 교수, 토시유키 수가와 교수와 공동으로 기하함수이론 분야에서 수준급 논문들을 발표했으며, 현재도 이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연세대 수학과를 거쳐 미국 신시네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 대역해석학연구센타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하다 1994년 우석대에 첫 부임했으며, 2006년 동국대로 자리를 옮겨 강의를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후손들에게 자연을 그대로 전해주고파"

남양주 불교환경연대 대표 혜만 스님



"남양주가 속해 있는 경기북부는 상수원 관리 보호 지역이지만, 주변 골프장 건설 등으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남양주 묘적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주변 지역을 둘러보니 환경오염이 심각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불교환경연대 창립의 필요성을 절감했지요."

11월 17일 남양주 불교환경연대를 창립하고 대표를 맡은 혜만 스님(묘적사 주지 · 사진)은 창립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혜만 스님이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년전 봉선사에 머물면서부터다. 사찰 근처에 광릉수목원이 있어 꽃과 식물을 보며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절에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혜만 스님은 사찰내 환경 보존에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서울시민들이 마시는 물의 수원(水原)인 남양주 지역의 수질 관리에 힘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선 혜만 스님은 내년부터 운영위원들과 함께 수질보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역내 정화시설 확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도법사로 있는 남양주시청 청보리회와 지역 사찰 스님들에게 환경운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연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할 중요한 대상입니다. 지역 사암연합회 스님 및 유지들을 대거 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켜 함께 힘을 모으면 남양주 지역의 환경과 수질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주일 기자**

학인논문 공모전 · 청송학술상 · 불교학술진흥상 수상자

가을을 맞아 각종 학술상과 논문공모전 수상자들이 잇달아 발표됐다. 조계종 교육원이 개최한 제3회 전국승가대학 학인논문 공모전에서는 원산 · 동원 스님(봉녕사승가대학)의 '한국불교의 포교-문화와 국가를 넘어서'가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에는 혜정 스님(봉녕사승가대학)의 '화엄교문(華嚴敎門)과 조사선문(祖師禪門)에 나타난 돈점론(頓漸論) 비교 고찰'이, 은상에는 주오 스님(운문사승가대학)의 '불교와 서양사상의 심신론 비교 고찰', 선주 스님(운문사승가대학)의 '승가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방안 모색-운문사 강원 식생활을 중심으로'가 각각 선정됐다. 동상은 도원 스님(불국사승가대학)의 '대혜의 묵조선 비판 연구', 소영 스님(봉녕사승가대학)의 '정보화시대 불교문화콘텐츠 현황과 미래 제시', 지일 스님(삼선승가대학)의 '염불선을 중심으로 한 불교 호스피스 방법에 관한 연구'가 차지했다.


원산 스님


동원 스님


권오민 교수


이자랑 박사

재단법인 청송장학회(이사장 고건)가 故 청송 고형곤(1906~2004)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한 '청송학술상'에는 권오민 교수(경상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기법이 불타의 자내증이라는 경증 검토'와 '사성제와 십이연기'라는 논문으로 수상자로 선정된 권 교수는 11월 17일 함춘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는 11월 17일 개최한 추계전국불교학술대회에서 제2회 '불교학술진흥상' 수상자로 이자랑 박사(동경대)를 선정했다. 한국불교학회는 "이 박사는 '율장을 통해본 승단과 현대사회의 조화' 논문에서 계와 율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 율이 갖는 성격과 시대상황과의 접목성을 잘 제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여수령 · 조동섭 기자**

제5회 대원상 대상 수상자 발표

승가 부문 종범 스님 등 수상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11월 15일 제5회 대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회의를 개최하고, 대상 승가부문에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사진)을, 대상 단체 부문에는 동련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대표 석지현), 특별상에는 대광맹인불자회(대표 이재달), 오희창(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고문), 전재성(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씨를 각각 선정했다. 재가 부문은 대상자가 없다.

대원상(大圓賞)은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2003년 제정돼 한국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해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개인은 각 1500만 원, 단체에는 2000만 원, 특별상에는 각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12월 7일 오후 2시 마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제13회 불교인권상 수상자

박석운 위원장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 지원 · 한상범)는 제13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박석운(사진)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11월 14일 선정했다. 박 위원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비정규노동자 차별 철폐,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보호 운동 등을 펼쳐왔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불교 시인 이원섭씨 별세



불교 시인이자 불교학자인 이원섭(사진)씨가 11월 9일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인은 강원 철원 출신으로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를 나와 1948년 '예술조선'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50년 첫 시집 <향미사(響尾蛇)>, 2003년 두 번째 시집 <내가 뱉은 가래침> 등 두 권의 시집을 통해 선(禪)의 색채가 짙은 불교적 작품을 선보여 불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고인은 시인으로서는 평생 두 권의 시집밖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불교학자로서 <법구경의 진리> <깨침의 미학> 등 수십 권의 책을 저술했다. 또한 <당시(唐詩)> <시경(詩經)> <논어(論語)> <노자(老子)> <불교대전> 등 다수의 책을 번역했으며, 문인협회 부이사장과 현대시인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복천사, 대웅전 낙성식 봉행



부산 복천사(주지 경호)가 대웅전 중창불사를 회향하고 낙성식을 11월 12일 봉행했다.

과거 복천사 대웅전은 평수 59.5㎡로 좁고 낡아 복천사를 찾는 신도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주지 경호 스님은 낡은 대웅전을 2006년 2월 해체하고 2.5배 늘려 138.84㎡ 규모의 전통목조 양식으로 중창불사를 진행했다.

항일운동의 전초기지였던 복천사는 부산 영남지역 전통불교미술의 대불모(大佛母) 완호 스님이 주석하며 불화소로 운영했던 사찰이다. 또한 선원제전집도서, 지장시왕도, 독성도등 총 7개의 부산시지정문화재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경호 스님은 "위로는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아래로는 불자님들의 오랜 바람인 대웅전 낙성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여러 대덕스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신도분들의 정성과 노력 덕분이다"며 "이 도량이 영도는 물론 부산 불교의 신행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낙성식에는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복천사 회주 혜문 스님, 김형오 의원, 어윤태 영도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이전 ■ 불교장례전문업체 연화회(대표 유재철)는 11월 24일부터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경운동 74번지 조계종중앙신도회관 1층으로 이전한다.(02)734-4444

부고 ■마포포교원 이흥세 원장(사진)이 11월 15일 별세했다. 향년 95세.1912년 출생한 이흥세 원장은 1982년 조계종 포교사 품수를 받아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 2005년 8월 마포포교원의 모든 재산을 동산불교대학에 기증하기도 했다.



400만 부산시민을 위한 21세기 녹야원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관 개관식

200만 부산불자들의 숙원사업인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관 개관식에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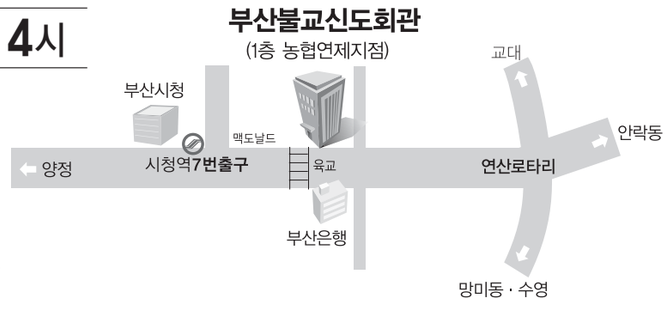
1967년 5월 1일 부산불교신도회가 출범한지 40성상. 재가불자의 서원으로 900평 규모의 70억 불사를 부산 도심 한복판에 건립하였습니다.
"비구들이여, 자!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라는 전도선언을 실천할 전법도량을 만들고자 합니다.
수행, 교육, 문화, 나눔의 장으로 400만 부산 시민을 위한 21세기 녹야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도심포교 성공신화 원력의 첫 발을 내딛는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관 개관식에 왕림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시 불기 2551년 11월 28일 수요일
삼존불 점안식 : 오후 2시 / 신도회관 개관식 : 오후 4시

장소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관 6층 法界精舍

문의 (051)853-2021



釜山廣域市 佛敎信徒會

한국불교 위기…전통문화 지켜나가야

e 해외불교칼럼



한국불교는 전통문화를 지켜내며 외래종교와 적절한 관계 유지를 해야한다. 사진은 종교인친선축구대회에 모인 각 종교인들.

한국불교는 372년 중국의 한 승려가 불경, 불상 등을 처음 한반도에 들여오면서 이내 기존 토속신앙과 혼융됐다. 당시 삼국 중 최초의 불교정착지역은 고구려며, 백제는 384년에 왕이 불문에 들어서자 백성들도 그 뒤를 따랐다.

신라는 527년 불교가 정착한 후 커다란 번영을 이뤘고, 668년 삼국을 통일하면서 찬란한 불교문화유산을 남겼다. '코리아'라는 한국의 국제 명칭을 남겨준 고려 왕조는 10세기 즈음에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하고 가장 완벽한 한자 대장경본 조판 등 위대한 불사를 일궜다. 그 즈음 등장한 고승 지눌은 선과 교의 균형을 강조하여 한국 선불교의 특징으로 이어져왔으며, 그가 중창한 조계산 송광사는 오늘날까지 조계종의 본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다. 뒤이어 14세기에 성립된 조선왕조가 중국의 새로운 유교사상을 도입함으로써 불교는 내리막길로 내몰렸다.

사대주의적인 조정의 칙령에 따라 도성들의 불교사찰들은 파괴되고 건립이 통제됐다. 승려들 또한 산중으로 축출, 유폐되어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사찰들은 여전히 산악지역에 남아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줄곧 산사를 찾음으로써 불교는 민중 신앙으로서 위치를 지켜갔다.

이후 1910년부터 1947년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강점기에 한국불교는 중흥하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승려의 결혼이 강요됐다. 이런 정황에서 한국불교는 여태 민중 신앙으로서 유지해오던 자리마저 잃고 또 한 번 내리막길로 내몰렸으며, 이는 당시 막 들어온 기독교가 번창하는 계기가 됐다. 한때 선두적인 막강한 불교국가이던 한국에 오늘날까지 남은 불자는 전체 인구의 고작 반 정도이며, 그 나머지는 기독교의 엄청난 선교공세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다.

기독교가 한반도에 착지한지는 2세기 남짓이나, 한국전쟁 이래 밀려든 미국 선교사들로 급격한 교세확산을 거듭해왔다. 그들은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식민지 쟁탈의 제국주의에 편승했던 선교사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짐짓 반 식민주의 등의 명분을 내세웠다. 게다가 선교사들에 실려 온 서구문화와 종교가 한때 한반도를 장악했던 일본, 중국 등의 것과 달라 피압박민족의 공감을 쉽게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극히 불행하게도, 대다수 선교사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존경심을 지니지 않았다. 만일 한국인들이 기독교 선교에 수반된 외래침입자들의 침공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놓친다면, 한국의 전통문화는 더욱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역자 주; 한국불교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파악하려면 Buddhism under Siege 1982-1996 by Ph.D. Frank Tedesco, 공격당하는 불교, 프랭크 테데스코 박사 / Christian perceptions of Buddha in Korea (1) Religious Situation in Korea by Ph.D. Martin Roetting, Germany, Engl. tr. Robin Evans 한국에서 붓다에 대한 크리스천의 인식-한국의 종교현황, 독일 마르틴 뢰팅 박사, 영역 로빈 에반스 등 참조) 이제 한국의 불자들이 자신들의 풍요로운 문화와 전통을 지켜가자면 우선 외래적인 가치관이 파고드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또한 한국인들은 불교가 한국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에 막대하게 기여한 역사적 사실을 스스로 명확히 재인식하고, 이를 조상 대대로 지켜온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출처:부디스트채널 / 편역: 성휴 스님

필자:그레이엄 라이얼-호주 종교학자, 저서 '종교와 인종차별 ; 편견 없는 관용' 등을 통해 다문화적 종교교육 강조.

유럽불교기독교聯 국제회의 개최

유럽불교기독교연구연합은 2009년 6월 독일 뮌헨의 성 오틸리엔 베네딕트 대수도원에서 제8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6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그 대학과 공동으로 성 비르길 사원에서 열린 '타종교에 대한 불제자의 자세'라는 의제의 7차 회의에 이어지는 2009년 8차 격년회의는 '불교 및 기독교 내의 권위와 진리의 근거'라는 주제를 다루며 사전 연구논문제출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www.buddhist-christian-studies.org)를 통해 추후 공고된다.

출처:부디스트채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실리콘밸리 샴발라 영화 감상회

실리콘밸리의 여러 불교 법우회 중 특히 참선지도에 주력하는 실리콘밸리 샴발라는 10월 10일 '집으로 가는 길(On the road Home)'이란 제목의 월례 영화 감상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열두 명의 여자들이 구도 행각 끝에 지혜와 자비로 엮인 커다란 실타래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그린 이 영화의 감상회는 간단한 저녁 식사와 함께 진행됐다.

미국 내 각종 불교 서클들이 포교와 교육용으로 감상하는 영성적 소재의 영화들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등 한국영화도 인기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출처: 실리콘밸리 샴발라

파리·베를린 승가協 공동법회

파리 승가협회는 10월 31일 야간열차로 파리를 출발, 베를린의 오스트반호프역에 도착 후 베를린 승가협과 친선주말회동을 가졌다. '앞으로 나아가자'는 주제의 공동법회는 베를린 불교센터의 회장인 아모가라트나 법사가 진행, 토론회와 참선, 공양으로 이어졌다.

2008년 뉴질랜드에서 수계할 예정인 파리 승가협 소속의 피에리 파리고에게는 마지막이 될 이번 회동은 베를린 승가협의 세심한 준비와 배려로 파리 측 도반들의 감사와 격찬을 받았다. 베를린 측은 파리 승가협이 정식 요청한 내년 파리에서의 교환방문을 수락했다.

출처: FWBO

월드스타 불심도스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❶

"시합하는 매순간이 수행이지요"

동양인 어머니 덕에 불제자 길로
금불상 지녀 심리적 안정감 얻어



예술제국인 할리우드는 자유분방과 다양성의 상징이자 모든 변신과 응용이 가능한 곳이다. 불제자 중 무술사범과 스턴트맨을 하다 배우가 된 스티븐 시걸, 록 밴드 공연도 했던 시인 앨런 긴즈버그의 경우도 있으며, 올리버 스톤과 조지 루커스 등 영화계 거장들도 온갖 인생역정을 거친 불자들이다.

그들은 각자 재능과 역할은 다르나 대중을 즐겁게 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또한 대중에 밀착, 특히 청소년층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는 유명 스포츠맨도 마찬가지다. NBA 연전연승의 신화를 창조한 필 잭슨 등 스포츠계 불자들도 할리우드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대스타다. 그것이 골프의 귀재 타이거 우즈를 여기 소개하는 이유다.

환갑을 넘기고도 이따금 PGA 투어에 출전하는 전설적인 챔피언 골퍼 탐 워츤은 미처 스물다섯 살도 못되어 골프계의 황제로 등극한 타이거 우즈를 정밀 관찰한 끝에 입을 열었다. "타이거는 스트레스, 중압감, 근심, 초조감 등 모든 심리적 장애요소를 차단하는 특수면역체계를 지닌 초자연적 인물이다." 실제로 침착과 냉정은 타이거 우즈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며, 그 자신도 이를 인정한다.

"저의 심적 균형과 강인함은 불교에서 비롯한 겁니다. 또 전통적 불교국가인 태국 태생의 엄마 덕분이죠. 독실한 불제자인 엄마는 제게 늘 그러셨어요. 서양인들처럼 삶을 만들려 애쓰지 마라. 동양인들처럼 삶이 그냥 되어지게 둬라." 이는 자기 체념이 아니라 자기 관조를 뜻한다. 그녀는 자식의 로드맵을 맘대로 그려주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들들 볶다가 결국 동반 추락하는 그런 어설픈 극성 엄마가 아니라, 그 스스로 갈 길을 읽어가도록 가르친 지혜로운 보살님이었다.

골프 필드가 절이며 시합 중 매 순간이 수행인 우즈의 불교철학과 식견 또한 대법사의 경지에 이르렀다. "불교는 모든 존재와 생존에 대해 일깨워 주는 트인 길이죠. 절제, 존경, 책임감, 세 가지 덕목이 불교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우리 미국인들보다 자제력이 강합니다. 동양의 어린이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태도가 훌륭합니까? 우리 엄마는 제가 딱 그렇게 되도록 키워주셨어요. 전 외할머니가 주신 작은 금불상을 늘 가까이 모시며 안정감을 얻지요."

본명이 엘드릭 우즈인 타이거 우즈는 1975년 12월 캘리포니아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얼 우즈는 흑백 혼혈이고 어머니 쿨티다 우즈는 중국계 태국 태생이다. 그 혈연관계에 대한 타이거 엄마의 재미있는 얘기다. "우리 애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토착원주민의 피를 다 지녔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보듬어줄 수 있는 진짜 지구인이죠." 미 육군 중령 출신인 그의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 군인으로 당시 절친했던 베트남군 동료의 별명에서 딴 타이거란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줬다.

목적의식과 책임감이 투철한 직업군인이던 그는 쉽사리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과묵한 품격의 소유자며, 특전부대인 그린베레에서 심리전 훈련을 받아 의식과 잠재의식의 조절능력이 뛰어났다. 그는 자신이 터득한 교육성과를 발휘하여 아들이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심리적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게 도왔다. "전 아버님의 교육덕분에 골프 코스에 나설 때마다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버님께 배운 데로 제 자신의 잠재의식을 신뢰하는 거죠. 지금껏 제 본능이 저를 저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젠가 그는 치열한 미국 스포츠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훌륭한 스포츠맨은 훌륭한 불교 수행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끌어들이지 않아요."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알아보는 불교

by deeds, one becomes an outcast

-사람은 하는 행실로 인해 상것이 되는 것이라오

When dwelling at Savatthi, Bhagavat with his alms-bowl approached the house of a Brahman priest to beg for food, who shouted, "Stay there, you shaveling, wretched samana, outcast !" Bhagavat replied:"Who is an outcast? An outcast is the man who is angry and bears hatred, who is wicked and hypocritical and who embraces error and is full of deceit. Whosoever is a provoker and has evil desires, is envious, shameless, and without fear to commit wrong, let him be known as an outcast. Not by birth, does one become an outcast or a Brahman; but by deeds, one becomes an outcast or a Brahman."

사바티에 계시던 세존께서 발우를 들고 어느 브라만 승려의 집에 탁발하려 다가서자 그가 버럭 내질렀다. "거기 서! 까까중, 천한 사문, 상것아!" 그러자 세존께서 이르셨다. "상것이라 하셨소? 상것이란 화내고 미움을 품고, 교활하고 위선적이며, 그릇됨을 받아들이고 기만에 가득 찬 이를 말하오. 누구든 남을 부추기고 사악한 탐욕을 지니며 질투하고 파렴치하며 겁 없이 못된 짓을 한다면 마땅히 상것이라 할 것이오. 사람은 태어남으로 해서 상것이나 브라만이 되지 아니하되, 하는 행실로 해서 상것이나 브라만이 되는 것이라오."

번안: 성휴 스님

"원인이 있습니다"

＊관세음＊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몸소 체험하시고 훌륭한 불자님 되세요

＊ 모르고 잘못행한 행동과 습관이 떠도는 영을 불러들여 몸의 이곳 저곳에 숨어지내는 마구니는 그 나쁘고 음습한 기운으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합니다.
＊ 소승은 빙의되어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아 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밝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황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천도재) 전문 기도	
※ 가출청소년귀가기도	※ 이사후 사건,사고 잦으신 분 ※ 가정불화, 사업부진
※ 신내림(무병)소멸기도	※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 합격기도(각종시험에 계속 낙방 되시는분)	아토피 (바르면 가렵지 않음) 한정분 무료보시
※ 병원치료후 회복부진	※ 혼사에 장해가 있는 분

◆소승의 소개글
- 성관세음, 백의 관세음보살님 친견
- 친견인연 공덕으로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달마존상도 등을 친필수작 불사포교
- 1998년 7月 24日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 미술 탱화 사사수행, 한국미협회원

"이사후, 밤이되면 심하게 놀라거나 크게 우는 아이의 울음도 그치게 하는 신묘한 기운이 깃든 상서로운 그림..."
① 친필수작 개내길상 "수목관세음 보살도"와 달마대존도, 족자 중 1점 택일
② 친필 수작 경면주사 "소지용" 달마대존도 3점
[합4점] 보시금 50만원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지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합장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예금주 : 김병룡)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11>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장 구연(具緣)

계율을 범하면 참회해야 안락

次受具足戒 作比丘 比丘尼 從修戒來 淸淨護持 無所毁犯 是名上品持戒人也

그 다음으로는 비구 이백오십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말해본다면 살 · 도 · 음 · 망(殺盜淫妄) 사바라이(四波羅夷)를 근본중죄로 여긴다. 범어 바라이는 한문으로 번역하면 버린다는 뜻이다. 또는 참회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령 이 죄를 범하면 바다처럼 광대한 부처님의 세계 밖으로 버려진다는 뜻인데 이른바 바다가 비록 광대하다 할지라도 죽은 시체는 용납하지 않듯이 바다처럼 광대한 부처님의 세계라 할지라도 이 계를 범한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십삼승가바시사(十三僧伽婆屍沙)인데 한문으로 번역하면 여러 사람을 해친다는 뜻이다. 가령 다른 사람에게 무기로 해침을 당했을 때 머리는 손상됐다 할지라도 호흡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구제하고 참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삼십니살기(三十泥薩耆)와 구십바일제(九十婆逸提)가 있는데 번역하면 타락이라고 한다. 이 죄는 재물의 일로 인해서 범하는 죄인데 탐욕과 교만심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참회하기 어렵다. 이 죄를 또 사바라이사니(舍尼)라고도 하는데 번역하면 꾸짖는다는 뜻이다. 이 죄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내야만 한다.

일백돌길라(一百突吉羅)는 번역하면 악을 짓는다는 뜻과 악한 말을 한다는 뜻인데 이 죄는 극도로 미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계율을 지니기는 극도로 어렵다. 그러므로 배움의 정도를 따라서 지키는 측면에서 그 명칭을 수립하였다.

또 이불정(二不定)과 칠멸쟁(七滅諍)이 있는데 이상의 내용을 게송으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사중십삼이부동(四重十三二不同) 사중금계 십삼승가바시사 둘은 동일하지 않으며
삼십구십사제니(三十九十四提尼) 삼십니살기 구십바일제
일백중학칠멸쟁(一百重學七滅諍) 사바라제 일백 가지 여러 배움과 일곱 가지 소멸해야 할 언쟁

총론이백오십계(總論二百五十戒) 이 모두를 총체적으로 이백오십계라고 한다.

그 나머지 비구니 삼백오십계는 비구 이백계에다가 <범망경>에 나오는 보살계 십중금계(十重禁戒)와 사십팔경구죄(四十八輕垢罪) 등을 더한 것인데 수행인이 이와 같은 일체 · 대소 · 경중 등 모든 계를 낱낱이 청정하게 지니면서 털끝만큼도 무너뜨리거나 범하는 일이 없다면 이를 두고 상품지계인이라고 한다.

當知是人修行止觀必證佛法猶如淨衣易受染色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청정하게 계율을 지니는 사람은 반드시 불법을 증득한다는 점이다. 청정하게 계율을 지니는 것은 비유하면 소중한 보배를 간직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계율을 청정히 지닌 상태에서 수행을 일으켜야만 불법을 쉽사리 깨닫는데 그것은 마치 깨끗한 하얀 색의 옷이 염색을 잘 받아들이듯이 하얀색이 모든 색깔의 근본이 되어 오염된 색깔을 쉽사리 받아들이는 것과도 같다.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기가 이처럼 어렵다. 그러므로 최상급으로 계율을 지니는 사람만이 지관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二者 若人受得戒已 雖不犯重 於諸輕戒多所毁損 爲受定故 卽能如法懺悔 亦名持戒淸淨 能生定慧 如衣曾有垢膩 若能浣淨 染亦可着

여기에서는 두 번째로 중품인이 지계하는 모습을 밝히고 있다. 가령 수계를 한다면 수계의식을 행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 계단에 올라 네 차례 갈마(羯摩)를 할 때부터 즉시 무작계체(無作戒體)를 얻고 나서 청정한 계율을 지닐 수 있는 자라면 그 복이 허공처럼 가이 없다.

그러나 수계식을 하고나서 다시 계율을 범한다면 더욱 죄를 더하는 꼴이 된다. 사중근본대계(四重根本大戒)는 비록 범하지 않는다 해도 가벼운 계율은 범하는 경우가 많다. 가벼운 계율은 니살기 · 바일제 등을 말한다.

계를 범한 뒤에 자기의 허물을 알고 그 허물을 드러내어 참회를 해야 하는데 '참'이라는 의미는 전념의 허물을 후회한다는 뜻이고 '회'라는 의미는 전념악이 소멸하는 자리가 후념악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후념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죄가 있는 줄 알았다면 마땅히 참회해야만 하는데 참회하면 안락하고 참회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더욱 깊어만 간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회를 해야만 한다.

참회하는 법은 행동으로 하는 참회와 이치로 하는 참회가 있다.

행동으로 참회하는 법은 유상(有相)참회라고 하는데 작법참(作法懺)이라고도 한다. 이는 시방제불과 모든 대보살 존귀한 형상 앞에서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고 나서 자기가 파괴했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어 슬픈 마음으로 참회를 해야 한다.

이치로 참회하는 문제는 무상참(無相懺)이라고 하는데 이를 실상참(實相懺)이라고도 한다. 이는 의식을 마음으로 거둬들여 단정한 몸으로 고요하게 앉아서 선도 악도 짓지를 않고 오직 이 죄의 성품은 어디로 일어났을까 관찰할 뿐이다. 즉 자성의 원인에서 일어났는지, 타인의 성품이 외적인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자신과 타인의 공통된 성품에서 일어났는지, 혹은 자성의 원인도 아니고 타성의 조건도 아닌데서 일어났는지 이러한 문제를 관찰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네 구절로 추궁해 보았으나 그 죄업의 성질을 모두에서 끝내 얻지 못한다면 죄의 성질은 본래 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일체 죄업은 오직 마음을 따라서 조작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마음에서 추구해보았지만 죄의 성질을 끝내 얻지 못한다면 그 죄의 성질도 실체를 얻지 못한다. 이것은 이른바 죄업은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므로 다시 마음으로 참회해야 된다. 마음이 소멸할 때에 죄 또한 없어지면 죄의 성질이 없어지고 마음마저 소멸하여 이 둘이 모두 공이라면 이를 두고 진실한 참회라고 한다.

이 같은 이참(理懺)은 모든 참회 가운데서도 공덕이 가장 광대하다. 이를 두고 옛날 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죄업은 마치 서리나 이슬과 같아서 지혜의 해가 밝아지면 바로 소멸된다"한 경우에 해당된다.

가령 참회를 하고 싶어하는 자라면 단정히 앉은 자세로 죄의 실제모습을 관찰하여 스스로 죄업의 장애가 깊고 무겁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와 같은 참회법을 의지해서 법답게 참회해야 한다. 이를 두고 계율을 청정하게 지닌다고 한다. 이 같은 사람을 중품으로 계율을 지니는 사람이라고 한다.

참회할 줄 아는 사람은 얻기 어려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옛날 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현이 아니라면 누군들 허물이 없으랴. 허물을 알고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다" 라고 하였다.

가령 참회를 할 수 있다면 즉시 정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마치 때 묻은 옷을 세탁을 하면 염색을 할 수 있는 것과도 같은데 옷은 개체와 같고 더러운 때는 계를 파하는 것하고 같고 세탁은 참회하는 것과 같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번뇌의 종류-진심①

2. 진심(瞋心)

'진심'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에 위배되고 거슬리는 역경계, 즉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든 역경계에 있어서 원한의 마음을 일으켜 그 경계가 부딪쳐 오면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유정들은 자아에 굳게 집착해 선경계가 부딪쳐오면 탐애심을 일으키고, 이와는 반대로 감정에 거역하는 역경계가 부딪쳐오면 그 즉시 진심을 일으킵니다. 역경계에서 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원한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분노가 치솟아 모든 유정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자신의 뜻에 거역하는 사업에 있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차없이 파괴합니다.

이 때문에 갖가지 악행을 끝없이 조작하면서 주변의 고통을 잠시도 참지 못하므로 고통은 더욱 증가하기만 합니다. 진심도 탐심과 마찬가지로 치심이 그 근본자체인데 대략 분류하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유정진(有情瞋)

모든 중생들은 아견(我見)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인견(人見)이 아견과 동시에 일어나며 상대적인 인견이 있기 때문에 대립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생들이 타인에 대해 일으키는 진심의 모습은 우선 우리가 의식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친 진심인 '추진심(麤瞋心)'과 우리의 제6현재의식으론 분별할 수 없는 미세한 '세진심(細瞋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추진심'이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전에 바로 드러난 이해관계에 따른 훼방이나 칭찬 등으로 인해 일어난 그 모습을 목전에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진심'이란 우리의 목전에 분명한 이해관계를 노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과 은연중에 의기가 투합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암암리에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중생들은 고등동물이든 하등동물이든 내적으로 진심을 품고 밖으로는 살생하기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현대학자들 중에 혹 '진심은 생존경쟁이라는 필요 불가결한 조건에서 나왔으므로 굳이 번뇌의 미혹으로 치부할 필요까지야 있겠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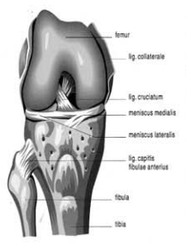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생존본질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생존조건은 화합과 상부상조일지언정 서로간의 경쟁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심은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생존을 해치고 핍박하는 무명번뇌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쇠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박사는"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증(中症),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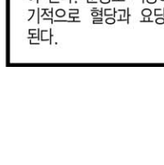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22-중-1901호 〈광고〉

당뇨병 한방(韓方)으로 치료한다.

당뇨병을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는 중정한의원 왕중권 원장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당뇨병 아시죠?
이것은 한의학에서 소갈증이라 한다. 주로 입이 마르며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고 음식을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소변을 수도 없이 자주 보는 병이다. 한의학에서 약 2300년 전에 당뇨병의 임상 특징인 삼다일소(三多一小)증상으로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소변보고 체중이 감소되는 증상이 기록되어있다. 또 소갈 병 환자는 오래되면 귀도 잘못 듣고 눈도 잘 안보이게 된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이 당뇨병의 합병증들이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의 원인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절제한 식생활 그리고 정신적 과로 유전등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치료 방법에 있어서 상소(上消), 중소(中消),하소(下消) 세 가지 유형을 나누면서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급성으로 오는 당뇨병은 한의학으로 치료가 잘 된다. 시간이 오래 경과된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치료보다 당뇨로 오는 합병증 치료에 비중을 두며 장기적으로 한의학 치료와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으로 임상에서 이미 많은 효과를 보았다. 당뇨병은 하나의 만성질환 이므로 짧은 시일 내에 어떤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되고 음식에 있어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음식물을 섭취해야 된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며 정기적으로 혈당과 요당검사를 받아야 된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처방과 평형침법

중정한의원에서 처방한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을 복용하면서 평형침법 치료를 받고 혈당강하제 혹은 인슐린을 줄여 나간다. 공복시 혈당 100~200 환자도 일반적으로 4~8주의 치료로 효과를 확인할수 있다.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은 증상에 맞는 병행치료가 가능하다.

'왕 원장의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의 당뇨치료기전,

당뇨병은 치료하기 어려운 만성 질환이다. 그래서 죽지 않는 암이라고도 한다. 당뇨병 자체는 무서운 병이 아니지만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제일 심각한 것은 고지방 혈증으로 오는 합병증들이다. 중풍 뇌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동맥경화, 폐쇄성 혈관 염, 심근경색, 간경화, 백내장 등 이러한 합병증 들이 원인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은 간장과 신장,비장 삼초기능의 균형과 인체 내의 기혈과 음양의 평형을 조절해주므로써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은 인슐린 의존 형과 인슐린 비의존형을 병행하여 치료한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복용을 하여도 기존 혈당 강하제나 인슐린 투여 중단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치료로 당뇨가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 복용으로 고지혈증도 치료되면서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평형침법과 왕 원장의 처방법으로 병행하여 치료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선지식을 찾아서



"자연만물이 전하는 무설법문 들어야"

원산 스님 (백련정사 감원)

초대 교육원장 승가교육 틀 다져
3년간 죽림굴 짓고 무문관 수행
영축산 개발 저지운동 결실 맺어

벌써 일 년의 막바지인 11월. 이 맘 때가 되면 마음은 괜스레 분주해지고 분명하게만 보이던 시작과 끝이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든다. 시작과 끝을 따져 물을수록 우리 모두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의 근원을 묻는 물음 앞에 서 있음을 절감할 뿐이다. 시작과 끝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맘때쯤, 나무들은 무성한 잎을 떨구며 무시무종의 소식을 전한다.

통도사 산내 암자 백련정사로 향하는 길, 암자 입구에 우뚝 선 600년 된 은행나무를 보자 4년 전의 '그날'이 절로 떠오른다. 그날은 바로 2004년 3월, 원산 스님이 3년간의 죽림굴 무문관을 회향하던 날이었다. 스님의 회향소식을 접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대중들이 모여들어 있었다. 그러나 스님은 법문을 하지 않았다.

"그날 법문을 하시지 않아서 더 멋있었습니다. 법문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대중들이 일제히 삼배를 하고 흩어지는데 스님께서 말로는 법을 설하지 않았지만 대중들은 각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고 돌아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백의관음무설설(白衣觀音無說說) 남순동자무문문(南巡童子不聞聞).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들은 바 없이 듣는 그런 순간이었겠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도 무상을 설하고 있듯이 만물이 모두 설한 바 없이 설하고 우리는 또 그 법문을 들은 바 없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 가르침인 무상을 설하고 있어요. 봄이 되면 푸른 잎이 나지만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떨어지고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무상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생멸하고 있고 현상 경계는 무상하단 말이죠. 그러나 불교는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락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상하지 않은 것, 생멸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스님에게 불교는 인류를 갈등과 불행으로부터 구할 유일한 대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산의 정상처럼 모든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철학, 종교, 과학, 윤리를 총망라한 최고의 가르침인 불법을 만났을 때 간절하고 지극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또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극한 수행을 통해 지혜를 계발해야죠. 또한 육바라밀의 시작인 보시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풀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쁨을 느낍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물질이든 법이든 나눔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춘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있겠죠. 산 정상에 올라서야 사방이 다 보이듯 차근차근 공부도 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아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춘 부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불교이고 불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열아홉 살,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스님의 길은 언제나 '생멸이 없는 그 자리'를 향하고 있었다. 1975년에 토굴에서 정진하겠다는 생각하나로 백련정사 불사를 시작했다. 다 허물어져가는 집 한 채에 전화도 전기도 없었다. 불사를 하다 보니 토굴터가 발견돼 조그맣게 토굴을 하나 지었다. 그곳이 스님이 3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무문관을 한 죽림굴이다.

"교육원의 기반만 닦으면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임기를 남겨놓고 사표를 냈는데 7개월을 공석으로 두고 몇 번이나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은사스님 영향을 받아서 수행하겠다는 원이 늘 마음에 있어서 무문관을 시작했던 겁니다. 스님의 근본은 수행입니다."

스님이 무문관에 들어가 있는 동안, IMF가 터졌다. 그리고 조계종 사태로 이만 저만 시끄러운게 아니었다.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어차피 불사를 할 수 없었던 시점에 무문관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복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무문관을 회향하고 곧바로 스님은 갈등의 중심에서 마음 고생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

"토굴에서 나오니 내가 나서서 통도사의 갈등을 풀고 정상화시켰으면 하는 바람들이 컸는데 그걸 외면하지 못해서 그리 된 거지요. 내가 주지를 꼭 해야 한다고 스님들이 단식까지 하고 그때는 정말로 마음이 괴로웠어요. 통도사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하나로 망신도 무릅썼지요. 힘든 시기였지만 돌이켜보면 여러모로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주지가 안 된 것도 복이라면 복이지요. 수좌로 살겠다는 내 원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스님은 현 주지스님이 경험도 많고 오랜 갈등으로 어려워진 사중을 잘 수습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문중 화합만큼이나 스님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 최근에 또 하나 있었다. 바로 통도사의 앞산을 파헤치고 민둥산으로 만들어 물의를 빚었던 초산유원지 개발을 막아낸 것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초산유원지 개발반대 운동에서 모든 사람들이 중도 포기했을 때 스님 혼자 셀 수도 없는 공문과 진정서를 보내고 전국의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싸움을 이어갔다.

결국 7년 만에 통도사와의 협의 없이는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시의 입장을 공문으로 받았다. "이 산중에서 평생을 중노릇했는데 앞산도 못 지키면 부끄러워 어쩌겠어요? 통도사의 앞산이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개발을 하겠다고 산을 깎아낸다는 생각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고 입안자들도 인정을 해요. 영축산을 지키다 죽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했더니 해결이 된 것이죠."



타협이 없는 확고한 스님의 의지 앞에 양산시도 손을 든 것이다. 통도사 임회에서도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를 봤다. 향후 통도사에서 땅 사기 운동을 벌여서라도 개발만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원산 스님의 생각이다.

요즘 스님은 마음이 편하다. 초산유원지 개발도 막아냈고, 통도사의 오랜 갈등이 마무리되어 문중 화합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마음이 너무 편해 몸이 옆으로 자라나서 걱정이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백련정사에 온 지 33년. 만일기도를 봉행했다는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백련정사라는 사명이 발견돼 백련암을 백련정사로 개명했다. 최고의 불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불사를 진행했다. 구하기도 어렵다는 금강송으로 기둥을 세우고 단청도 최고 수준이다. 사람은 바뀌지만 도량은 후대까지 남아 법을 전하는 공간이 될 곳이기 때문이다. 이제 불사도 마무리되고 꾸준히 이어져온 정기법회로 수행을 우선으로 한 신도들의 공부도 익어가고 있다.

백련정사는 안정기를 맞았다. 그러나 스님은 또 다른 변화를 꿈꾼다. 스님에게 변화란 결국은 수행과 닿아 있는 것이다. 젊은 스님도 하기 힘들다는 3년 무문관을 홀연히 시작했던 스님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스님은 말을 아꼈다. 그러나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라는 우스개 소리로 조만간 수행을 위한 결코 평범하지 않은 변화를 스스로 감행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했다. 암자를 내려오며 스님이 수행자의 삶으로, 또 수행의 향기로 설한바 없이 설하는 무설 법문을 다시 한 번 들려 줄 것이라는 기대를 지울 수 없었다.

글·사진=천미희 기자

원산 스님은 인터뷰 도중 마당에 부모 손을 잡고 절을 찾아온 아이들이 눈에 띄자 갑자기 아이들을 불러 모은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아이들은 영문을 몰라 엉거주춤 스님 곁으로 모여든다. 방으로 들어갔다 나온 스님의 손에는 상자가 들려있다. 그곳엔 형형색색의 염주와 볼펜이 들어 있다. 아이들에게 일일이 색깔을 고르게 하고 선물로 건넨다. 도량이 금방 아이들의 웃음꽃으로 환해진다. '수행'과 '포교'가 출가자의 근본이라고 늘 강조해온 스님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절과 스님을 친근한 곳으로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다. 또한 스님은 틈나는 대로 붓글씨로 가훈을 적어 가족단위로 찾는 이들에게 건넨다.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훈을 한글로 적어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이다. 1944년 통도사 앞산 자락에서 태어난 스님은 1964년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직지사 통도사 강주를 지냈고 관응 스님으로부터 강맥도 전수 받았으며 통도사 극락선원, 송광사 선원 등 제방선원 정진, 3년 무문관 등 수좌로서 본분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짚단이 훨훨 타다 사그라지듯 그렇게 살다 가고 싶다는 스님. 깊어가는 가을, 수행의 불꽃을 지피기에 여념이 없다.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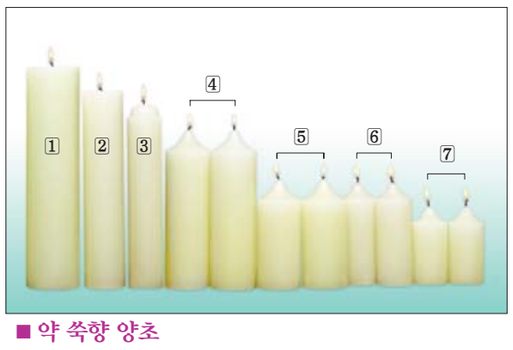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중생들 마음에 위안되는 노래 부르고 싶어"

데스크 초대석

5번째 앨범 낸 도신 스님

"도신이가 노래한대요."(중광 스님)
"이놈아! 그리 말렸건만 또 노래를 한다고, 한국 불교의 선종을 크게 불러일으키신 경허, 만공, 수월, 혜월 선사를 어이 뵐지…."(법장 스님)
아마도 도신(조계종 포교연구실장 · 사진)이 5집 앨범을 냈다고 하면 두 은사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법하다고 도신 스님을 비롯한 주변에선 귀띔한다. 이번 음반은 1991년 '도신의 국악가요'를 발표한 이래 '용서 그리고 구도'(1993) '도신의 국악가요3'(1997) '세상속으로'(2003)에 이어 다섯 번째다. 하지만 스님의 예술적 '끼'를 대하는 세상의 시선에는 여전히 편견이 있다. 그래도 "먼저 마음을 열고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도신 스님의 의지는 굳건하기만 하다.



–이번 앨범의 자켓이 중광 스님의 글씨와 그림인데, 그 스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요.
'걸레 중광'(1935~2002)스님 과의 인연은 각별했습니다. 스님에게 혼가(魂歌) 즉 혼이 실린 노래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첫 인연은 1979년 즈음으로 기억됩니다. 수덕사 잔디밭에서 '한오백년'을 부르고 있는데 거지같은 스님이 오셔서 노래를 청하더라구요. 스님은 노래를 듣더니 "자네는 목탁보다 기타가 어울리는 사람일세, 함께 서울로 가자"고 하시길래 그 길로 따라나섰습니다. 이후 서울 동대문 등지의 절에서 10년 이상 중광 스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스님이 노래를 처음 시작할 80년대 초만 해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노래를 부르기 까지는 끝없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은사이자 아버지 같은 법장 스님은 노래할 때마다 불호령을 내렸지요. 기타를 수십 개도 넘게 때려 부수며 크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때로는 종단 스님들에게 몰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서울 대학로 쪽에서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스님들 네댓 명이 오더니 끌고 가서 때리더라구요. 중이 기타치고 길거리에서 노래 부른다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만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음악적 스승은 누구인가요, 누구에게 기타를 처음 배웠습니까?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였던 신중현씨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기타를 가르쳐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또한 그룹 '사랑과 평화'의 베이스 주자였던 이남이씨를 만나려고 이태원 밤무대도 무작정 찾아갔지요. 스님이라 그런지 거부감 없이 두 분 다 잘 가르쳐 주더라구요. 이 때 기타기법과 리듬을 탄탄하게 배운 것이 지금까지 음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외에도 불교음악가 이교숙 선생에게는 작곡법을 사사했습니다.

–대중가요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좋아하는 곡과 가수가 있으신가요?
예 대중가요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입니다. 토해내는 듯한 목소리가 일단 좋습니다. 있는 살림살이를 다 내놓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외에도 임재범, 박효신 등 젊은 가수들도 좋아합니다.

–한동안 공연무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무대에 서질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웃음) 그동안 '부모은중송' 등 큰 무대에는 많이 섰지만 저는 단독 공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로 위문공연과 거리 콘서트를 많이 했습니다. 산사 음악회도 많이 불려갔지요. 아마 단독 공연을 하질 않아 무대에서 볼 수 없었다고들 생각하는데 사찰 행사에는 지금도 가끔 나갑니다. 제 노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지 가서 마이크를 잡을 생각입니다.

–이번 5집 음반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일단 주제는 '아픔 그리고 해탈'입니다. '아버지'를 비롯해 '홀로 앓는 영혼이여' '흔적' '구름이 되어' '귀거래사' 등 10곡의 국악가요가 수록돼 있습니다. '홀로 앓는 영혼이여' 등 6곡은 자작곡입니다.
특히 '홀로 앓는 영혼이여'는 도반인 홍법 스님의 노트에서 본 내용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홍법 스님은 "그건 바람소리나 다름없는 넋두리에 불과한데 왜 적느냐"며 의아해 했는데 혹한의 벌판에 버려져 있는 내 자신의 실체를 보는 듯 해 곡을 붙여봤습니다. 또한 '귀거래사'는 김신우씨가 불렀던 곡을 리메이크 한 것입니다.
제 노래 대부분은 국악가요들인데 이는 첫 공연(1990년)을 국악그룹 슬기둥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국악가요를 부른 것이 계기가 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음반 중 가장 애착가는 노래를 꼽으라면?
첫 번째 곡인 '아버지'입니다. 8살 때(1969년) 수덕사에 들어가 법장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속가의 '아버지'보다 더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법장 스님은 출가 수행자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신 분이며, 부처님과의 불연을 상징하는 계(1976년)를 내려주신 은사이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법장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과 애환을 담은 것입니다. 스승이자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회환이 밀물처럼 들어 왔던 그 당시의 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님의 향기'도 법장 스님이 생전에 좋아하며 가끔 흥얼거리셨던 곡이라 애착이 갑니다.
이번 앨범 판매 수익은 충남 서산 서광사 성역화 불사와 심장병 환우 후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성역화 불사는 법장 스님의 평생 원증에 하나였고, 심장병 환우 후원은 법장 스님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인연 때문입니다.

"주변 반대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 변함없어"
앨범 판매 수익은 서광사 불사·심장병 환우 후원

–스님의 노래가 듣는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졌으면 합니까?
국악가요이지만 이번 곡 대부분은 불교적 정서가 함축돼 있습니다. 몇몇 곡들은 수행자로서 섣불리 건드리기 어려운 외로움을 담은 곡들도 있습니다. 이번 음반에 담긴 노래들이 듣는 이들에게 좋은 생각을 주고 정서에도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또한 삶속에서 외로움과 아픔이 찾아들 때 조그만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바다에는 절대 고요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음의 동요가 있지요. 종교에 상관없이 내 노래를 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편안한 마음의 동요가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앨범에는 명상음악을 테마로 꾸며보고 싶습니다.
한 중생이라도 마음속에 고통이 남아 있는 한 나의 노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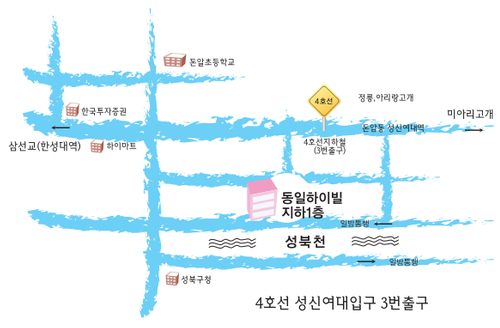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가
새롭게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으로 이에 사업장을 옮기어 오는 10월 22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창업이래 저희를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 덕분이며,
또한 출판업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도움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운주사는 이번 확장이전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며, 업무에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운주사 대표 임희근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변경주소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 하이빌 지하 1층
전화번호 | 02)3672-7181~4
팩스번호 | 02)3672-7186. 7188
*전화 및 팩스번호는 기존과 동일





상마 · 하마마을 표지판.


사하촌에서 차를 파는 이윤하(사진 왼쪽)씨의 가게.



범어사 일주문인 조계문.




대웅전 앞의 삼층석탑(보물 제250호 · 사진 위)과 휴휴정사 가는 골목.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34 금정산 범어사

부처님 덕분에 '고른 사람' 돼 가요

소설 '사하촌' 뒷 이야기

민족문학의 큰 별 요산 김정환 선생



민족문학의 큰 별 요산 김정환 선생(1908~1995)은 '사하촌'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설은 1930년대의 보광사라는 절을 배경으로, 스님들과 사하촌 사람들의 갈등을 그려냈다. 그런데 요산의 고향이 범어사 아래의 남산동이고, 그는 범어사와 인연이 깊었다.

문학관의 지킴이이며, 요산의 사촌 동생인 김재한(72 · 사진)옹은 "요산은 불교와는 아무 감정이 없다"라면서 '사하촌'이 가족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막내 할아버지(송호당 김용우)가 범어사 스님이었는데, 송호당 할아버지가 범어사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요산이 일본 유학할 때, 요산 학비를 송금해 준 사람이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학비를 송금해 주던 송호당이 어느 해 갑자기 송금을 중단해 버린다. 결국 요산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3년 중퇴를 하고 만다. 거기다 늙고 병든 '송호당'의 양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증오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쓴 글이 사하촌이라고 봅니다."

김옹의 말이다. 요산의 다른 작품인 <추산당과 곁 사람들>에 나오는 내용이 이러한 가족사를 그린 것이라 한다.


요산의 친필원고.

"내 친구 둘 있어. 고양이하고 새. 고양이는 지난 설날 장사하러 오니까, 와서 안 가."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커피나 꿀차 같은 것을 파는 이윤하(56)씨는 고양이 한 마리와 곤줄박이를 벗으로 두고 있다. 꿀차를 마시는데 몇 마리의 벌이 종이컵에 달라붙는다. 이씨가 새로 꿀차를 타서 주며 마시던 잔을 평상 위에 두라고 한다.

"벌도 좀 먹어야지요."

그 말에 동의한 나는 마시던 잔을 내려놓고 새 잔을 받는다. 범어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이라서인지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씨가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손바닥에 옥수수 알갱이 두어 개를 얹는다. 숲 쪽을 향해 손을 내밀자, 새 한 마리가 재빨리 날아와 모이를 물어간다. 신기해하며 보았더니, 내게도 해보라 한다. 한참 만에 놀라울 정도의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지더니, 새가 다녀갔다. 이상한 황홀감에 온몸이 짜릿해졌다.

차를 더 권하는 이씨를 뒤로하고 상마마을로 향한다. 범어사 아래에는 상마마을과 하마마을이 있다. 행정구역상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에 속하지만, 산굽이 몇 개를 돌아야 하므로 시내와는 조금 떨어져 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은 식당이나 찻집이 되어 있다.

"가구 수는 스물 한 가구. 아니, 스물 한 가구 안 되겠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방자연(80)씨와 고종순(63)씨 사이에 끼어든다.

"옛날에는 남의 농사짓고 그랬어요. 밥도 굶고 그랬지."

"모팀(모퉁이)에다가 바위 위에다 다 가리고, (거처를 삼고) 여자는 밥, 남자들은 물레방아 찍고(찧고) 땔감도 하고, 그래 살았는 갑습디다. 절로 인해 묵고 사니까, 얼추얼추 됐는 갑디다."

"그러니까네 스님들 가족도 이 동네서 살고, 지금 호수 그대롭니다. 마을 사람들이 천막으로 오두막 가리고 이레 살았죠."

"여, 뭐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 절에 고용살이 하고, 어디 저어기 농사지은 것은 운반해야 하니까, 절 밭에 가 밭 매주고 이러다, 범어사 나가 갖고 장사라 해봐야 딴 거 있능겨. 밥 해가 밥도 해주고, 산에 가 나물 해 주고, 박 대통령 할 때 너머 단속이 심하잖아요. 그 때는 범어사 주차장 있는 데까지 가서 호객해 갖고, 방도 내주고, 도토리묵도 산에 가 주와 다 해 팔고, 닭도 잡아 주고, 그래 장사가 처음이에요."

"돈 없는 사람만 모탰는데, 그골로 생명 보중하고 이레 살았죠. 누가 디레다 보면 구신 사는 데지 허허. 지금은 꾸며져가 있으니까, 이레 멋진 동네가 됐지마는."

마을 사람 몇 더 만나보니, 가난했던 시절의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지금이야 반듯하게 상가가 조성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아픈 것이었다.

"이 동네 사는 사람 이유 없이 고통 받아요. 무허가라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법원에 가면 전과가 이만합니더."

격정에 찬 목소리도 들린다. 여럿에게 물어 마을 내력에 대해 가장 잘 안다는 장정자(77)씨를 찾아간다. 그러나 장씨로부터 들은 것은 마을의 내력이 아니다.

"그래도 부처님 도량에 사는 거, 참 영광시럽게 참 좋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덕에 묵고 살고, 부처님 덕분에 고른(올바른) 사람 돼 가요. 전에는 늙은 사람들 자석이나 빌러 댕기고 복이나 빌고 그랬지, 불교에 대한 법이나 알았습니까. 빌어서 모든 일이 된다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어, 혼자 생각이 되더라고. 다 자기한테 있는 거지."

행여 다시 태어난다면, 아무 인연도 싫고 부처님 인연만으로 용맹정진하고 싶다는 장씨. 보살님께 합장하고 인연을 되새기며 절로 향한다.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드나든다. 주차장을 지나자 일주문이 보인다.

범어사 일주문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나란히 선 네 개의 돌기둥 위에 배흘림 나무 기둥이 받치고 있는 일주문. 제 무게로 제 안정을 찾는 우리 건축의 독특함이 돋보인다.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 금정산 범어사(金井山 梵魚寺)라는 짧은 글귀 안에 사찰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글씨는 1912년 해사당(海蛇堂) 스님이 썼다. 범어사 일주문은 따로 이름 하여 조계문(曹溪門)이라 부른다.

일주문 지나면 천왕문, 천왕문 지나면 불이문이다. 문을 하나 지날 때마다 계단을 올라야하는 것은, 산지 사찰의 전형적 모습이다.

불이문에는 조계종 종정을 지내셨던 동산 스님의 글씨라는 주련이 눈에 띈다. 불이문 지나 높다란 계단을 오르면 보제루다. 천왕문에서 보제루에 이르는 길은 오르막과 계단뿐이다.

계단을 올라도 보이는 것은 보제루뿐이다. 절은 보제루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또한 누각임에도 불구하고 나무판자로 벽면이 다 가려져 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건물로 일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보제루를 돌아가면 심검당이 나온다. 묵은 지붕 기와 사이에 온갖 풀이 자라고 있다.

보제루 모퉁이를 돌아서니 환한 절 마당이 보인다. 사람들이 야단법석(野壇法席)을 이루고 있다. 대웅전 앞의 조그마한 삼층 석탑(보물 제250호)과 석등이 천년 세월을 담고 있다. 미륵전과 비로전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대웅전에서 왼쪽은 관음전이고 오른쪽은 지장전이다. 이러한 사찰 배치는 특별한 원칙에 근거한 것 같지는 않다.

나한전 앞에 기세 좋은 향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나무의 속을 살펴보니, 홀몸이 아니다. 이끼와 산일엽초 등이 나무 몸에 뿌리를 내어 살고 있다. 지장전을 나와 휴휴정사로 가는 골목에 선다. 한참 앞에 걸어가는 보살의 뒷모습이 맑다. 시나브로 가을로 가는 기린초를 뒤로 하고 걸음을 옮긴다. 나무문에 그려진 금강역사상은 평범한 솜씨가 아니다. 그런데 그림의 바탕이 된 나무문이 훼손되어 있어 안타깝다.

솔숲으로 들어서니, 금정산에서 흘러내린 벽계수(碧溪水)가, 세월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물에 손을 대니 그 마음이 내게 전해져 나도 물처럼 천천히 세월 따라 흐른다. 머무는 동안 죄 짓지 않고, 누군가의 귀를 씻어주는 물소리처럼 살았으면…. 산문을 나서는데, 산문으로 들어가는 한 스님의 뒷모습에 물소리가 아리다.

부산=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놀라운 건강법! 氣血순환법 강좌
www.chgg.co.kr
고혈압,동맥경화 걱정없다.
고지혈증, 허혈성심장질환, 부정맥, 심근경색, 만성두통, 수족냉증,
불면증, 우울증, 하지정맥류, 생리통을 氣血순환법으로 날린다.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5일이면 OK!
진통제 없이는 살수 없는 수십년된 만성두통 5일이면 쾌유!
5일안에 쾌유되지 않으면 수련회비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 氣血순환법은 –
도가에서 수천년간 비전되어온 수련법으로써 몸 안에 최대한의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시켜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한 혈관 조직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숨이 차지 않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피를 맑게하여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지방지회 모집중※
– 氣血순환법강좌 안내 –
5일 코스(12시간 완성)
오전반 : 10시 ~ 12시 30분(월~금)
오후반 : 14시 ~ 16시 30분(월~금)
1993년 창립
천일의학기공 본회 : 02)3436-3206~7
천일의학기공을 만나는 날은 횡재하는 날입니다.
– 창립 15주년 특별이벤트 –
수련회원에 가입하시면
○정화기 무료 증정!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놀라운 반지!
강력하고도 놀라운 「태양에너지」반지를 증정!
북한에서는 이 반지를 빛삼(빛의 산삼)반지라고 부르며 사향보다도 더 효과가 탁월하다고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과학영화를 통해 소개한 ○정화기!
《메스컴보도》
MBC통일전망대, KBS일요스페셜, 연합뉴스, 문화일보, 조선닷컴, 동아닷컴, 내일신문, 한국경제신문 보도
※반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도
손쉽게 몸에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에 뜻은 있으나 시간이 없으신 분은 먼저 회원에 가입하시고 반지를 받아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 수련을 받으셔도 됩니다.
(회원증 발급)
※전화로 신청하시면 반지나 팔찌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지방지회 ☞ 영등포지회 : 02)3662-9088 제주지회 : 064)742-6467 수원지회 : 031)298-1777 영주지회 : 054)637-9810 부산진구지회 : 051)553-3113 부산연제구지회 : 051)758-8275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서는
스리랑카 위하라 고다에서 의료봉사할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5명을 모집하고 있다. 의료구호활동을 통해 국제 빈민들의 실상에 대해 바로 알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다. 스리랑카 일정은 11월 30일~12월 6일이며 참가비는 95만원이다. (02)723-6165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내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공모사업인 '미디어중독SOS지원단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학교에 인터넷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일시는 11월 24일이며 장소는 서울 근교 유원지다. (02)795-8000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학업 및 적성·진로, 성·이성교제, 성격 등 심리정신건강문제 1:1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며, 청소년과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051)868-0950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전'이 11월 24일 개막된다.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과 크뢸러뮐러 미술관의 협력으로 열리는 이번 회고전은 반 고흐의 작품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로 '아이리스' '자화상' 등이 국내 처음으로 소개된다. 문의 : 반 고흐 전시본부 1577-2933, 서울시립미술관 (02)2124-8800

충남 예산군 문예회관에서는
고구려 평원왕 시대 평강공주의 시녀, '연이'의 이야기가 연극으로 펼쳐진다. 11월 23일 오후 2시, 7시 두 차례 공연되는 이 연극은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준비됐다. (041)330-2255~6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51로 연락주세요

노벨상? 과학전?



'노벨사이언스체험전'에 한 번 가볼까?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을 기금으로, 해마다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도록 하시오." 1896년 12월, 스웨덴의 한 과학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다. 그는 니트로글리세린과 흑색 화약을 섞어 만든 폭약 '다이너마이트'로 큰 돈을 벌어들인 사업가기도 했다. 애초 그는 터널 등을 쉽게 뚫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곧 살상 무기로 변질됐다. 유럽 곳곳에 다이너마이트 제조 공장이 건설됐고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마음 한 켠으로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결국 그는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스웨덴 과학아카데미에 기증했다. 과학 발전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면서. 그의 이름을 딴 상은 1901년부터 물리학, 화학, 생리학·의학, 문학, 평화 등의 부문에 걸쳐 시상됐다. 그의 이름은 알프레드 노벨이다.



그 유명한 '노벨상'의 제정자 노벨에 대해 알아봤다면 지금 서울국립과학관에서 계속되고 있는 '노벨사이언스체험전'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 전시는 과학기술부 후원으로 과학문화진흥회가 주최했다.

전시의 자문을 맡고 있는 서울대 물리학과 김제완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전시로 만나보며, 그들이 이루어 놓은 과학적 업적이 우리생활에 어떻게 스며 들어있는지 알고 과학에 대한 매력과 애착을 느낄 수 있었면 좋겠다"고 설명한다. 과학도 미술처럼 전시로 즐길 수 있다는 말이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먼저 노벨과 노벨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이후에는 우리 생명의 기원, 우주의 소리가 들려오는 방, DNA통로 등이 기다리고 있다. 신비한 기분을 느끼며 터널을 지나면 '세포방' '생명의 신비' '미생물의 세계' 등으로 나뉘어진 전시장이 나타난다. 전시를 통해 ABO식 혈액형, 효소·호르몬의 작용, 비타민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이런 것들 모두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견해 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어 2층에서는 'DNA', '질병을 진단하는 노벨 과학' 등의 주제가 있다. 노벨상 수상자들로 인해 어떤 질병들이 극복됐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학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어린이청소년이 '노벨상'이라는 익숙한 매개를 통해 쉽게 과학을 접함으로써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전시는 내년 3월 2일까지 계속되며 오전 10시~오후 7시 관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nobelstory.com)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습득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전시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다. 하지만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전시를 보는 방법을 달리해야 전시 의미가 더 세심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전시를 보는 Tip

#어린이는 이렇게

어린이들은 대체로 '전시'라고 하는 것을 재미없다고 받아들이지만 이 과학전은 '체험전'이라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 설명도 마련돼 있다. 전시장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에게 수시로 노벨 체험전의 재미있는 요소들을 골라 소개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 또 세균맨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으뜸이와 버금이의 이야기를 다룬 '노벨과학극', 레이저 쇼, '트리로보' 애니메이션 상영, 노벨 놀이방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테마들이 잔뜩 있다.

사실 어린이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얼마나 잘 이끌어주느냐에 따라 전시문화 적응도가 달라진다.

노벨사이언스 조직위원회 전시총괄 김경 대표는 "어린이는 그야말로 체험, 즉 이런 과학 문화를 접하는 것만도 성공일 것"이라며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을 이끌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은 이렇게

혹시 이·공계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전시는 안성맞춤이다. 과학이라면 질색인가? 이 전시에서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과학을 접해보자.

청소년들은 각 전시 섹션마다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라식수술, X-레이, MRI(자기공명영상법) 등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의료시술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원리를 체감할 수 있다.

만약 전시 설명이 좀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주저말고 전시장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언제든 친절하게 원리를 설명해 줄 것이다.

또 전시를 통해 노벨상 수상자들을 만나보면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김경 대표의 말이다.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은 하루 아침에 그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실패와 싸우고 끈질기게 노력했지요. 이 전시를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에서 이장, 택일, 제사까지
확 트이는 風水 꽉 잡히는 地理
풍수의 모든 것을 총정리한 책! 이 한 권으로 풍수는 끝난다!!
제 1 장 풍수風水의 의의意義
제 2 장 풍수의 기초 이론基礎 理論
제 3 장 용세론龍勢論
제 4 장 혈장론穴場論
제 5 장 사격론砂格論
제 6 장 수세론水勢論
제 7 장 좌향론坐向論
제 8 장 형국론形局論
제 9 장 구성 나경 사용법九層 羅經 使用法
제 10 장 발복發福 추산법 推算法
제 11 장 장택론葬擇論
풍수책의 결정판
저자 정판성 박사
쉬운 문장, 많은 그림, 현대적 용어로 설명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풍수 책!
사람들이 풍수를 배워서 명당에 묘를 쓰고 집터를 잡아 행운을 얻게 하는 잡술서가 아닌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저술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이 책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많은 이론들을 제시했으므로 별도로 다른 풍수서적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도움을 얻기 바랄 뿐이다.
청학출판사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신국판 752쪽 값 30,000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보응당 문성→회응당 상균→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011-743-5167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서 밝고 훤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탑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생의 시련 극복할 근원적인 힘 무엇?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청소년 때는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 깊은 사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특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고 정확한 통찰력을 갖지 않으면 '허울'만 보는 눈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가치, 진실로 소중한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냉철한 이성을 갖도록 많은 독서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지게미'로 살아갈 순 없잖아요?

허울 : 실속이 없는 겉모양.(자넨 아직도 우리 집안을 무서운 집안으로 알고 있네만, 우리집은 이제 허깨비세, 허울만 근사한 텅텅 빈 겉껍질 뿐이야.)<홍성원, 육이오>

지게미 :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 일반적으로 술지게미를 뜻합니다.(안남미 반에 술도가에서 얻어 온 막걸리 지게미를 빻아 그걸 반쯤 섞어 지은 밥이었다.) <김원일, 불의 제전>
또, 술을 많이 마시거나 열기가 있을 때 눈가에 끼는 눈꼽을 뜻하기도 해요.(입에서 술내가 나고 눈에서 지게미가 나오면서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을 하였다.)<한용운, 흑풍>

저어하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선희는 잠든 병인을 깨울까 저어하는 모양으로, 발끝으로 걸어서 침대 곁으로 와서 우두커니 섰다.)<이광수, 흙>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서머싯 몸 作 '인간의 굴레'

이 소설은 영국 작가 서머싯 몸의 대표작이죠. 작자 자신의 전반생에 대한 정신적인 자서전으로 2년간의 집필 끝에 이루어진 노작입니다. 이 작품을 쓸 당시 몸은 인기 있는 작가이며 극작가로 성공을 거둔 뒤였지만 말더듬이로 고통 받던 초등학교 시절과 모친과의 사별 등 불행한 과거의 추억에 북받쳐 그것을 뿜어내고 싶은 충동에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해요.

"나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작품을 썼다. 나는 바라던 성과를 얻었다. 교정을 끝냈을 때 나는 온갖 망령들이 전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작가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불행했던 젊은 시절은 이 소설을 통해 그대로 재생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굴레>에서 '굴레'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인공 필립 케리가 출생이후 줄곧 그에게 닥쳐왔던 인생에 있어서의 속박을 의미하겠죠. 선천적인 불구와 고아로 살아야하는 현실 속에서 경제적 궁핍과 사랑하는 여인의 거듭되는 배신들이 속박이며 굴레로 다가온 것이죠.

주인공 필립 케리는 양친과 사별하여 목사인 숙부에게 의탁해 기숙학교에 들어가지만, 절름발이로 인한 온갖 놀림과 열등감 때문에 고민한다. 그는 당초에 성직을 갖고자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하려 했던 꿈을 포기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로 유학을 떠난다. 그러나 고아이며 불구자인 케리의 괴로움은 현실에서의 좌절로 이어진다. 그는 귀국하여 런던에서 회계사 수업을 해보지만, 그것 또한 불만스러워 이번에는 그림을 공부하기 위하여 파리로 간다. 그러나 그림에도 재능이 없음을 깨달은 그는 다시 귀국, 의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재학 중 다방 종업원인 밀드리드와 친하게 된다. 주인공은 소설 속에서 5명의 여인과 관계를 갖는데, 이 중 밀드리드는 3번째 여인으로, 케리는 그녀에게 완전

작가 전반생에 대한 정신적 자서전

불행했던 젊은시절을 그대로 반영

히 반해 버려 백치와도 같은 순애를 바친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외의 남자가 있었고,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다른 남자로부터 배반을 당해 그에게로 온다. 케리는 밀드리드의 빚을 갚아주고 그녀를 돌본다. 오랫동안 애욕에 빠진 그는 파국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결심한 바 있어 그는 의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도 갖고 시골 처녀 샐리와 행복한 결혼도 한다. 30세가 되어서야 그가 선택한 결혼 상대자는 교양이나 지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건강하면서도 부지런한 주부형 시골여성이었다.

고아와 불구라는 이중의 고통을 짊어진 주인공이 어떻게 인생을 괴로워하고, 어떻게 인생을 꿈꾸고, 어떻게 인생을 배반당하며, 어떻게 인생을 해결해 나갔는가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즐거리잖아요. 그러나 작가는 고난에 넘친 생활 가운데서도 오직 인생의 의의만을 생각하는데, 그가 도달한 결론은 결국, "인생은 페르시아 융단의 꽃무늬 같아서 현란하긴 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모옴 특유의 페시미즘(염세주의)인 것이죠.

작가가 하고 싶은 중심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에게는 수많은 속박과 굴레가 존재하지만 진실을 찾아 헤매는 가운데서 속박과 굴레는 벗겨지고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인생은 행복이라는 척도로서가 아니라 죽음과 더불어 완성되고 소멸되는 하나의 예술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는 수많은 인생을 체험한 끝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종교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된 최초의 사건 생각나나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구절 즉 "무엇을 구하는 것은 … (중략)…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절을 믿으며 자신의 신체적 불구가 완치되길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그의 소원은 이루어 지지 않았죠. 어린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종교에 대한 불신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죠. 종교적 윤리적 의식에서 해방되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 하이델 베르크로의 유학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닥쳐올 인생의 시련의 출발점이었지요. 경제적 정신적 시련을 겪으며 인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평범하게 살고자 했어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며 인생에 대한 강한 집착은 또 하나의 속박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허무주의적 인생관이 반영되어 있지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친구들과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저만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는게 힘든건가요T.T 얘기하다보면 자꾸 휘둘리고 제 말투가 신기하다며 따라하고…. 애들이랑 이야기할 때 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ID:고딩)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딩님. 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에 이리저리 잘 휘둘려 정작 자신의 뜻을 밝히 못하는 부분이 있군요. 막상 놀땐 즐거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또 친구들에게 휘둘린 것 같아 후회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유독 고딩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님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는 부분에 있어 님을 당황하게 하는군요.

고딩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도 해보았지만 고딩님의 새로운 모습에 어색하고 친구들이 빨리 받아 들이지 못해 더 힘들겠어요.

고딩님께선 참 편안하고 착한,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고딩님의 그런 성격과 행동이 좋은 쪽으로도 많이 영향을 미칠텐데 친구들이 왜 님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구들이 님이 우습다거나 끌려 다닐려고 하는 생각보다 항상 같이 다니셨고, 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고 친하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친구들이 장난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분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또래상담실 주은이님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옥돌침대
흙 침 대
인기 상품
422 로채Q(황토흙)
인기 상품
304 목련Q(음수옥)
특별가 235만원
424 비토Q(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흙침대
거북이표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쇼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 (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회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혜암 스님(3)

시자, 만일 객승이 스님께 "부처님 없는 세계를 가져오면 담뱃재를 털지 않겠습니다" 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혜암, (주장자로 시자를 때린다)

어떤 납자가 법당에 들어와 부처님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 연기를 불상에 뿜고, 게다가 담뱃재까지 부처님 손바닥에 탁탁 털고 있었다.

법당 일 보던 노전스님이 나타나 호령하며 따졌다. "감히 어찌 담뱃재를 부처님 손에 터느냐?"

객승이 답했다. "스님, 법당 주련을 보시구료.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부처님 몸이 법계에 충만해 있다)라 써 있으니, 도대체 어디에 재를 털어야 한단 말이요?"

이 법문을 나중에 시자가 듣고 혜암(惠菴, 1886~1985) 스님께 여쭈었다.

"만일 객승이 스님께 여쭙기를, '부처님 없는 세계를 가져오면 담뱃재를 털지 않겠습니다' 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번뇌 끊는 '자비의 몽둥이' 사용
시자에 '부처 없는 세계' 보여줘

혜암 스님이 시자를 주장자로 때렸다. 그러자, 시자가 또 물었다. "담뱃대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혜암 스님이 다시 한 번 때렸다.

이 선문답을 알아들으려면 황벽 선사의 선화(禪話)를 먼저 살피는 것이 좋다.

염관 선사 회상에서 황벽 선사가 공부할 때의 일이다. 당나라 훼불의 주역인 무종을 피해 절로 도망쳐 온 한 사미승(뒷날 선종황제가 된다)이 황벽 선사가 지극정성으로 목탁을 치면서 예불하고 있는데, 질문했다.

"부처(佛)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승(僧)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어디에다가 예불을 하십니까?"

제법 아는 체하는 사미승의 질문에, 황벽 선사가 답했다.

"불에도, 법에도, 승에도 구하지 않고 늘 하는 예불을 하고 있을 뿐이니라."

사미가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예불은 해서 무엇 합니까?"

그러자 황벽 선사가 그 사미승의 뺨을 한 대 후려쳤다.

사미가 "스님께서는 후학을 너무 거칠게 다루십니다" 하고 반발하자, 황벽 스님은 "얻어맞아도 싼 놈이 무슨 거칠게 다루니 마느니 할 게 있느냐?" 하고는 연거푸 두 대 더 때렸다.

법당에서 부처님 손바닥에 담뱃재를 턴 선객은 법계에 충만해 있는 법신(法身)에 대해 알았지만, 형상 있는 불상 역시 법신의 나툼인 줄은 몰랐다. 부처라는 관념에 걸리지 않고 무애자재(無碍自在)한 쳑 했지만, 부처를 구함이 없이 공경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 혜암 스님은 삼세 동안의 번뇌를 끊어주는 자비의 몽둥이를 통해 '부처도 없는 세계'를 시자에게 대신 보여주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무릇 있는바 상(相)은 다 헛되고 망령된 것이지만,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바로 진실한 여래를 보게 된다(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고 하셨다. 꿈같은 세상을 꿈이라고 아는 사람은 곧 '환상에서 벗어나 깨어나기에(離幻卽覺)' 법계에 충만한 법신과 있는 그대로의 실상(實相)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증도가>의 "무명의 참 성품 이대로가 부처님의 성품이고, 허깨비같은 빈 몸 이대로가 법신이라(無明實性 卽佛性 幻化空身 卽法身)"는 경지가 아닐까.

김성우 객원기자

고희의 나이 잊고 '전법도생' 온 힘

〈傳法度生〉

거사선의 리더들 ❾- 대원 문재현 거사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소리고개(音峴里) 산길을 따라 펼쳐진 6000여 평의 부지위에 4개 동의 건물이 각각 자리 잡고 있는 국제 육조정맥선원(www.zenparadise.com). 11월 11일 오전, 대웅전에 참배하기 위해 올라가니, 선원장 증오 스님이 대웅전 아래 건축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 선방을 짓고 있는 현장에는 스님들이 작업복을 입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야말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백장청규(百丈淸規)의 현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150여 평에 달하는 웅장한 대웅전을 사부대중이 직접 지었다는 증오 스님의 설명을 들으니, 그 불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증오 스님으로부터 선원의 연혁과 절 살림살이를 들으니, 철저한 자급자족의 수행공동체임이 느껴졌다. 게다가 이 곳 본원을 비롯해 광주, 서울, 부산 등지에 머무는 40여명에 달하는 스님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대원 문재현(71) 거사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했다. 그것은 대원 거사가 경허-만공 선사의 법을 이어 '지혜제일'이라 불리었던 전강(田岡, 1898~1975) 선사의 인가제자로서 선법을 드날리고 있다는 자부심이었다.

오후 2시가 되자, 대웅전으로 스님과 신도들이 몰려온다. 대원 거사의 정기 선법문이 있는 날이다. 200여 출·재가 대중이 청법가를 올리자 대원 거사가 <선문염송>의 '염화미소(拈華微笑)' 공안에 이은 '가섭찰간(迦葉刹竿)' 공안을 제창하며 법문을 시작한다.

"아난 존자가 가섭 존자에게 질문했다. '석가세존께서 가섭 존자에게 금란가사를 전한 일 이외에 또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러자 가섭은 '아난이여!' 라고 불렀다. 아난은 '예'라고 대답하니, 가섭은 '문전의 찰간(刹竿)에 걸려있는 깃발을 쳘거하라(倒却門前刹竿着)!'라고 말했다."

여기서 가섭이 "아난이여!" 하고 부르고, 아난이 "예!"라고 대답한 그것으로 이심전심의 전법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쓸데없이 찰간에 깃발을 내세워 설법이 있다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법문이다.

대원 거사는 용성-전강 선사의 선문답에서 전강 스님이 "예!"하고 대답한 기연 역시, 가섭과 아난 존자의 선문답과 유사하지만, 아난 존자는 당시에 깨닫기 전이었기에 몰랐고 전강 선사는 알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즉, 어느 날 용성(龍城, 1864~1940) 선사가 전강 스님에게 "어떤 것이 제일구(第一句)냐?"하고 물었을 때, 전강 스님이 "예!"라고 답하며 제일구를 곧바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대원 거사의 이런 선법문은 기초교리는 물론 선어록에 등장하는 공안(화두)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는 알아듣기 어렵다. 그럼에도 선원의 대중은 난해한 공안집인 <선문염송>과 <벽암록> <전등록> <무문관>은 물론이요 <신심명> <증도가> <선가귀감> 등의 선어록을 꾸준히 공부하여 이미 상당한 안목을 갖춘 수행자들임을 엿볼 수 있었다.



선법문을 하는 대원 문재현 거사(위), 선법문을 듣기 위해 모인 200여 명의 출·재가 대중들(아래).



물론 육조정맥선원의 수행자들이 화두참구에만 매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원 거사는 일상 속에서 성품을 여의지 않고 자재하게 쓰는 공부를 강조한다.

"이 현실 속에서도 성공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다. 직장에서는 다 내려놓고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나 일할 때 이외의 길을 걷는다든가 화장실을 간다든가 차를 기다린다든가 이런 공백을 호리(毫釐)도 헛되이 버리지 말라. 시간 없는 사람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공백을 놓치지 말라."

대원 거사는 스님과 신도들에게 늘 "방심(放心)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늘 일행삼매(一行三昧)가 되도록 공부를 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들의 얼굴빛이 하나같이 선객답지 않게 곱상하면서도 밝고 맑은 빛이 감도는 것은, 늘 스승의 지도·점검 아래 본래면목을 여의지 않고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마음공부를 지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졌다.

1936년 광주에서 태어난 대원 거사는 불과 18세에 오직 깨달음에 뜻을 두고 전국을 방랑하는 구도행각에 올랐다. 1954년 인곡 선사를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한 그는 2년 만에 전북 고창 선운사 도솔암에서 지내던 중 소나무에 바람 스치는 한 소리에 활연대오(豁然大悟)했다고 한다. 1957년 경봉, 동산, 고봉, 설봉, 금봉, 효봉, 금오, 춘성, 청담, 전강 선사 등 당대의 선지식을 두루 참문한 그는 전강 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 1961년 하안거 결제 중 전강 선사가 불국사 조실이었던 월산 선사 입회하에 인가하며, "부처와 조사도 일찍이 전한 것이 아니거늘(佛祖未曾傳) 나 또한 어찌 받았다 하며 준다 할 것인가(我亦何受授) 이 법이 2000년대에 이르러서(此法二千年) 널리 천하 사람을 제도하리라(廣度天下人)"는 전법게를 내렸다고 한다.

이때부터 대구 동화사 포교당에 개설한 시민선방에서 교화를 시작한 그는 이듬해 동화사에서 <바로보인 금강경>을 출간한 이후 환속해 20년간 은둔하며 보림공부를 했다. 1986년 도륜 스님 등 여러 사람이 설법을 청해 광주 선우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대중 교화에 나섰다. 1988년 광주 삼원선원에 이어 1991년 서울 분원, 1994년 부산 분원을 설립했다. 역경과 저술 작업으로 바른 불법을 펴기 위해 1995년 '바로보인 출판사'를 설립해 문서포교에 진력, <바로보인 선문염송> <영원한 현실> 등 15종 30여 권의 저서를 발간했다.

거사의 신분으로 선법(禪法)을 전하면서 말못할 고비를 수없이 넘긴 그는 오늘도 고희(古稀)의 노구를 잊고 전법도생(傳法度生)의 서원을 실현하기 위해 촌음을 아끼고 있다.

대원 거사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서울 분원) 선가귀감, 셋째 주 일요일(광주 분원) 선문염송, 넷째 주 일요일(부산 분원) 반야심경 법문을 하며 선객들의 안목을 열어주고 있다. (02)3494-0122

김성우 객원기자(buddhapia5@daum.net)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직장인 동안거 참선**=서울 정릉 보림선원은 직장인을 위해 동안거(11.24~2.21)기간 동안 매일 저녁 7~9시 백봉 김기추 거사의 법문을 듣고 좌선하는 참선법회를 연다. (017)332-4096

●**부처님 호흡법 집중수행**=김열권 법사는 12월 20~25일 4박5일간 조치원 지장사에서 부처님 호흡법인 아나빠나사띠(Anapana sati) 집중수행을 갖는다. (041)868-3119

●**정토수행으로 본 유마경**=양산 정토원 원장 정목 스님은 매주 화·수요일 오후 7~9시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정토수행으로 본 <유마경>을 강의한다. (051)711-0700

●**위빠사나 수행 토요반**=한국위빠사나선원은 12월 1일부터 매주 토 오후 6~9시, 12연기와 위빠사나 수행 토요반을 개강한다. 오후 2시부터 자율수행 및 인터뷰. (02)512-5258

"사찰난방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수평형이며 연도가 3패스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옆으로 긴형태의 보일러로써 나무를 태운열기가 앞-뒤,뒤-앞, 다시 앞-뒤로 열기 3번돌아 열효율이 높습니다.
●룸 스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방안의 스위치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편리합니다.
●화실이 크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화실이 크기때문에 길고 굵은 나무를 넣을 수 있어 난방이 편리합니다.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온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 대형 공간에도 난방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연도구조 청소가 쉽습니다.
나무를 태우면서 생기는 목초액이 연통에 붙어 연도를 막히게 하지만 연도 구조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청소가 쉽습니다.
2004Korea Consumer Best Awards 한열나무보일러 스포츠식품 라이프선정 2004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2005년 히트상품&서비스경영대상
A/s안내
무상서비스
-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의 보일러 본체의 부품불량 및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및 무상교환 가능합니다.
유상서비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 전기사용 잘못으로 인한 고장
- 동파로 인한 고장
- 모타 펌프 이상으로 인한 고장
- 본사의 설치도면을 어기고 개인 설비업자의 임의 설치로 인한 고장
서비스 신청요령
- 매매계약서 보관
- 보일러에 이상이 있을시 설치 대리점으로 문의
대한민국 업계 최초 발명특허, 실용신안, 국제표준,
기술평가 결정서를 획득한 기업은 한열나무보일러가 유일합니다.

▽대형사찰 ▽화원
△대형찜질방 △기업 △화원
HYT 한열나무보일러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www.hnboiler.co.kr

사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노래방기기 설치
추천상품 베스트상품

SOUNDART REINFORCEMENT SYSTEM

CHS 스피커

영상음향기기

휴대용 충전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투원미디어 Twin Media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진심에 진리가 있는거야!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㊴ 부처님이 주신 실수

잘 나가는 선생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P씨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한 지 거의 십년이 되어 간다. 대학 졸업 후 여기저기 무역회사에 다녀 보았으나 별로 재미가 없었다. 일도 적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월급만 가지고 저축해서는 집하나 장만하기도 어려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나 신세 한탄을 하니 "야, 넌 영어 하나는 잘 하는 편이잖아. 영어 강사 안 해볼래?"하며 학원을 추천해 주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솔깃해졌다. 무엇보다 잘 가르쳐 수강생만 많으면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P씨는 아내와 의논하고 용기를 내었다. "그래요,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하고 아내도 찬성한 것이다.

그 때부터 학원에 뛰어들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했다. 매달 등록하는 수강생 숫자에 따라 받는 액수가 달라지니 저절로 성의를 다하게 되었다. 1년이 지나자 회사 때 월급의 몇 배가 넘는 수입이 생기게 되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가르

친구권유로 직업바꾼 후 적성에 맞아
실수가 반복되자 눈에 띄게 학생 줄어

쳤다. 갈수록 소위 잘나가는 강사가 되어갔다. 집도 큰 집으로 옮기고 차도 장만했다. 이제 친구들을 만나도 누구 못지않은 수입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제 수강생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매사에 오만한 마음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끌려고 광고 문구를 과잉으로 내게 되고 버젓이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것처럼 말하게 되었다. P씨는 영어를 좋아하고 잘했을 뿐이지 영문학과는 거리가 먼 과를 졸업했다. 그래도 강의할 때 수강생들에게 마치 영문과를 나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없는 이야기까지 꾸며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내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셰익스피어를 번역하면서 애를 먹었고…" 등등이었다. 어느 날은 문득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런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수강생만 많이 끌면 어떠랴 싶었다. 그래서인지 사람은 점점 늘어갔고 P씨 통장의 돈도 늘어갔다. 이제 강의에 대한 성의보다도 자기 자랑과 오만함이 늘어가고 있었다.

뜻밖의 실수

그러던 어느 날 강의를 시작하며 영어로 "다 같이 책을 봅시다!"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왼편에 있는 문을 보는 것이 아닌가. 놀라서 생각해 보니 책(book)이라는 말 대신 문(door)이라고 해버린 것이었다. 그 말은 수백 번도 더 한 것인데. 그리고 가르칠 내용을 칠판에 쓰려는데 이번에는 문장이 생각나지 않았다. 멈칫거리다가 책을 열고 찾아서 썼다.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다. "아. 오늘 제가 좀 피곤해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하고 얼버무렸지만 눈앞이 하얘졌다. 강의 후 '피곤해서인가. 좀 쉬자' 하고 집에 가서 잠까지 자고 나왔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 어이없는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가자 P씨는 바짝 긴장하게 되었다. 그 쉬운 말과 문장, 수없이 반복했는데 도대체 왜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거나 기억이 안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정신 차려도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하루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 선생님 이상해졌어, 다음엔 듣지 말아야지"하는 한 학생의 음성이 들렸다. 순간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두 달이 넘자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P씨는 당황하며 절망감을 느꼈다.

내 마음의 진실 찾기

그 때부터 친구를 따라 절에 나가게 되었다. 스님이 "진심을 잃어버리셨군요.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찾으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오만해지고 돈 생각만 하게 되고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게 되었나.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게 되면서 다시 실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부처님이 오만해진 저를 위해 일부러 실수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젠 아침 마다 꼭 기도를 합니다. 나와 인연된 수강생들이 실력도 늘고 마음도 밝아지기를요." 덕분에 불법을 알게 되고 내 안의 부처님 마음을 찾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한다. 가끔 불안해지면 수업 시작 전에 <반야심경>을 독송한다. "나의 근본 마음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도 마음을 관하며 수업을 하고 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월정사 15기 단기출가=**평창 월정사의 단기출가학교가 15기 단기출가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내년 1월 5일~2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15기 단기출가는 12월 5일까지 접수마감이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는 단기출가 졸업 후 정식 출가희망자를 우선 선발하며, 수행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정식 출가행자로서 등록 및 인정한다. 40세 이상자는 전체 정원의 30%만 선발한다. 입학정원의 5%내에서 졸업생들의 재출가를 받는다. (033)332-6664 www.woljeongsa.org

●**구룡사 동안거 관음 백일기도=**서울 구룡사가 11월 24일부터 동안거 관음 백일기도에 들어간다. 2월 21일 회향하는 동안거 관음 백일기도에서는 관음기도를 하며 백일간 정진하게 된다. 11월 24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02)575-7766

●**태아령 천도재=**능인선원 수원지원 용장사에서 태아령 천도재를 11월 27일~12월 3일 봉행한다. 이 기간동안 매일 오전 10시 30분 영가 천도 및 〈금강경〉 독송을 한다. 태아령 천도재는 이승의 삶을 미처 살아보지도 못하고 떠난 망태아 영가를 위한 천도재. 동참금은 3만원이다. (031)221-2029

●**관음사 11월 기도순례** =한국불교대학관음사가 11월 25일 전주 운주사, 유마사, 쌍봉사로 11월 기도순례를 떠난다. 오전 7시 우리절 앞에서 출발할 예정. 동참금은 2만5000원이다. 11월 22~24일에는 금강산 성지순례를 떠난다. 표훈사 만폭동 진주담 보덕암 묘길상 명경대 삼불암 등이 순례지이다. (053)474-8228

●**월산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송년음악회**=경주 불국사가 월산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 송년음악회를 12월 17일 오후 6시 경주 현대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송년의 밤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월산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 송년음악회는 1부 의식, 2부 만찬, 3부 송년음악회로 구성된다. (054)746-9913

●**미황사 12월 특별수행 '참사람의 향기'** =해남 미황사가 한국 전통의 화두참선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7박 8일간의 '참사람의 향기' 12월 수행자를 모집한다. 12월 15~22일 열리는 12월 특별수행 '참사람의 향기'는 참선,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법문(수행체계), 다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061)533-3521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6〉

행동주의와 불교-4

행동주의의 상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기법으로 강화(强化) 요법이 있다. 이는 학습심리학자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형성'을 응용한 것이다.

스키너는 '스키너 상자'라는 작은 상자를 만들어 배고픈 쥐를 그 안에 넣어 실험을 했다. 이 상자 안에는 지렛대가 있고 그 밑에는 접시가 있다. 접시 안에는 아무 것도 없다. 배고픈 쥐가 주변 환경을 탐색하다가 지렛대를 누르면 그때 먹이가 접시에 떨어지도록 장치를 해 놓았다. 그러나 쥐가 지렛대를 누를 때까지 실험자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는다. 쥐가 지렛대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먹이를 주고, 지렛대를 쳐다보면 먹이를 주고, 가까이 한 발짝 다가가면 먹이를 주어서 마침내 지렛대에 직접 조작을 가해 누르도록 유인한다. 이것을 조형(shaping)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지렛대를 눌러 먹이를 얻게 된 쥐는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해서 지렛대를 누르게 된다. 이렇게 어떤 것을 조작하게(지렛대를 누르는 행동) 한다고 해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며, 그에 따라 주는 먹이를 강화자극이라고 한다.

본능적인 욕구, 탐애 이용한 것 강화자극
행동주의 상담 인간 근본 성품 못 바꿔

강화자극에는 음식이나 물처럼 유기체의 생물학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1차 강화물과, 돈이나 토큰처럼 1차 강화물과 짝지어짐으로써 강화력을 획득하는 2차 강화물, 그리고 인정이나 칭찬, 관심처럼 1차 강화물과 짝지어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력을 갖고 있는 사회적 강화물이 있다. 이들 강화자극은 모두 유기체의 본능적인 욕구, 탐애(갈애)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조건형성이 된 상태에서 만약 먹이(강화물)를 계속해서 주지 않는다면 쥐의 행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쥐는 결국 지렛대 누르는 행동을 멈추고 말 것이다. 쥐가 지렛대를 누른 것은 먹이가 나오기 때문이지, 거기엔 어떠한 의지나 숭고한 지향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지렛대 누르는 행동이 없어지는 것을 '소거'라고 부른다.

행동주의상담은 바로 이러한 학습이론을 기본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상담과정은 곧 교육과정이라고 본다. 학습 원리를 이용하여 내담자가 갖고 있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소거하고, 강화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적응적인 행동을 학습하도록 돕는다. 가령, 어떤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큰소리로 우는 버릇이 있다고 하자. 행동주의 상담가는 이 아이가 큰소리로 우는 행동을 학습했으며, 강화물이 작용했다고 본다. 이때 아이에게 강화자극이 된 것은 주변 사람의 관심이었다. 울면 관심을 보이니까 그것이 보상이 되었던 것이다. 아이의 부적응적인 행동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큰소리로 울 때 강화물이 되었던 주변의 관심을 철회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의 행동이 바뀐다. 실제로 행동주의 상담은 이러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데 효과가 크다.

하지만, 앞 회에서 말했듯이 행동주의 상담의 기본 원리는 유기체의 갈애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갈애를 끊고 나아가 윤회의 고리마저 끊고자 하는 불교와 정반대다. 따라서 행동주의 상담은 인간의 행동은 수정할 수 있지만, 인간의 근본 성품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와는 목표점, 지향점이 다르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동산대종사.

수행풍토·종단 정체성 바로 세우기 '솔선'

"은사이신 용성 스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화는 꼭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래 일정 때에 정화를 해 보려고 하였지만 반일 자로, 독립운동가로 매도하고 너무도 압력을 가해서 그때는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도 하셨어요. '정화 이것을 꼭 이루어서 출가승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정혜쌍수만 하지 말고 계정혜 삼수를 행해야 한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미승들을 가르칠 때에도 '사미율의를 철저히 가르치도록 해서 수행풍토를 반드시 되찾아야 불조혜명을 이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하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청담 경산 스님은 '어른스님 말씀을 우리가 못알아 듣겠습니까?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답하시곤 갔지요."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인 종산 스님이 동산 스님(1888~1965)을 회고하는 대목이다. 근현대 한국불교에서 선지식으로 추앙 받는 동산 스님은 항일정신과 민족불교 정신으로 일제에 '건백서'를 제출했던 용성 스님의 정신을 이어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했던 거목이었다. 동산 스님은 1954년 불교정화운동을 발의했던 장본인이며 입적하는 1965년까지 비구 종단의 수행풍토를 확립하고자 솔선수범했던 뜨거운 선승이었다.

동산 스님의 문도들이 스승의 위업을 현창하고 유지를 받들기 위해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을 묶었다. 동산 스님의 향훈을 간직하고 있는 스님과 재가자 33명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한 구술사서다. 수행공간에서 함께 지내며 당당하고 자상하던 풍모를 사숙한 후배스님들의 증언과 큰스님으로 모시면서 보고 들은 가르침을 잊지 않은 재가자들의 기억이 한권의 책을 이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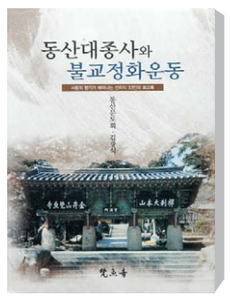
"동산 스님은 매일 마당을 쓰는 데 쓸 것이 없어도 매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산 스님의 청소에서 청소하는 것만 보면 안됩니다. 우리들의 공부도 마찬가지에요."(석산 스님)

"(정화운동 당시) 늘 조계사에 주석하시니 주인 노릇을 하시는 것 같으시고, 이념적으로 가장 확고하고, 그러면서 급진적인 분이 동산 스님이십니다."(인환 스님)

"동산 스님이 용성 스님의 정화정신을 구현한 것은 으뜸이고 정화불사의 그 기원은 병인년 1926년 5월, 9월 두차례 있었던 건백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도문 스님)

동산문도회와 부천대 김광식 교수(대각사상연구회 연구부장)가 기획 취재 정리한 이 책은 동산 스님의 수행자로서의 풍모와 정화불사의 대의와 과정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그간 동산 스님 문집은 <동산대종사 석영첩(1967)>과 <동산대종사문집(1998)>이 나왔다. 동산문도회는 이 책의 발간을 문도 화합을 기하며 범어사의 역사와 전통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 불교정화운동연구소와 장학재단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동산문도회 김광식 지음
영광도서 펴냄|2만7000원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편집

법화경을 널리 유포하라



법화경의 혈맥
석행일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펴냄|1만5000원

"스승이신 법화대종사께서는 늘 말씀 하시기를 '말법의 중생을 구제하는 길은 오직 <법화경>을 널리 유포하는 것이 이 길만이 국가와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승께서는 이미 입멸하시고 안계시지만, 진정으로 스승의 뜻을 받들고 <법화경>을 홍통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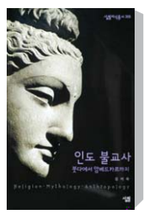
평생 <법화경>을 연구하고 수행하며 영산법화사(경남 진해)를 건립해 법화사상을 유포했던 법화대종사(1912~1977)의 '법화사상'을 제자인 석행일 스님이 묶었다. 스승이 평소 강조했던 구절들을 '대의'로 정리하고 <법화경>의 각 품들은 먼저 요점을 상세히 정리하고 원문과 법화대종사의 '논해'에 이어 행일 스님이 주석하는 형식으로 편찬됐다. 필요에 따라 용어풀이를 따로 했고 영험담 등도 삽입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원본은 구마라즙의 한역본이다.

천태 지자 대사는 부처님의 설법을 다섯 시기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법화경>은 부처님이 성도 이후 화엄부(21일) 아함부(12년) 방등부(8년) 반야부(21년)를 설하고 난 뒤 입적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설한 가르침으로 '최상승 법문'이라 말한다.

임연태 기자

각 시대별 핵심적인 불교 사상 해설

인도 불교의 모든 것 담겨



인도불교사 붓다에서 암베드카르까지
김미숙 지음
살림 펴냄|3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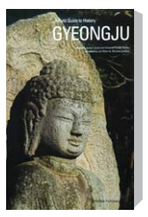
인도 불교의 시발점인 붓다에서부터 불가촉천민들의 대대적인 개종을 이끌어 낸 암베드카르에 이르기까지, 인도 불교 전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인도 불교사>가 나왔다. 살림지식총서 309권 <인도 불교사>는 인도 불교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다. 각 시대별로 핵심적인 불교 사상을 해설해, 간략한 개론서 역할도 겸하고 있다.

저자 김미숙 박사는 "붓다로부터 시작된 인도의 불교, 그 역사를 아는 것은 불교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단언한다. 거기에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 <붓다의 발자국> <불교문화 이야기> <붓다의 깨달음> <불교사의 이해> 등을 펴낸 저자가 바라보는 인도 불교사의 세계 속으로 떠나보자.

강지연 기자

테마별 코스는 팁

경주 답사 여행 가이드 북



Gyeongju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지음
돌베개 펴냄|2만7000원(27달러)

외국인들을 위한 역사 도시 '경주' 답사여행 가이드북 <Gyeongju>가 나왔다.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과 한국의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발로 걷는 답사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영문 여행서다.

올 컬러로 구성된 가이드북은 지도에서부터 건축의 특성, 전설, 각 유적지의 유물들까지 세심하게 수록했다. 석굴암 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고대 신라의 유적을 비롯해 감포길, 낭산과 토함산, 남산, 경주 시내 등 12개의 코스를 중심으로 경주 답사여행을 안내한다. 이 외에도 경주를 더욱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테마별 코스도 부록에 담았다.

<Gyeongju>는 15권으로 완간된 한국 문화유산 답사 안내서 시리즈 돌베개의 <답사여행의 길잡이> 가운데 경주 편을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을 받아 영역한 책이다. 강지연 기자

<슈리 샹카라차리야 주석의 바가바드 기타> 번역서

모든 베다 가르침 진수 요약한 것



바가바드 기타
슈리 샹카라차리야 지음, 김병채 옮김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펴냄|2만5000원

인도의 고전 <바가바드 기타>를 슈리 샹카라차리야가 주석한 <슈리 샹카라차리야 주석의 바가바드 기타> 번역서가 나왔다.

788년 태어난 슈리 샹카라차리야의 주석서는 현존하는 <바가바드 기타> 주해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인도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추앙받는 슈리 샹카라차리야는 힌두교의 바탕으로 아드바이타 베단타 철학을 확고하게 세웠다.

"기타 샤스트라는 모든 베다 가르침의 진수를 요약한 것이다. 그 가르침의 명료한 의미를 정하기 위해 간략한 주석서를 쓰기로 했다"고 슈리 샹카라차리야는 밝힌다.

이번에 출간된 <바가바드 기타>는 슈리 샹카라차리야가 주석한 것을 1987년 알라디 마하데바 샤스트리가 영역한 작품이다. 1897년 첫 출판된 이래 샹카라의 바가바드 기타 주석서에 관한 가장 뛰어난 영어 번역본으로 10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

강지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2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성철	장경각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5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7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	정관	운주사
8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9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10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선물로 일반인께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 :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 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悲神力)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생명을 보호하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평생보호의 선물!
가로5cm 폭2cm 줄길이15cm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축원불공마친 비방!!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 거울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상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란이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상사는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하며, 법적인 관재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위에 걸면 차안이 품위가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38.000원
전화 : (02)741-4477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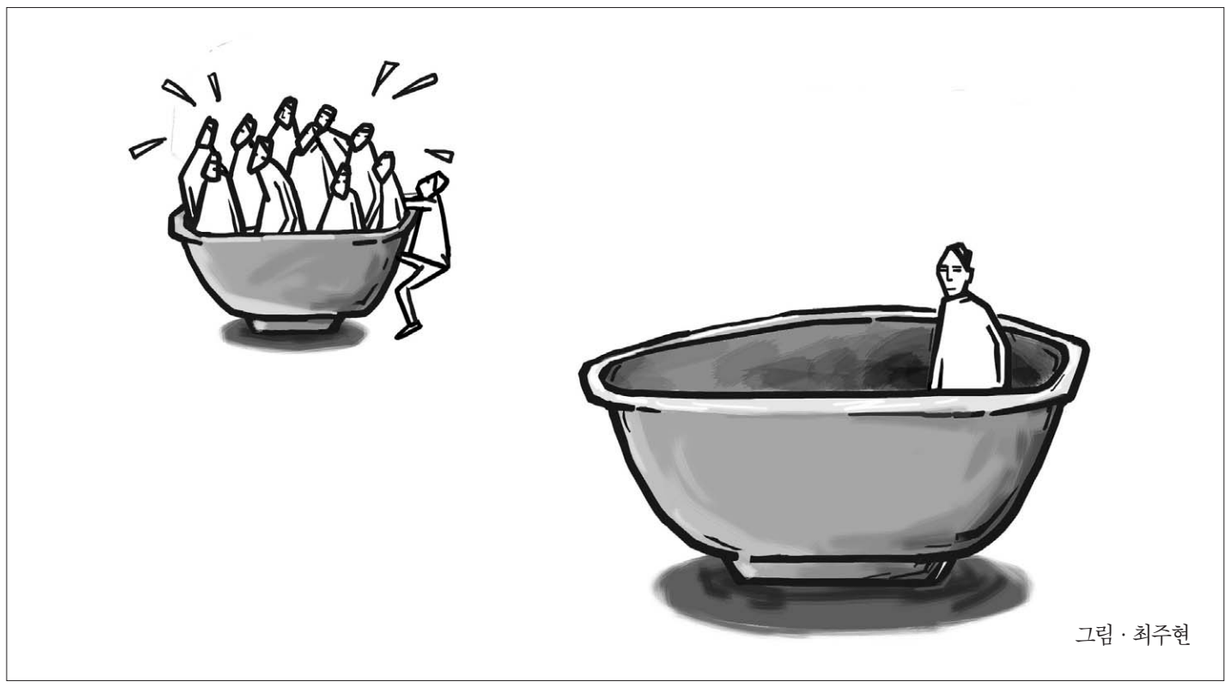
한마음이 돼야 한마음의 열쇠가 나옵니다!

항상 한자리에 같이 하면서도 한 달 동안에 몇 번 못 본 분들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가끔 뵌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나 미물 사는 거나, 사람들은 차원이 높아서 임신을 해도 하나만 낳고 그러지마는 사람의 차원까지 이르지 못한 미물의 짐승들은 많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간도 한생각을 잘못해서 어떻게 행동이 돌아가고, 어떠한 인연에 따라서 삶의 고(苦)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그런 일들을 검토해 볼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벌레의 세계든 짐승들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또 우주의 모든 섭리든 그 살림살이가 다 똑같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살림살이가 즉, 과학이며 천체물리학이며 또는 진리며 도며 불교라고요. 조그마한 데다 신경쓰지 마세요. 기독교다 카톨릭교다 불교다 이런 이름에 끄달리지 마시고, 어느 종교라는 것을 갈라놓고 끄달리지 마세요. 사람은,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생명들은 다 생명이 있겠지요. 불성은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걸 알게 되고 진화되고 창조되겠죠.

오늘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종합해서 본다면 그런 이치가 한두 건이 아닌데 옛날에 어느 한 동네에 만석꾼이 살았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인데 진실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거짓이 아니니깐요. 만석꾼이 살았는데, 그 양반은 자기집 노비들을, 종들을 너무도 학대를 했습니다. 동네 일판에서 만석꾼이라면 아마 그 이웃은 다 자기의 노비로서 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로 비유할 뿐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 한 동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노비들을 너무 잔인하게 부렸습니다. 돈만 알고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저 먹는 거라도 넉넉히 주고서 들여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고프게 먹으며, 농사를 지어주는데 피와 땀이 흐르면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와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왜 더 들여오지 않느냐?" 하고 두 부부를 묶어놓곤 때리고 하니 그건 뭐, 돌아가면서 그 고통이 너무도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매를 맞고도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 나무를 안 해오면 주인한테 또 얻어맞을 테니까 고만 나무를 하러 갔죠, 아파도.


그림 · 최주현

나무를 한 짐 해서 지고 내려오다가 그 매맞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젊은 스님이 다가오더니 "그 왜 그렇게 울고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이가 하는 소리가 "참, 무슨 죄를 많이 짓고 났던지 이렇게 노비로서 태어나서 그저 걸핏하면 때려서 건강치 못한 몸으로 나무도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젊은 스님한테 말했단 말입니다. 젊은 스님이 하는 소리가 "여보시오,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몸뚱이 태어나서 얼마나 가리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어차피 노비로 태어난 거 그대로 그대로 마음을 안유시키면서 조금만 더 살면 죽을 텐데 뭘 그러시오." 하고 가거든요.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나 더 슬펐습니다. 한 세월을 노비로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부모도 불쌍하지마는 자기의 동생들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했더라는 얘깁니다. 동생이 있어도 이웃에 살면서 또 노비 노릇을 하니 말입니다, 응! 자기 자식을 낳았어도 또 노비 노릇을 해야 하니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지금같이 먹고 죽을 약이라도 있으면 그냥 몽땅 다 먹고 죽을 텐데 말입니다. 아, 그때야 양잿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양잿물도 맘대로 못 먹고 죽습니다. 종이기 때문에요. 남의 노비인데 만약에 자살했다면 그냥 둡니까, 그 가족을.

그래서 더욱더 슬퍼서 울다가 할 수 없이 눈물을 씻고 다시 나뭇짐을 지고 내려왔습니다. 지고서 참 근근이 내려왔는데 그 맞은 독도 있고 하니깐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죠. 앓다가 죽어서는 양반집 주인의 손자로 태어나고, 또 그 양반은 죽어서 그 노비의 손자로 태어났더란 말입니다. 아마 누구나가 이렇게 태어나서 같이 산대도 모를 겁니다.

내가 그런 얘기 잘 하죠. 구더기는 자기가 파리가 된 줄 모르고 파리는 구더기였다는 걸 모른다고요. 매미는 또 굼벵이라는 걸 모르고 굼벵이도 매미라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니, 정말로 자기 부모가 이 세상에 자기와 연결이 돼서 십대 종손 십일대 종손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통히 모르거든요. 당대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나쁜 것에도 착을 두지 말라는 얘깁니다. 좋은 것도 착을 두지 말고, 이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엇갈려서 바뀌었습니다. 사연은 많지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엇갈려서 양반은 종이 되고 종은 양반이 되었죠. 양반이 종 노릇을 하려니까 양반으로 살던 습이 남아서 아상이 많아. 아무리 종놈으로 태어났을지언정 이건 아만이 머리끝까지 있단 얘깁니다. 그러니 종으로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 한술 더 떠서 매를 더 맞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던 사람은 또 종의 습이 있어가지고 항상 자기가 높은 줄 몰라. 항상 눈물이 잦고 노비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 남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형님들도 있고 아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나요? 양반 상놈은 나라에서 정한 법이요, 종이라는 건 때려죽여도 살인도 아니었죠.

종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난 척을 하니까 몰매를 맞고 지내다가 어느 날 그만 헛간에 불이 났단 말입니다. 불이 났는데 그 양반 노비는 소를 끌어내려다가 그만 불에 데었단 말입니다. 소도 데고 자기도 데었는데 그거를 다 끄고 보니까 서너 군데나 데었단 말입니다. 소도 엉덩이가 데어 가지곤 그냥 홀렁 까지고 그랬으니 주인집에서는 "소도 돌볼 겸 외양간에서 같이 자거라." 이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하고 서로 둘이 끙끙대고 앓고 또 소는 소대로 송아지들을 두어 마리 낳아가지고선 새끼들도 있는데 어미가 엉덩이가 그렇게 데었으니 그냥 앉기만 해도 아프거든요. 또 지푸라기가 닿으면 "음매" 하고 소릴 지르면서 울어요.

그렇게 지낸 지 며칠 후에 어느 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스님이 오셨는데 시주를 하라니까 그 양반의 집에서는 쌀 한 됫박 갖다가 부으면서, 우린 만석꾼인데 만오천 석이 되게 해달라고 스님한테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돌아서다가 외양간을 보시고는 그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깐 그 전생 양반 노비는 말입니다, 이생에서는 종이죠. 종이 하는 소리가 "무슨 팔자가 이래서 종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 나는 나를 낳은 우리 부모도 죽이고 싶도록 원망스럽고, 자기 주인 양반도 어느 때든지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싶다." 그러거든요. 전생에 양반이었을 때 성질이 그대로 남아서 말입니다. 전자의 각본대로 나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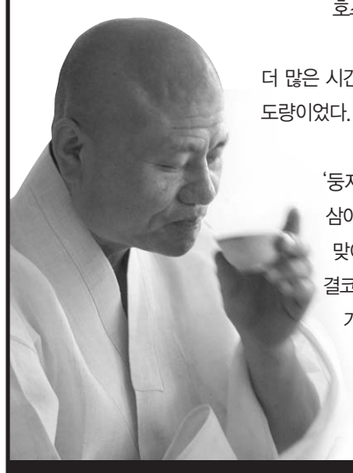
아, 그렇게 성질을 피우니까 "허허!" 웃으면서 스님이 하는 소립니다. "내가 여기 들어온 것은 자네 때문에 들어온 것만은 아닐세. 저 소로 인해서 들어왔네. 소의 얘기는 이렇다네. 저 묘향산 상원사에 어느 행자로 들어와서 살던 스님일세. 그러나 수좌(首座)가 돼가지고 부처님 앞에 놓는 돈만 그저 긁어가고 여자를 좋아했어.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몰래 산을 내려가서 어린애를 낳아놓고 살지도 못하고는 그냥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원한을 사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승려의 본분을 지키지 못해서 소가 됐다네." 그러거든요.

"그래, 저것 보게. 송아지를 낳아놓고도 엉덩이가 아파서 저렇게 앉지도 못하면서 꾸부정하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걸 좀 보게. 얼마나 고통인가? 그래도 인제 울면서 뉘우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주일만 있으면 데려가려네." 하거든요. 또 "자네는, 이 소의 인연으로 인해서, 소를 이렇게 극진히, 자기의 아픔과 같이 잘 거두기 때문에 자네도 인연 따라서 앞으로 법도를 닦아서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라네." 했거든요.

☞20면으로 계속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효종 스님의 가슴속에 묻은 남겨진 사연들...

둥지속의 대화



호스피스 활동과 간병인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는 효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그리고 함께 간병인 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도반이었다.
'둥지 속의 대화'는 바로 효종 스님이 병원을 도량삼아 수행하며 이어온 인연들의 이야기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진 이야기들은 감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동시에 전해준다.

– 현대불교신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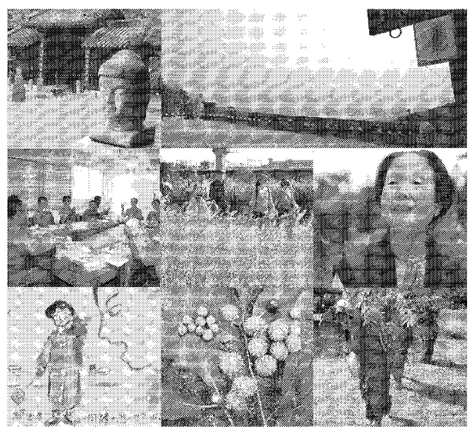


신국판 / 10,000원

현대북스 [現代] (051) 244-1251 (02) 2198-5151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문화 포교지
월간 『불교와 문화』





러브레터 | 사랑, 그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
사랑이란 이름의 실전 수행 2(자기를 잊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마음이 보인다)
소설가 정찬주와 떠나는 명상여행 | 인도에서 본 팔상록 9(녹원전법상)
종범 스님의 재가불자를 위한 기초교리(경전편) | 『법화경』
생활불교 가이드 | 보름 포살 법회란 무엇인가?
연병장에 피어나는 연꽃 | 부산 금련사
문태준 시인의 차유포토에세이 | 이별에게
숲길 10 | 화성 융릉, 건릉의 숲
테마가 있는 사찰, 그곳에 가고 싶다 | 운길산 수종사
집중인터뷰 | 방혜자 화백
드라마작가 정형수가 추억하는 내 기억속의 절밥
잊혀져가는 사찰음식을 찾아서 | 공주 흥복사 도토리 야채 수제비
향기로운 사람들 | 학습지도 자원봉사 불자 · 부처님께 사진 공양 올리는 불자
도쿄통신 | 일본의 '와비사비'
법현 스님의 숫자로 보는 불교 | 여덟 가지 특별한 것을 갖춘 아난
2007 테마로 읽는 좋은 책 | 불교와 박물관

월간 『불교와 문화』 1년 구독료 30,000원(1권 3,000원) 구독문의 : 02-706-1570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

나쁜 것에도 좋은 것에도 착을 두지 마세요!

☞19면에서 계속

그러고 간 지 삼일 만에 그만 그 사람도 죽고 소도 죽었더랍니다. 그러니깐 양반의 집에서는 야단이 났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소도 죽고 그 종도 죽고. 더 기막힌 건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나자 송아지 두 마리조차 다 죽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어느 집이 참, 가난한 집이지마는 남의 노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집으로 인도를 해서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로 태어나서 그 스님의 불씨가 그래도 인연이 있어서인지 다시금 스님네 노릇을 하면서 도를 닦았답니다.

그러니 도를 닦을 때에 어떻게 닦았겠습니까? 산중에서 도를 닦을 때는 새 한 마리 빼놓지 않고 곡경을 당하게 한,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이 스스로 마음 속에서 나와, 이제는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다짐하고 중노릇을 잘해서 앞으로 모든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원이 뚜렷하게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여자를 봐도 나무토막 같아, 그렇게 한 번 겪어서. 그 얘길 다 들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려고 짚세기에다가 떡하니 새끼 오락지를 매되 방울을 달고, 어디든지 산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휘휘 젓고선 다녔단 말입니다. 팔자 걸음으로 슬슬 떼면서,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벌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벌레 하나하나도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 친구를 만들었고, 모두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만들었다는 뜻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몸 하나하나에, 즉 말하자면 화생(化生)이라든가, 태생(胎生)이라든가 또는 습생(濕生)이라든가 난생(卵生)이라든가 이러한 사생(四生)이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사생이 다 들어 있다는 그 묘한 법을 어떻게 일러드리나 하는 생각에 이런 말을 지금 합니다. 그 사생의 인연은 어떻게 지어진 인연일까? 자기가 수없이 겪어 나오면서 살아나가던 습으로 인해서 알로 낳고 태로 낳고 습한 데서 낳고 또는 화(化)해서 낳고 하는 그 인연들을 자기가 몽땅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내가 먹었다, 악한 것을 하나 살생을 해서 먹었다 합시다. 벌 하나라도, 벌도 여러 가지지만 독이 들은 벌이라고 할 때는 벌 하나 먹어서, 내가 주장자가 완벽하게 서지 않은 빈 집이라면 독 있는 벌 하나를, 생선 하나를 잘못 먹어도 그 생선 속에 들은 사생이 다 내 인연이 된단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독이 들은 물체 하나를 먹으면 그 물체 속에 사생이 우리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악의 씨는 악의 씨를 낳고 선의 씨는 선의 씨를 낳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종류의 습을 가진 것을 먹게 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생이, 전부 수십억 마리에 관한 건이 전부 악으로 이루어지고, 악으로 낳게 되고, 악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끝간 데 없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인연을 만나면 그 악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생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남의 악한 종류를, 독을 먹는다면 그 모두가 독의 물이 든단 얘깁니다. 모두가 흡수가 되는 거야. 기능이 마비가 되고 무슨 독한 약을 먹으면 그렇듯이, 내가 악한 것을 먹으면 그 악한 피가 흘러서 내 피가 오염이 되니 그 생명들이 전부 마음 씀씀이를 악하게 쓴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뿐인가요?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만다면 별 문제가 아니죠. 한생각으로 사생의 모든 모습을 바꿔가지고 모습 모습이 다 다른 수십억 마리의, 모습도 다르지만 마음도 다 다른 그것

한 의식 속에서
수천수만 가지가 나고드니
그것을 조절해서
전부
그 자리에 놔라!

이 한꺼번에 지금 오장육부에 다 있으니 그게 오염이 된다면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그러면 모습도 모습이려니와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오염된 악의 씨는 마음 하나에 의해서 수천수만으로 금세 늘어갈 수가 있는 씨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염된 그 씨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해치는 겁니다.

모습으로 나오는 것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데서 즉, 영령(英靈)의 씨가, 악한 씨가 보이지 않는 데 수없이 피를 타고 돌면서 또는 전파를 타고 돌면서 나가서는 어디에고 다 퍼집니다. 사람이 숨 들이쉬고 내쉬는 데도 나고 듭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다 말로 하리까? 시급한 문제는 우리 마음으로서 어떻게 한생각을 잘해서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하다못해 애벌레 하나 버리지 않고,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버리지 않고 친구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체가 없는 마음은 체가 없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식(識)이 식을 먹고 식에게 식이 먹힙니다.

그러면 식과 생명, 영원한 나의 주인공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의식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 나는 그 의식 자체가 바로 한 의식이란 얘깁니다. "한 의식 속에 수천수만 가지가 나고 드니 그것을 조절해서 전부 그 자리에 놔라." 이 소리를 항상 하고 있죠? 그러면 때에 따라서 모든 친구들이 내 몸속에 들은 친구와 더불어 같이 돌이 아니게,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물질들이 나 아님이 없을 것이요, 마음들이 나 아님이 없을 것이요, 아픔이 나 아님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게 동시에 어떠한 일을 한다면, 나라에 무슨 큰 문제가 나도 이걸 들어야만 나라가 융성하고 또 편안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팽창될 때 나쁘게 될 때는 좋게 조절을 하고 좋을 때는 또 좋은 대로 평등하게, 즉 말하자면 위로 너무 솟아오르는 건 탁 쳐서 내리고 또 너무 내려가는 건 위로 올리면서, 평등하게 두면서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그런 공헌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다함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자리도 싫다 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아마 마다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엔 때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내 친구라면 어떠한 분야의 어떠한 용도에서는 두루두루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자가발전소에서 전력이 나오는데 용도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집안은 집안대로, 또 공중에서 쓰는 건 공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용도대로, 즉 말하자면 발전소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굴러가면서 자동적으로 에너지가 나가서 용도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몸뚱이가 한 몸뚱이가 아닙니다.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했듯이, 하화중생 하면 상구보리, 상구보리 하면 하화중생이듯이. 내 몸속에 지금 수십억 마리의 중생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화중생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몸뚱이 하나로 비유해서 세상에 탁 나왔을 때는 그 많은 중생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라도 선장님들은 배를 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모든 배 밑에는 수레바퀴가 달려서 지금 팔방으로 고정됨이 없이 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뚱이가 배고, 발은 배 밑의 바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 평발이지.

여러분은 '나 아닌 나'가 그렇게 많은 숫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습 없는 나'가 그렇게 많아서 나고 든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모습 없는, 바로 타인의 모습 없는 세균이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들어오면 그냥 하나가 돼버려야 탄로가 나지 않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둘이 돼버린다 말입니다. 너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이 몸뚱이를 건강하게 끌고다닐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 타인이 하나 들어왔으니깐요. 그러니 뱃속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꼭 주인공에서 나오는 건 주인공에다 맡겨놓으면 주인공에서 어떤 세균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다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보이지 않게 해결을 하고, 보이는 데선 보이는 대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역력하고 묘하고 광대무변합니까?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광대무변한 법을 가지고 있고 또 광대무변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자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에 탈이 생겨서

우리 마음으로서
한생각을 잘해서
하다못해 애벌레 하나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버리지 않고
친구로 만들 수 있어야!

말이 잘 안 나온다면 목을 자기가 스스로 수술을 하고 또 간이나 심장도 그렇고,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자기 자체는 타인도, 그 타인도 주인공은 둘이 아니라서 내 전화통과 그 전화통과 벨이 같이 울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꼭 안다, 저 사람은 참 안됐는데 내가 저 사람을 건져야지.' 하는 생각만 하면 언젠가는 건져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뭐, 한순간입니다. 이 도리가 그렇게 무서운 도립니다. 여러분이 욕심 착, 이런 걸로 벌어지게 해서 남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이나 착이나 남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디서든지 샘이 나올 듯하다가도 한울에서 열쇠를 맡기지 않습니다. 한울이라면 한마음 말입니다. 개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는 한마음의 열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마음이 돼야 한마음의 열쇠가 나옵니다.

만약에 한마음이 되지도 못한 사람이 열쇠를 받았다면 그 재주를 이용해서 '에이! 너 맛 좀 봐라!' 대번에 이러한 마음이 나오니, 자동적으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자신에게 열쇠를 맡깁니까? 자신이 아비고 지금 현재 자신이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런 아들한테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 둘이 아닐 때에 비로소 열쇠는 받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생각에 그러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는 사람은 '너 맛 좀 봐라!' 하고 망하게 만들면 아주 즉석에서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는 얘깁니다. 고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때인가 또 걸립니다. 나는 놈한테 걸려요. 그래가지고 톡톡히 당하죠. 그렇듯이 여러분은 그러한 데서 마음 하나하나를 낼 때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를 깨우쳐 보지 않는다면 내 몸과 둘이 아님을 몰라요. 또 내 자리 네 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내 아픔 네 아픔이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니 아비 내 아비가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니 자식 내 자식이 둘이 아니라는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참 간절하게 자식이 없어서 우는 부모가 있고 부모가 없어서 우는 자식이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런 벌레들도 짐승들도, 저런 섬 같은 데 한번 마음의 눈으로 스르르 좀 봐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좀 여유있게. 쫓기고 쫓고, 피를 내고 울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쫓기고 쫓다가 먹히고, 부모는 자식이 없어져서 울고, 자식은 부모가 없어져서 우는 그 꼴을 둥글리면서 보십시오. 짐승들만 그런 게 아니라, 벌레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개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생명들의 모습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집에 태어났다가 저 집에 태어나고 저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합니다. 이렇게 둥글리면서 끝간 데 없이, 종점이 따로 없고 시발점이 따로 없이 돌아가면서 자기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생활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모습을 자꾸자꾸 바꿔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 모두가, 애벌레든 짐승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애든 어른이든, 남의 집의 아버지든 남의 집의 할아버지든 남의 집의 자식이든, 어찌 내 자식이 아니며 내 부모가 아니며 어찌 그것이 내 생명이 아니며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호에 이어서)

※위 법문은 1987년 11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1박 2일) 안내

한국전통따주기 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관리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여,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사전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 부러진 뼈와 수술부위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가능 합니다.
- 따주기로 사주와 무관하게 숙명과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 간단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이웃 건강관리(병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 학생지도 및 신도 포교에 최적입니다.
- 따주기 사회봉사로 많은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위급시 비상 처치법으로 활용합니다.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특 전
-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한번 수강으로 이론 · 실습 모두 완료함(비법 전수)
- 교재 및 따주기 도구 지급

강좌일 (선착순 각 20명)
- 광주교육장 : 2007. 12. 1(토) ~ 2(일)
- 부산교육장 : 2007. 12. 8(토) ~ 9(일)
- 대구교육장 : 2007. 12. 15(토) ~ 16(일)
- 대전교육장 : 2007. 12. 22(토) ~ 23(일)

☞ 강좌 문의 : 041)944-2237 (010-3234-2237)
(문의시 세부 강좌 프로그램 보내드림)

전통전통따주기연구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5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법 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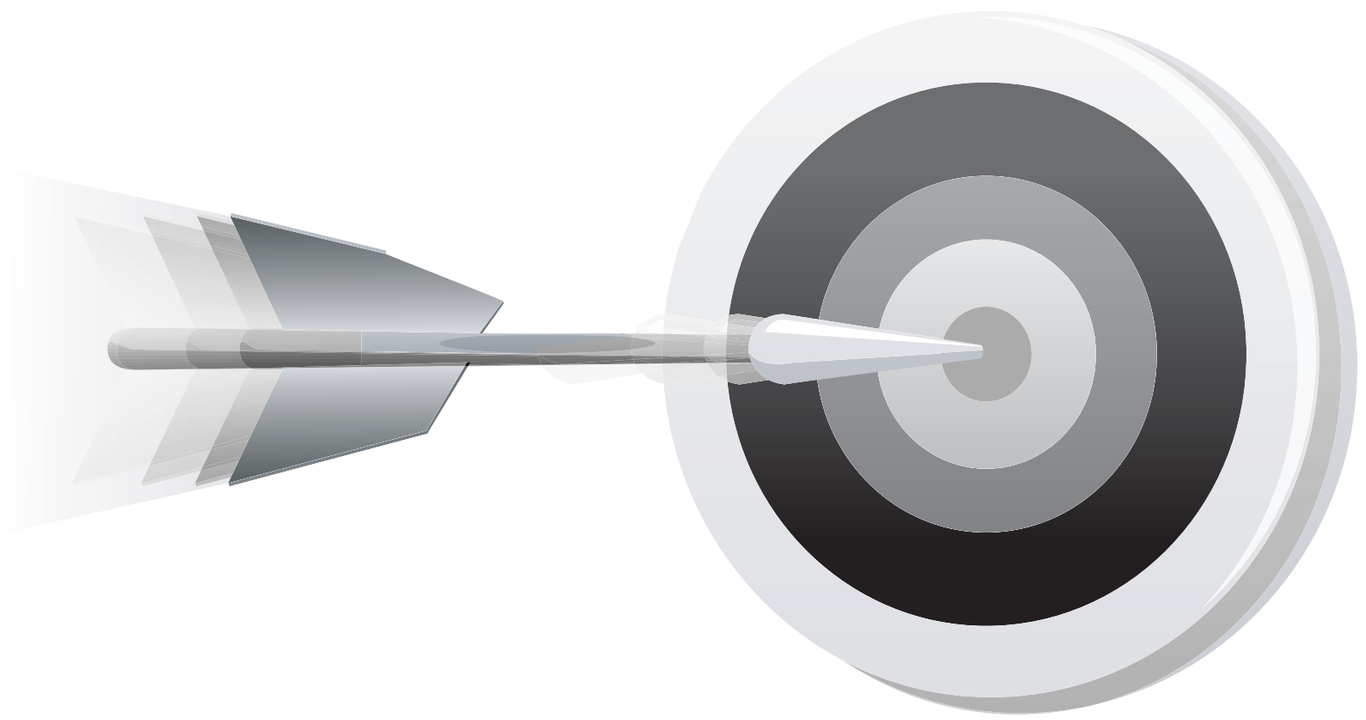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7년 11월 30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효사육임복변집」완간

명품(名品)이 탄생했습니다.
매우 쉽고, 얇고, 간편해 졌습니다.
학습서가 아닌 상담용으로 구성되어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복자 효사의 심혈작이며 "육임래정법"시리즈 최종판 입니다.
적중 · 효과 · 간평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학습서 및 활용서

- 임상활용서 "효사육임복변집" 집대판 (전60권 매일 별) 부록,설명CD포함 250만원*新刊
- 임상활용서 "효사육임복변집" 휴대용 (전6권, 전1권 2종 중 선택) 250만원*新刊
- 임상활용서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활용프로그램CD) 4백만원(교환50만원)*新刊
- 임상활용서 "오행제례의식집" 최종판 (전1권) 15만원*新刊
- 임상활용서 "각일각시선택분만비법"보정판 (전1권) 12만원
- 임상활용서 "육임1년신수비결" (전1권) 30만원
- 임상활용서 "육임풍수" (전1권) 30만원
- 임상활용서 "육임래정비법" (전1권) 35만원
- 임상활용서 "육임대계전서" (전60권) 4백만원
- 임상활용서 "도사에게물어봐" 보정판 (전1권) 5만원*新刊
- 임상활용서 "효사육임사주감정법" (下권) 10만원*新刊
- 임상활용서 "육임PDA(휴대용단말기)" 25만원(08년 1월중 발매 예정)
- ■ 학습서 "효사육임사주감정법" (전 上권) 10만원*新刊
- ■ 학습서 "효사육임강론" 序6판본 (상 · 하권) 35만원*新刊
- ■ 학습서 "효사육임강론강의"CD (96개) 120만원*新刊
- ■ 학습서 "육임양택비지" (전1권) 20만원

"저는 지난 2005년~2006년까지 2년간 대학원 교수생활을 하느라 미처 못했던 일을 이제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 고복자 효사 -

아래는 절판 된 책들입니다. 위 책들과 교환, 활용 하십시오.

- ■ 육임양택비지 기존판 (위 육임강론 序6판본에 보완 수록)
- ■ 육임운명판단법 기존판 (위 육임강론 序6판본에 보완 수록)
- ■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전12권
- ■ 육임래정비법휴대용 전6권
- ■ 육임세밀정단법 기존판 (육임강론 序6판본에 보완 수록)
- ■ 육임형이상비법 기존판 (육임강론 序6판본에 보완 수록)
-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전12권
- ■ 육임강의록 12권 기존판
- ■ 육임강의록 상 · 하 기존판
- ■ 오행제례의식집 기존판
- ■ 육임강론 기존판
- ■ 도사에게물어봐 기존판

■ 값 : 250만원(부록 · 활용CD 포함) 좌정용(A4용지크기) 과 휴대용(A4용지절반미만 크기) 중 택일 요망 ■ 교환 : 150만원(위 절판된 책들 중)
■ 주문전화 : **02-993-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예금주:육임나라(주) / 농협 170338-56-155880 예금주:김나형 (주작)

역학문화를 선도 하는 **육 임 나 라 (주)** www.taotempl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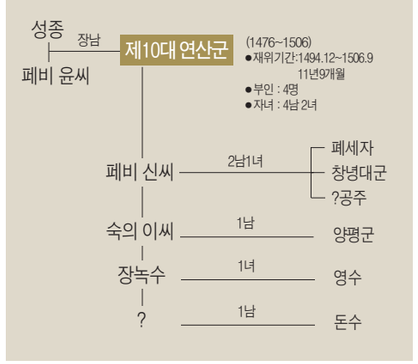
척불 일삼던 광기의 왕…업보 탓에 더 그늘진 무덤가



10대 연산군-연산군묘

연산군 1476-1506(31세)
재위 1494.12(19세)-1506.9(31세)

제10대 연산군 가계도



연산군묘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최고의 법문은 죽음이라는데, 그의 무덤 앞에서 어떤 법문을 들을 수 있을까. 이미 백골이 진토 된 마당이라 두렵지는 않다. 그와 동시대를 살지 않았다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다. 부끄러운 듯 초가을 햇살을 손등으로 가리며 그를 만나러 간다. 이정표가 없어 다섯 번이나 물어서 겨우 주택가 구석에 자리한 연산의 묘를 찾을 수 있었다.


쓸쓸히 서 있는 비문.

학술연구와 취재, 그리고 특별관람 신청자에 한하여 공개하던 연산군묘가 2006년 7월 11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전면 공개되었다. 우리 영화사상 최대의 관객을 끌어 모았던 '왕의 남자'가 개방에 한 몫을 했는지.

폐주이기에 능이 아니라 묘라는 이름으로 지하에 묻혀있다. 유배지 강화도 교동에서 의문의 병사한 연산은 사망 7년 후 부인 신씨가 중종에게 간청하여 이곳 방학동으로 이장했다(1513년). 중종은 죽은 형을 위해 콩과 쌀 100석, 면포 150필, 정포 100필, 참기름 2석 등을 하사하여 이장을 도왔다.

도봉산 자락 방학동 골짜기 잡초에 묻혀있던 연산군묘는 봉분이 훼손되고 망주석과 문인석은 쓰러져 있었으며 비석의 글씨는 뭉개져 있었다고 산책 나온 노인이 증언한다. 한 마디로 폐허나 다름없었다. 1980년대까지 그랬다.

묘아래 마을은 800여 년 전부터 파평 윤씨 씨족마을이었다. 묘 앞에는 우람하게 서 있는 800년 수령을 자랑하는 노거수 은행나무와 원당천(약수터)이 있다. 예전부터 마을이 가까이 있었으나 개구쟁이 아이들도 무서워서 연산군 무덤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한다.

이러한 연산군묘가 1991년 10월 25일 사적 제362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청이 비공개로 관리해오다

승과폐지 등 불교 능멸의 절정기
승려 강제 환속·사찰 토지 몰수도
중종반정 후 유배지서 독살 당해

가 작년 여름 전면 개방했다. 500여 년 동안 초야에 묻혀있던 연산군묘가 비로소 세상으로 나왔다.

그는 재위 중 무오사화 · 갑자사화를 일으켜 사림파를 비롯한 문신들을 대거 처형하고 언관 제도를 크게 축소했다. 당시 사대부들의 윤리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거듭하다가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다.

그가 그토록 광포하고 난잡한 성품을 가지게 된 동기를 주로 생모를 잃은 사실에서 찾으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실록 <연산군일기>에는, 그는 원래 시기심이 많고 모진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자질이 총명하지 못한 위인이어서 문리에 어둡고 사무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반정세력에 의해 편찬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산은 조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남겼다. 실록에 전하는 것만 130편이다. 폐위되자 그의 시집과 문집은 전부 불태워졌다. 섬세한 시심을 가진 인간과 폭군은 쉽게 연결이 안 된다. 하기야 네로도 자칭 위대한 시인이라 했으니. 불타는 로마를 보며 광기어린 시를 읊어댔다.

연산군이 불교에 자행한 만행은 척불의 수준을 넘어 극악한 능멸이었다. 성균관 · 원각사 등을 주색장소로 만들고, 선종의 본산인 흥천사, 교종의 본산인 흥덕사를 마구간으로 바꾸었다. 삼각산 각 사암에 살고 있는 스님들을 내쫓고 폐사로 만들었다. 성내의 비구니절을 헐어버리고 비구니를 궁중의 종으로 삼았다. 승려를 환속시켜 관노로 삼고 강제로 결혼시키기까지 했다. 사찰의 토지를 몰수하여 관청에 넘겼다. 이성을 잃은 광기의 시대였다.

성종 때까지 그나마 남아있었던 승과도 폐지했다. 승과란 승려의 지위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국가 검정고시다. 그것에 의해 승려의 신분, 자격, 승계를 부여받아 대사찰의 주지가 되는 제도이다. 고려 광종 때 시작되어 고려 왕조 내내 유지되었고 조선 조 태종, 성종의 척불 때에도 명맥은 유지되었다. 승과의 폐지로 불교의 존재성, 승려가 될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불교의 암흑천지가 된 것이다. 또한 민간의 국문투서사건을 계기로 한글 사용을 엄금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심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1506년(연산군 12) 9월 성희안 · 박원종 · 유순정 등의 주동으로 연산군 폐출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이 옹립되니 곧 중종반정이다.

연산군의 묘는 능이란 이름을 갖지 못하고 초라하게 '연산군지묘(燕山君之墓)'라는 비석이 무덤 앞에 있을 뿐, 아무런 장식이 없다. 정자각, 장군석, 혼유석, 병풍석이 없다. 무덤을 둘러싼 곡장은 근년에 설치했다. 봉분은 탈모증 걸린 머리처럼 잔디마저 듬성듬성하다. 악행의 업보로 잔디가 자라지 않는가. 주변을 둘러보니 늘어진 노송 가지가 그늘을 만들고 있다. 하루 중 볕이 드는 시간은 아침녘뿐이다. 가지를 칠 계획은 없는가보다. 그늘진 언덕에서 오래오래 누워있을 운명이다. 강화도 교동 위리안치된 곳은 이보다 더했다. 집은 몹시 좁고 3m 떨어진 사방을 가시 울타리로 막아 햇빛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음식 구멍만 뚫어 밥을 넣어주었다. 유배된 지 두 달 만에 서른한 살 연산군은 죽었다. 추운 겨울인데 학질에 걸려서 죽었노라고 기록되어 있다. 독살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연산의 아들 네 명 모두 폐위 후 중종1년(1506년) 9월 24일 사사(賜死)되었다. 이것은 중종의 뜻이 아니었다. 어린 조카들이 불쌍했다. 그러나 반정세력은 차후에 있을 수도 있는 싹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의 처단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황 등은 나이가 모두 어리고 연약하니 차마 처단하지 못하겠다"라고 중종이 버티었으나, 반정세력은 단호하게 임금을 협박했다. "우리의 뜻은 정해졌으니 차마 못하겠다고 하시면 아니되옵니다"라고. 그들에 의해 옹립된 왕으로서는 역부족이었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주택가와 이웃하고 있는 소박한 규모의 연산군묘.

연산군묘를 지키고 있는 문인석.

연산군묘는

사적 362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산 77번지. 10대 연산군과 왕비인 거창군부인 신씨(1472~1537), 궁인 조씨, 사위와 딸의 무덤이 있다. 역사의 증언이 없다면 오붓한 가족묘이다. 연산군의 딸이 능성 구씨 집안으로 시집갔는데 사위가 구문경이다. 연산군이 누워 있는 묘역은 능성 구씨 선영이다. 연산은 사돈네 선영에 묻혀있는 셈이다. 왕릉의 능역 규모는 40~50만평이 예사인데 여긴 4200여 평으로 조촐하다.

역사의 교훈을 위해 세세한 안내를 곁들인다. 입장 시간:하절기(3월~10월) 09:00~17:30 동절기(11월~2월) 09:00~16:30 정기휴일:매주 월요일(모든 문화재는 월요일이 정기휴일이다) 능이 아니어서 입장료도 없다.

-교통편:1호선, 4호선 창동역 1번 출구로 나와 1161번, 1144번 버스로 30분.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로 나와서 130번 버스로 40분 소요.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신 수 비 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방한용털신
발,마춤형 제작
방한용부츠
보아털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5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지압깔창
발명특허41435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자연과 인류 '共生의 길' 모색해야

☑ 환경 지키는 에너지 절약법



물건 구매시 환경 마크를 확인하면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싯다르타 태자는 어느 날 뙤약볕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의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농부의 채찍을 맞고 일하는 소가 있었고, 그 소가 이끄는 쟁기에 잘려나가는 벌레가 있었으며, 그 벌레를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는 모습이 함께 보였다. 그것에 심한 충격을 받은 싯다르타는 "왜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 하는 고뇌에 빠졌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고뇌에서 싯다르타 태자는 왕궁을 버리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다. 싯다르타는 모든 문제는 서로의 사물이 별개라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며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불교는 남이 살고 자연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임을 아는 공존과 공생의 가르침이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와 인류가 큰 위기를 맞는다는 영화 '투머로우'를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는 이미 경고된 지 오래고 긴 여름, 짧아진 봄과 가을 그리고 춥지 않은 겨울 등 기후 변화도 심상치 않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가스값에 올겨울 가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한다.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의 낭비가 빚은 것으로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1988년부터 불교적 가르침을 통한 현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단법인 에코붓다(www.ecobuddha.org)의 쓰레기 제로운동을 통해 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에코붓다의 유정길 대표는 "환경문제에 대해 이제는 불교계는 물론 우리 스스로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한다. 오늘날의 환경문제에 대해 "잘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자 못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그는 "사람의 병이 깊어지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처럼 오늘날 환경문제는 자연이 현대 인류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치유의 방법으로 쓰레기 제로운동(Zero Waste)을 제안했다.

쓰레기 제로운동은 크게 ▲일반쓰레기 제로 ▲화장지 제로 ▲재활용 ▲비닐 제로 ▲음식물쓰레기 제로 ▲에너지 제로 ▲물 아끼기 ▲녹색소비로 나뉜다. 당장 가정에서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제로 운동을 중심으로 몇가지를 소개한다.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겨울철 난방온도는 18~20℃로 한다. 내복을 입고, 양말과 덧버선을 신으면 난방비도 아끼고 신체 저항력을 기를 수 있다.

◆전기제품 사용 후 플러그 뽑기=가전제품은 사용하지 않아도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대기전력이 소모된다. 텔레비전의 경우 코드를 꽂아두는 것만으로 시간당 5w의 전력이 소모된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약 3,000억원으로 상업부분 전력사용량의 10%에 해당된다.

◆사용하지 않는 전등, 컴퓨터, 모니터 끄기=컴퓨터는 사용할 때 시간당 120w 이상 소모되며, 모니터는 60w 정도를 소모한다. 이것은 각각 120w와 60w의 백열등을 켜두는 것과 같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꺼놓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반드시 끄는 습관을 들인다. 빈 방과 외출시 소등은 10%이상 절전효과를 갖는다.

◆빨래는 모아서 한번에=세탁을 할 때는 세탁물을 모아 한꺼번에 하자. 1회 빨래 용량은 세탁기 용량의 60% 정도로 하고 얼룩이 있는 옷은 애벌빨래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세제는 표준양 보다 약간 적게 사용한다.

세탁기 헹군물이 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세제 중의 제올라이트 성분 때문이다. 이것은 고령토가 주성분으로 피부 자극성이 없다. 따라서 헹군물이 뿌옇다고 추가 헹굼을 할 필요는 없다.

◆ 냉장고 문 자주 여닫지 않기=냉장고 문을 열면 냉기가 빠져 나가고 내부의 전등도 켜져 전력 소모량이 크게 증가한다. 보통 가정에서 1일 24회 여닫는다고 하고, 열 때마다 0.35%씩 전력소비가 증가한다.

냉장고 안의 음식물은 냉장고 용량의 60%를 넘지 않게 넣는다. 음식을 넣을 때는 반드시 식혀서 넣고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도록 한다. 냉장고 안의 품목을 메모지에 적어 문에 부착하면 도움이 된다.

조동섭 기자



중생은 결과·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한다

투자전문가 우승택(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씨의 '투자는 아무나 하나, 유식(唯識)으로 하는 투자학' 강좌가 11월 8일 '실전투자기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강연 내용을 요약 · 정리했다.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하나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 한다'고 한다. 다른 말로 결과를 두려워하면 비겁한 삶을 살지만, 원인조차 두려워하면 구차한 삶을 살게 된다. 지난 5주간의 강의는 투자에의 잘못된 원인이 아닌 제대로 된 원인을 짓고자 함이었다.

<금강경>에는 보살처럼 사는 법이 설해져있다. 보살처럼 사는 것은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삶이다. 지난주 다각형의 예를 든 것처럼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유식을 공부하는 것은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하듯 지식이 결국 허망함을 아는 것이다. 허망함이란 인연 · 조건에 의해 지어진 불완전한 것임을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 옳고 바른 것을 구하는 것에는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부숴가며 옳은 것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파사현정이며 파망현진이다. 지식은 사실이고 지혜는 진실이다. 그래서 경전에는 '진실불허'라 표현한다.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지혜에 의존해야 하며 그것이 유식을 공부하는 이유다. 주식, 경매 등을 예로 들면 그것에의 경험이 없는 것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 자체도 실은 허망하다고 아는 것이 유식을 아는 것이다.

실전투자기법은 금리를 우선 고려한다.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금리와 유동성과 관련돼 있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읽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읽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알면 된다. 그런 뒤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ROE(자기자본 이익률)만 봐도 충분하다.

기업 자료는 크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나눌 수 있다. 대차대조표는 주부와 같다. 이것은 돈을 어떻게 썼는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부잣집에서 며느리 고르듯이 보면 된다. 손익계산서는 돈을 얼마나 버는가를 알려주는 지표로 사위 고르듯이 본다. 현금흐름표는 유동성을 뜻하며 자녀 보듯이 보면 된다. 유동성이 중요한 것은 자산 가격이 떨어져 투자의 호기가 왔을 때 현찰을 가진 사람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외상구매자나 단기구매자들은 하락시장에서는 불안해한다. 때문에 현금을 준비해둬야 하는데 문제는 기회가 왔을 때 실행(매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ROE는 이익/순자산이다. 좋은 주식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 3요건을 두루 갖춘 것인데 이것을 한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ROE다. IMF당시 외국인들의 ROE를 높이라는 요구가 있자 기업들 중에는 매출이나 총자산을 높이는 눈속임수가 있었다. 때문에 ROE를 볼 때는 매출액, 이익 증가와 함께 봐야한다.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이라는 법성게의 문구처럼 기업뿐 아니라 화목한 가정도 그렇다. 일반 가정도 아버지는 수익성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어머니는 안정성이 좋아야 하며, 자식은 성장성이 좋아야 한다. 아빠(수익성)가 좋지 않을 때 자식(성장률)이 좋던지 엄마(안정성)가 잘한다던지 하면 집안이 유지되듯. 세가지 중 한가지 이상의 것으로 기업의 가치가 결정된다.

주식투자를 잘하려면 ROE를 갖고 주식을 고른 후, 어떠한 업종에 속해 있는지 숙고한 뒤 3강에서 언급했던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CANSLIM) 중 리딩주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타이밍을 확인하면 된다. 물론 이것의 바탕에는 식의 움직임을 아는 지혜가 구족돼야 함은 물론이다.<끝>

정리=조동섭 기자



10. 겨울철 탈모

최근 들어 30~40대 뿐만 아니라 20대와 여성 탈모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로 탈모 현상이 나타나고 두피가 푸석해져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겨울철 탈모의 원인과 두피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가을, 겨울철만 되면 평소보다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배게 근처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빠져있는 것을 보거나 머리를 감을 때마다 뭉텅이로 빠지는 것을 보면 하루 종일 심란할 때가 있다. 이러다가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 모발이 윤기를 잃고 푸석푸석해지거나, 두피가 건조해져서 비듬이 증가하게 된다. 여름 동안 강한 햇볕에 두피가 자극을 받거나 피지 분비가 왕성해져 두피 분비물이 쌓여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비듬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로 방치하면 탈모의 주원인이 되므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건조한 날씨로 각질 쌓이기 쉬워

두피·모발에 충분한 영양공급을

탈모의 원인은 60가지 정도지만 크게는 유전, 남성호르몬, 스트레스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가을철이 되면 탈모의 주원인인 남성호르몬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된다. 남성호르몬은 활성효소의 영행으로 DHT으로 바뀌게 되고, 이 DHT가 모모세포에 작용하여 모발을 가늘게 하고 모낭의 크기를 감소시키는데 이 때문에 하루에 50~100개 이하의 모발이 빠지던 보통의 건강한 사람도 가을, 겨울철이 되면 평상시에 비해 다량의 탈모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겨울철의 춥고 건조한 날씨는 수분손실로 모발을 손상시키지만, 겨울철의 탈모는 특정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빠지는 일반적인 탈모 증과는 달리 모발 전체에서 탈모현상이 골고루 일어나며 증상이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빠진 만큼 새로 생겨나면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므로, 따로 치료를 받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겨울철에는 두피의 건조화 현상으로 각질이 쌓이기 쉬워 두피의 비듬 및 탈모 증가를 유발하므로 두피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겨울철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머리 감기, 빗질, 마사지, 식생활 등 여러 가지 올바른 방법들로 두피와 모발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야만 예방할 수 있다. 잦은 두피 세정은 가급적 피하고 샴푸는 모발보다는 두피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샴푸의 잔여물이 두피에 남을 경우 두피의 건성화 및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5~10분 정도 여러 번 씻어 깨끗이 제거한다. 모발 트리트먼트 시 제품이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머리끝에만 묻힌 다음 깨끗이 헹구어 내도록 한다.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 영양분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검은콩은 탈모 치료 식품 중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시마를 콩과 함께 먹으면 콩을 많이 섭취하면서 빠져나간 요오드를 보충해 줄 수 있어 탈모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녹차는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고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 DHT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두피 건강에 좋다.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은 혈(血)의 나머지가 형성된 것으로 혈을 그 영양분으로 하므로 혈을 보하는 것이 탈모 치료의 근본이라 본다. 또 혈이 마르게 되는 원인은 기(氣)가 울체된 것 즉 스트레스와 몸에 열(熱)이 과잉된 것 풍열조(風熱燥)로 인해 생기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한다. 그와 더불어 두피 스케일링이나 필링, 영양관리 등으로도 두피에 적당한 자극을 주고 영양을 주어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 ■ 여동현(소중한몸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도통사 神 치유의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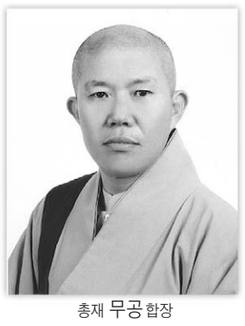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도통사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 **神치유의통사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총재 무공 합장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7년 11월 23일 (금요반)
▷14:00 - 18:00 (10회 과정)
2007년 11월 24일 (토요반)
▷14:00 - 18:00 (10회 과정)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전 수 비 200만원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세계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4번)


까치


들꿩나무 열매.


닭의장풀.


용담.


암끝검은표범나비.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89) 신어산 은하사

靑松과 단풍 어우러진 '숲의 바다'

경남 김해에 있는 파사석탑(婆娑石塔)은 가야불교사의 블랙박스이다. <삼국유사> '파사석탑' 조에 '…수로왕의 비 허황후(許皇后) 황옥(黃玉)이 동한(東漢) 건무(建武) 24년 갑신(甲申; 48년)에 서역 아유타국(阿踰陀國)에서 배에 싣고 온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삼국유사>는 수로왕 8대손인 가락국 질지왕이 허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452년에 절을 세우고 왕후사(王后寺)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가야의 불교 공인이 파사석탑 이후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야의 사찰 창건설들은 그보다 훨씬 앞서 있다. 허왕후와 함께 입국한 오라버니 장유화상(長遊和尙)이 가야땅 여러 곳에 절을 짓고 전법하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김해 은하사도 화상이 세운 가야고찰 가운데 하나이다.

은하사 '취운루 중수기'에 따르면 장유화상이 수로왕의 명을 받아 은하사를 창건하였다. 은하사 대웅전 수미단에 있는 쌍어문(雙魚紋)은 인도 아유타국의 전통 문양으로, 그곳의 사원에 어김없이 장식되고 있다 한다. 은하사가 자리한 '신어산(神魚山)'이라는 지명도 예사롭지 않다.

솔숲 주차장에서 왼쪽으로는 은하사로 오르는 길이 열려있고, 오른쪽으로는 동림사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 생태탐방 코스는 은하사-천진암-출렁다리-정상-철쭉능선-동림사가 무난하다.

산문을 들어서면 좌우로 연못이 있다. 갈수기 탓인지, 부들과 갯버들 등 수변식물만 무성할 뿐 바닥은 정작 말라있다. 그 메마른 연못 가운데 관음보살상이 서 있는데, 신성(神性)을 무시한 채 불보살상을 조경물로 난립하는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은하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3단의 넓은 석단 위에 전각을 앉히고 있다. 후대에 전각들이 여기저기 연이어 세워지면서 가람배치가 다소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종루의 기둥은 메타세쿼이아이다. 수피만 벗기고 요철의 근육질을 그대로 살렸지만,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이 나무가 미국에서 들여온 외래나무이기 때문이리라. 수형이 곧고 단정하고 기품이 있어서 사찰 주변에도 많이 들어서고 있으나, 사찰 고유의 전통경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웅전 뒤로 비켜 가면 취운루를 만난다. 그 앞에 아담한 연못이 있는데. 연꽃 심을 연지(蓮池)로는 규모가 작지만, 영지(影池)로는 위치와 크기가 부족함이 없다.

연못 위에 워터레터스가 떠 있다. 연녹색 잎이 배추와 비슷하여 '물배추'로 불리는 이 부유식물은 아프리카가 원산이다. 덥수룩한 털뿌리가 수중에 떠 있어서 수질을 정화시켜주고 물고기들에게 산란처와 은신처를 제공해 주지만, 외래종이기 때문에 전

들꿩나무 열매 주요 새 먹이
용담·구절초 등 야생화 다수

통사찰 연못하고는 궁합이 안 맞다.

은하사에서 천진암으로 가는 길은 소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여러 종류의 활엽수들이 혼효림을 이루고 있다. 은하사에서 천진암으로 가는 계곡 주변, 동림사 뒤편 산기슭 등에서 다양한 활엽수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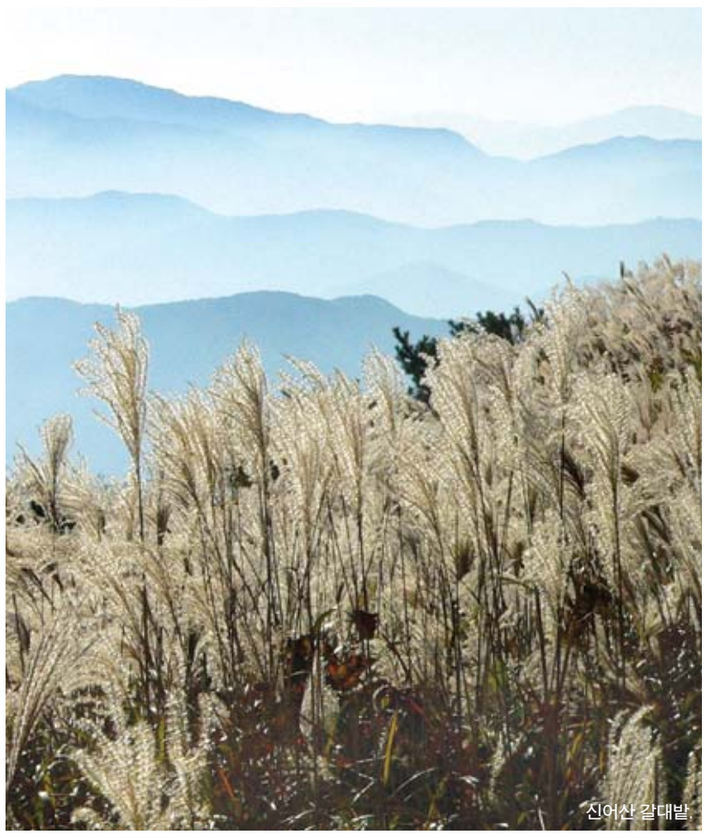
생강나무는 봄에 꽃도 일찍 피우지만, 가을에 단풍도 먼저 물든다. 예전에는 절에서 이 나무의 기름으로 등불을 켜기도 했다. 어린잎은 말렸다가 차를 우려 마셨다고 한다.

가을이면 열매가 주홍색으로 익는 들꿩나무 열매는 겨울철 양식 없는 산새들에게 중요한 요깃거리이다. 들꿩나무는 중부 이남에 자라는 낙엽활엽수 관목으로 높이는 2m 안팎이다. 줄기가 여러 개로 갈라져 포기를 형성하고 어린 가지에 성모가 촘촘하다. 잎은 마주나기하고 긴 타원형이다.

싸리는 콩과식물이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싸리나무 가지를 '채'라고 하는데, 채반이니 채독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싸리 가지로 만든 것이다. 옛 기록에, 싸리 가지로 만든 불상(籠佛)도 있었다고 한다.

신어산에는 작은 가지와 잎에 털이 있는 털진달래가 진달래보다 더 많다. 비슷하게 생긴 흰참꽃나무도 많다. 신어산 정상 부근에는 억새밭과 함께 수천평의 철쭉군락이 있다. 정상 부근이라서 철쭉의 키들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해마다 5월이면 신어산 철쭉제가 열린다.

산행길 오른쪽으로 신어산 남사면이 눈맛 좋게 펼쳐진다. 이따금 사면에 절리(節理)된 화강암 암봉들이 보인다. 절리가 무너져서 이루어진 너덜지대도 몇 곳 보인다.


신어산 갈대밭.

신어산은 해발 634m. 정상은 민둥산에 가깝다. 내륙의 고산준봉에 비하면 야산에 불과하지만, 주위의 전망은 그에 못지않게 장쾌하다. 멀리 낙남정맥의 높고 낮은 산들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은 겹겹이 밀려오는 파도를 연상케 한다.

영구암은 8부 기암괴석 틈새에 앉아있다. 영구암에서 내려다보면 숲의 바다이다. 푸른 청송 사이에 군데군데 단풍든 활엽수들이 자리하고 있다. 청송은 단풍이 있어 더욱 청고하고, 단풍은 청송이 있어서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다. 은하사와 동림사가 그 숲 속에 자리하고 있다.

신어산 야생화로는 용담을 비롯하여 닭의장풀, 개쑥부쟁이, 구절초, 산국, 애기똥풀, 고마리, 물봉선, 갈퀴나물, 산부추, 꽃향유, 이고들빼기, 이삭여뀌, 짚신나물, 익모초, 산박하, 마타리, 등골나물, 미역취, 까실쑥부쟁이, 개망초, 엉겅퀴, 지칭개 등이 있다.

용담은 주로 산자락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초본이다. 키는 50cm 정도이며, 줄기에는 가는 줄이 있다. 잎은 마주나고, 종처럼 생긴 꽃은 가을에 줄기 끝에 핀다. 꽃 색깔은 푸른빛이 도는 자주색이며, 꽃부리는 5갈래로 조금 갈라진다. 재배하기가 까다롭지만, 사찰 조경에 쓸만한 초본이다. 닭의장풀은 가을 늦게까지 푸른 꽃을 보여준다. 오존량에 따라 보라색을 띠기도 한다. 줄기는 옆으로 자라고 줄기마디에서 새로

정상엔 억새밭·철쭉 군락
사찰주변 곳곳에 까치둥지

운 뿌리가 나와서 번식한다. 위쪽 꽃잎 2장은 마치 나비의 날개처럼 서로 마주보고 달려있다.

정상 부근에는 억새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솔새, 기름새, 쌀새 등이 있는데, 공통점은 '날카로운 톱니와 심이 박힌 긴 잎'이다. 흔히 부르는 억새꽃은 꽃이 아니라 씨앗이다. 솜털 끝에 씨앗이 깨알처럼 붙어있다.

은하사 삼성각 돌축대에 바위솔 하나가 때맞추어 자잘하고 하얀 꽃들을 앙증맞게도 피웠다. 자루 없는 잎이 줄기에 층층을 이룬다 하여 '탑송(塔松)'이라는 미명도 붙어 있다. 가을이면 하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전체가 말라 죽는다. 손쉬운 번식방법으로는 꽃이 피기 전에 꽃대를 잘라주면 포기가 많아지므로 이때 나누어 심는다.

능선으로 난 산행로를 내려오면 천불사로 이어지고, 그 도중에 동림사 산신각으로 이어지는 토끼길이 갈라진다. 산신각 안에 모셔진 탱화와 내부 천장이 촛불 그을음으로 시커멓다. 특히 산신각 뒤에 내화수림대를 두지 않아 산불로 비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

예로부터 유명한 김해 장군차는 허왕후가 인도에서 올 때 가져와 심었다고 전해진다. 이름에 걸맞게 몸집이 다른 차나무에 비해 크다. 조선시대에는 찻잎을 우려낸 물빛이 황색을 띠어 김해의 차를 황다(黃茶)라 하였다. 동림사와 은하사에도 조경으로 심은 장군차나무가 있다.

차나무는 단풍 드는 계절에 꽃을 피운다. 때마침 동림사 무문관 앞마당에 차나무꽃이 환하게 피었다. 암끝검은표범나비 한 마리가 꽃에 앉아 미동도 없이 꿀을 빨고 있다. 가을 나비로는 네발나비, 청띠신선나비, 작은멋쟁이나비, 뿔나비, 노랑나비 등이 관찰되었다. 정상 부근 억새밭에서는 방아개비를 비롯하여 몇 종의 메뚜기가 관찰되었고, 은하사와 동림사 주변에서는 고추좀잠자리, 깃동잠자리, 박각시 등등이 보였다.

단풍 들 무렵의 신어산 조류는 텃새들이 주종을 이룬다. 박새류와 딱따구리류를 비롯하여 까치, 꿩, 멧비둘기, 직박구리, 딱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숲새, 산솔새, 오목눈이, 곤줄박이, 노랑턱멧새, 참새, 어치, 까마귀 등이다. 여름철새로는 노랑할미새가 관찰되었다.

은하사와 동림사 주변으로 까치들이 많이 보인다. 까치는 날개가 짧고 둥글게 생겨서 먼 거리를 비행하지 못해서 주로 민가나 사찰 주변에 텃새로 살고 있다. 까치는 청도 운문사를 비롯해 사찰 창건설화에 많이 등장하는데, 텃새인 까치가 절터를 점지해주었다는 것은 곧 그 지역의 토착세력들이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동림사 스님의 말씀을 빌리면 신어산에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개체수에서는 다람쥐와 청설모가 앞에 선다. 요즘 다람쥐가 낙엽을 물어다 이부자리를 까는 등 동면 준비에 한창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cafe.daum.net/templeeco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8,000원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덕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주머니 속의 심경 출간!!!

반야심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 중에서도 절제된 경으로 으뜸가는 경이다. 그래서 선승(禪僧)도 그 뜻을 따랐다.
이 선송이 읽는 이들을 돈오하게 하는 역할을 다하기를 바랄 뿐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주머니 속의 심경 서문 중에서...

손바닥 만한 책이니 늘 주머니 속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소절씩만 읽고 참구하십시오. 격외를 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 대선사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불자생활정보 | 25면

▷ 문의 : TEL 02)2004-8219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산삼 (培養根) 한 뿌리
1개월분 10만원
전화주시면 산삼 배양근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54)631-9974
농협 751019-51-096557 이재현

수련이 편안하고 회복이 간편한
선관단식
www.zenfast.com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055)834-1115
016-849-3858

역학개인지도 숙식제공
사주명리 관상학 구성학
풍수 음양택 성명학 최면학
빙의 전생 영가 치유 비법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2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하단)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호암 요양원
암,당뇨,아토피,
비만 환자
모십니다
055)931-5115
016-9506-5706

선기공 수행(전수자 모집)
남, 여 승속 관계없음
• 시간을 갖고 꼭 배우고자 하는분 환영 (절대기술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 병원에서 원인모르는 병 낫와 기도로써 다스리면 호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분
•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선,기,공 무료로 전수해 드립니다.
無心으로 뜻있는 불자님들의 기도 및 선,기,공 수행체험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위치 : 대구 팔공산 한티재 중턱 견성암
054)974-1157
011-549-8130

보살선방
(1인1실-방1,주방,거실,욕실
부부실-방2,주방,거실,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며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 시주금 내시고 종신제)
불광사,불광대학
053)656-6766

빙 의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픈 분
신병 · 무병 · 알콜중독 · 우울증 · 컴퓨터오락중독
www.jijangsw.com
054)383-8553
(부처골 지장선원)

출장법문 영가천도
017-322-4625
043)833-4625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 승무작법
010-2570-3847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사무장 구함
워드가능한 35-45세 여 사무장님 구합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서울)
011-9087-6287

운전기사 구함
버스운전 유경험자로
연령40~50대 중반
불교 신자 기사를 구함
(조계종 관음사)
02)582-860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100일 기도 하실 스님)
011-591-8228

산사에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소렌토(4륜) 중고 파실분
여명스님 합장
031)771-1232

비구 부전스님및 행자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722-341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서울 북한산 암자
자기기도 하면서
사원을 보살필
초보스님이나
불교에 입문할 행자 모심
011-306-350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9214-050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거제)
010-8813-6867

부처님께 출가하여 스님이 되실 분 여(女) 행자님을 기다립니다
(45세 이하)
경북 조용한 비구니 사찰임
011-810-9957

기도 성불을 이룰 수 있는 청정한 약사여래 나반도량입니다 천일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보살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 이 통화중 일때
02)574-3427 로 걸어주세요.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이런 분 찾아오세요.
고질병으로 굿이나 영가천도해도 효과 없는 분
학업성적 부진, 가출, 아는 문제 잘 틀리는 학생,
부부간의 갈등, 혼사 지연, 부모자식간의 불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업 고민이 많으신 분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삼재 등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하지만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부터 62세까지)
▷강원도 상운사
033)482-3382~4
011-764-3661

절에서 수양하거나 기도공부하실 처사,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제공) 60세 이상
▷구미 원각사
018-587-2363

스님이 되시고 싶으신 여행자님을 찾습니다
▷45세 미만
승가 교육 책임 지도 함
조용한 비구니 스님 사찰임
010-3727-151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창원
(50세 이후)
011-879-25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갑바위아래)
053)982-0480
011-810-009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초반)
010-4528-9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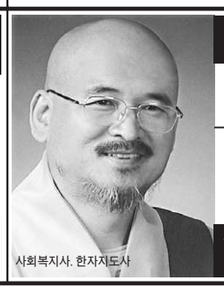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전후, 가족처럼 지내실분
숙식 가능 하신분
▷위치:고성읍
055)241-2323

사랑과 믿음으로 공양간을 책임맡을 보살님을 모십니다
숙식 가능 하신분
(경북 영덕)
010-7109-3281

일본 및 하와이에서 포교활동의욕있는분 연락바람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사찰입,운명 감정을 할 줄 아는분 유리함.
토지 약50평, 건물 34평, 2층. 개인등기 확실함.
동경, 나리따공항에서 각 1시간 거리이며 여의도 면적 약 20배 크기의 유명한 호수와 세계에서 제일 큰 아미타여래입불(기네스북에 등재)이 있는 명승도시임
<서울> 33평, 정릉입구 우체국에서 5분거리.
성원아파트 정문부근에 서울시 공원 예정부지에 위치.
수리 및 리모델리에 3천만원 소요됨(은행융자 4400만원 有).
02)914-3958/010-8368-3958 주지직접
일본 001-8129-842-6833

역학공부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 사주초급 : 11/12(월) 18:30 속성반:11/13(화)
• 전문가 과정 : 11/9(금) 18:30 이선종 교수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자격증
사주 전과정 45만원 한국 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02)2264-0258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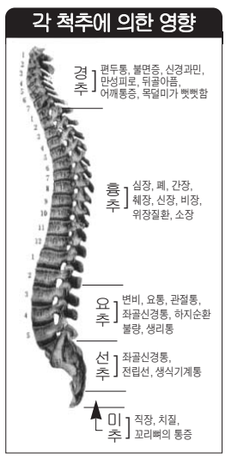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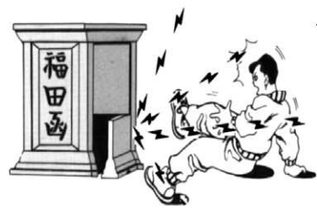
易) 정통 命理學 (學
四柱 비법완성
命理를 완성코저 하는 분
"전문가 양성"
정통교재-命理學 비전, 命理學 비결
각권 30,000원
인천 明陽 명리학당
연락처 : 032)330-4684, 032)503-4684

탈종공고
• 사찰명:묘광사
• 창건주 : 김옥이
• 주 지 : 재일(박종민)
• 승려번호 : 0601-051
• 주 소 : 대구시 수성구 파동 394-2
상기 사찰(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귀하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 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전속성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7년 11월 20일 부터 (4주간)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2시~5시)
• 부산연수원 :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불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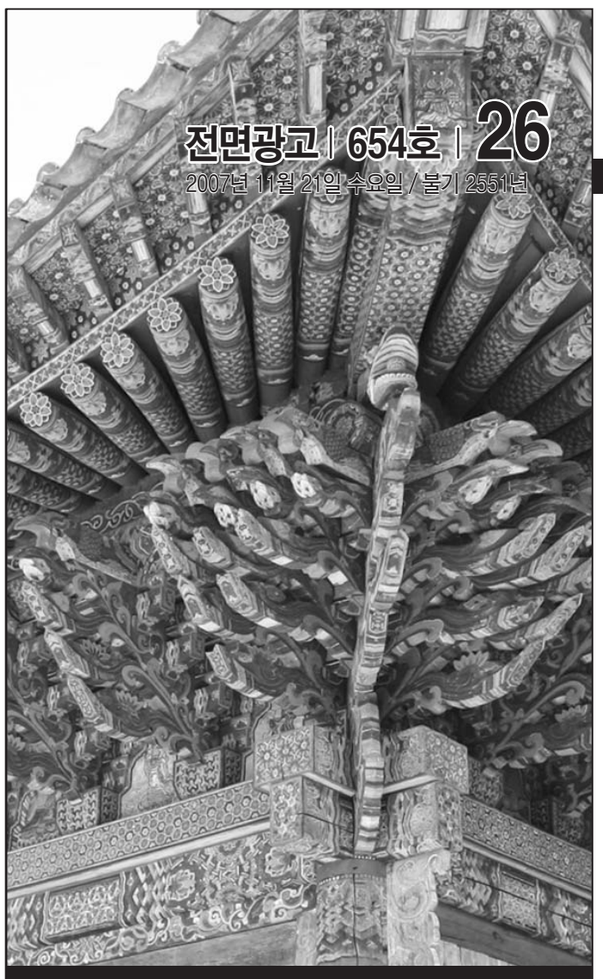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데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당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할발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길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념학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삼랑진역전 10분 거리
- 총평수 :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1530평+밭550평+임야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12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가액 : 4억원

임법당 안내(30년생)
- 위치 : 부산 범일동
- 평수 : 120평(시유지)
- 건물 스라브 약 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 3칸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 500만원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낙동강이 보이는 사찰 터 28,000평(당 1만원) "급"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법당 : 100평
- 요사 :
- 부지 : 620평
- 가액 : 5억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5,00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전남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 부지 : 7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 ● 명부전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억 7000만원
- 특징 : 포교와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적지임

-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 부지 : 60평
- 법당 : 30평(임법당, 방 2)
- 가액 : 전세 4000만원(월세도 가능) 시설비 1700만원
- 특징 : 도심번화가의 단독 한옥주택건물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0-6658-087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246-2 (자비사) 국제신문사 뒤편 교육대학 바로 옆
- 대지 : 104평, 건평 : 196평
- 지하 : 52평 (주택 및 철학관)
- 1층 : 52평 (주택 및 점포), ● 2층 : 52평 (요사채)
- 3층 : 40평 (법당)
- 삼중스님께서 주석하시는 곳 자비사
- 가액 : 8억 5천 (은행대출 5억 가능)

011-863-3557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사찰(급)안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 30분거리
- 가액 : 가격절충

010-4583-2035
010-3996-2035

사찰전세 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
- 요사채 50평
- 산세좋고 경관수려 대산임수가 용이하고 산신각과 용궁이 유명함
- 전세 5,000만원

011-9918-5251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0-6411-2882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 강구 회센타(옆)
- 대지 43평, 건물 40평
- 법당, 요사채, 산신당 총평수 225평
- 계곡 공유부지 200평 계곡있는사찰
- 동해바다가 보이고 강구항과 관광객이 모이는 곳
- 가액 : 9천만원(전세 5천만원) 몸만오시면 됩니다

011-556-5507

포교당(선원)안내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구로디지털단지역 5분거리
- 5층 건물중 3층 187.75㎡(56.7평)
- 법당 및 공양간 포함 모든시설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8천 / 월 162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절충
- ※선원을 운영하던 곳으로 포교원력을 가지신 분의 연락 바랍니다

02)854-1848
011-870-23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총평수 : 790평 법당 20평, 요사채2, 방4, 창고, 반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기도처 명당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 국민관광단지내
- 부지 : 토지 500평(대지)
- 건축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산신각, 용신각, 한옥 1채 총 180평 동남향, 최신시설
- 가액 : 8억(임대도 가능) 보증금 1억원, 월 150만원

011-706-7489(향봉)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 (왜관IC 20분)
- 대지 : 125, 건물 40평 황토남향
- 심야전기, 방3, 거실, 주방, 욕실 등
- 배산임수 청정도량
- 비구니 스님 수행 최적지
- 가액 : 8천만원

054)933-3412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임법당
- 대지 : 20평, 건물 20평
- 주위 아파트 지역등산로길
- 가액 : 8천5백만원
- 몸만오시면 됨 (꼭 필요하신 분 절충가능)

018-363-6665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산호동 산호시장앞
- 건평 : 30평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55)243-3758
055)232-7151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근교,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서울 50분)
- 부지: 약 2000평, 법당2개, 방9개, 교육관(큰방1)
- 특징: 기도성취 대불 (노천법당, 시설 최우수) 진신사리봉안(탑), 전망이 좋으며 경관수려
- 가액: 12억

010-9757-5608
010-2871-528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시내
- 평수 : 종교용지 438평 법당 8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칠성각
- 약수 사용, 심야보일러
- 조계종 비구니 암자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찰
- 조계종 승려 원함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581-6044

청송 토굴 안내

- 국도접, 물흐르고 대지 370평
- 요사 32평, 법당 5평, 창고
- 가액 : 1억 3천만원

010-3131-6533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 땅 1천평 중 종교용지 450평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바다가 잘 보이는 수행도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7109-6074
054)293-2074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대지 176평 밭 790평
- 건물 시골 촌집 폐가 전기수도 차량진입 할 수있음
- 산세 좋고 경관수려
- 가액 : 1억 500만원

011-594-152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중심지 산밑
- 대지 : 약 80평
- 건물 : 법당 20평 슬라브
- 요사 40평 슬라브
- 가액 : 2억 6천만원

018-554-6198

토 굴 안 내

- 위치 :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 347㎡(약107평)
- 비구니에게 적합
- 가액 : 2천 2백만원

053)942-34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대구, 마산, 창원 인접)
- 평수 : 1,350여평 법당, 용왕당(연못있음) 칠성각, 요사채, 총 100평정도
- 가액 : 3억 5천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0-2592-15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근교
- 900평
- 법당 , 요사채, 주차장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4억7천5백만원

010-4030-195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 삼존불, 시설일체
-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018-427-2256
063)543-5551

포교당안내

- 위치 : 속초 중앙시장입구
- 건평 60평, 방3칸, 주방, 화장실, 목욕탕, 창고, 거실
- 외부시설 황토이며 역학을 보시거나 포교활동을 멋있게 해보고 싶은 분이면 아주 좋은 위치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꼭 하실 분만 전화주세요

010-9092-9972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 : 영등포역 5분 거리 (영등포로터리 번화가 위치)
- 법당, 주방 등 살림가능 5층 건물중 4, 5층 사용(38평)
- 삼존불, 산신전, 지장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2백만원
- 유동인구가 많아 역학스님, 보살님 최적

010-4474-444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태평동 시장입구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 130㎡(40평)(3층)
- 삼존불,후불,신중,칠성, 산신탱화,미륵불,동불(5자) 방2,주방,실내화장실, 에어컨 및 모든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42)525-5355
018-456-6339

사찰 전세 및 양도

- 위치 : 전남 장흥
- 대지 : 350평, 법당 : 20평
- 요사채, 삼성각, 공양실 등 총 건물 5동
- 전체 기와단청, 석불 거대 바위산 밑 위치
- 교통편리
- 전세 3천만원(양도도 가능)

018-603-1456

포교당안내

- 위치 : 길음역 4호선 부근 (포교위치 최적지)
- 건물 : 4층건물 중 3층
- 평수 : 약 2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590만원(답사 후 절충)

016-9367-9367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마일 2구
- 평수 : 940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물 맑음
- 가액 : 총 2500만원

018-507-27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임야 : 약 2800평 임법당 1동
- 조계종 사찰
- 가액 : 4천5백만원

010-6297-70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정릉4동 북한산 입구
- 평수 : 4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1-9281-5474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
- 평수 : 4800평
- 가액 : 5억원
- 풍수, 산세수려 명당

011-428-8265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월근교 동강 앞
- 대지 200평, 전 570평
- 요사채 35평,
- 대웅전16평(목조신축건물)
- 하천부지 약 600평
- 가액 : 2억 7천만원

※ 꼭 사실분 연락요망
011-792-8969

사 찰 안 내

- 대구 팔공산 청정도량 최대불교성지 3000평
- 건평 150평 (대웅전 33평, 기타 117평)
- 창건불사 인연 찾습니다
- 가격 절충가능

010-4512-0813
주인직통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시립미술관 지하철 2번출구앞)
- 평수 : 66평 (법당,방,욕실,공양간,창고) 34평(옥상,잔디,야외법회가능)
- 보증금 5천만원,월 40만원 시설비 3천 500만원
- 특징 : 즉시법회가능

010-6353-4299(주지)
010-9288-4199(부전)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43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90평
- 가액 : 9억(급양도)

- 위치 : 서울
- 종교용지 : 3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15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급)양도

- 위치 : 경남 합천
- 부지 : 410여평, 하천부지 : 510여평(현재 사용중)
- 대웅전 : 목조단청(21평) 요사 : 한옥 기와 2채(32평)
- 경내 : 범종각, 8층 석탑, 약사여래석불, 관음석불, 산신 용왕단
- 특징 : 사찰역사 약 50년, 전문지관이 극찬한 천하명당
- 양도가 : 2억3천만원

010-6834-8868
사중집기 일체 양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보증금, 시설비 포함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포교당 안내

- 위치 : 온양 아산 시내 중심가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2층 건물 2층
- 내년 3월부터 서울까지 지하철 운행(교통편리)
- 법당, 상담실, 스님방, 창고, 욕탕 구비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철학, 포교스님 최고위치 ●즉시법회가능

041)534-1960
010-6374-0034

대형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아파트 밀집지역 (대도로옆, 전철역 입구)
- 평수 : 150평
- 법당, 요사, 주방 등 현대식 최신식 최상급시설 냉,난방 등 일체 시설 완비
- 보증금 1억, 월 200만원 / 시설비 답사후절충
-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1-594-1526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동아백화점 근교)
- 건물3층 총60평 (법당 45평, 요사채 15평)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권리금 3천만원 무료양도)

011-815-4889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 법당 : 40평(3층 건물중 2층)
- 가액 : 8천만원 (전세 5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중간세도 가능하며 현재 법회중이며 시설은 최상급

053)759-0108
011-506-2282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055)674-5978
011-864-6696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절약정신과 세금인하

에너지 원료의 중심축인 석유류 값이 장기적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석유자원은 한정돼있고, 그럼에도 세계경제는 호황으로 치달아 세계적으로 흥청망청 분위기가 역력하니 값이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 3위의 유류 수입국에 원유소비량 세계 7위국인 한국. 거기에 추운 겨울이 눈앞에 있다. 상식적으로도 누구나 알고 있을 이런 당연한 일에 대비도 없었던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걱정스러운 소리들이 들려온다.

석유가 어디 난방이나 운송 연료로만 쓰이는 것인가? 나일론 폴리에스텔 등 섬유는 물론 플라스틱 등 수많은 석유화학 제품은 이제 생활필수품이다. 기름값과 함께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년 안으로 값이 오를 터인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자원고갈이란 측면을 들여다보면 밀림의 감소, 물 부족 등 유류에 버금가는 수많은 문제가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는 과소비의 결과이며, 대책은 단 하나. 욕망을 줄이고 절제 절약 하는 길뿐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 속에 여론은 절제, 절약 보다 '유류 세를 내려야한다'는 첫 반응을 보인다. '아껴 쓰겠다'는 의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절제 절약, 말은 참 쉽다. 문제점이 노출될 때마다 쉽게 등장하는 구호 아닌가. 하지만 욕망의 절제와 절약습관이 어디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인가. 일생을 '소비가 미덕'이란 꼬드김을 받으며 살아온 현대인의 훈습된 그 소비습관에 말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된 현실이다. 현대는 옛날의 '귀한 말씀들'이 이처럼 상업적으로 패러디되는 시대다. 전래되어온 금언이나 미덕은 그의 실천이 아주 어려움에도 쉬운 것처럼 말해진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절제가 쉽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름신'이 횡행하는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금언들은 이런 패러디들로 비틀린다.

욕망의 절제를 위한 현대적 자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세기에 "과소비가 유한자원을 고갈시키므로 정기적으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정해 지키자"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캐나다 등지에서 탄생하기도 했고, 한국에도 '아껴 쓰자'는 아나바다 운동 등이 일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위기에 대한 자각이 모자라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한국은 서구에 비해 이런 운동의 지속성이 약하다. 누군가 '욕망의 유혹에 대한 적당한 대응은 여럿 있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겁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겁쟁이로 살면 도덕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며 겁(怯)은 생명보존의 방어 장비이므로 부정부패 퇴폐 낭비의 유혹 등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준다. 어쩌면 여러 종교들이 제시해온 지옥도가 이런 '겁쟁이 만들기' 방편은 아니었을까?

환경위기를 약간 과장해서 보여주는 영화 같은 것도 이런 범주에 들 것이다. 하지만 순진하지 않은 현대인들은 쉽게 겁쟁이가 되지도 않는다.

절제 절약을 위한 자상한 세칙까지 만들어 캠페인을 벌인 적이 어디 한 두 번인가. 지난 캠페인들이 흐지부지되고만 실적에서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한다. 절제 절약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게' 체화(體化)시켜야 하는 것이다.

욕망의 절제라는 문제에서 시대를 통틀어 연기법의 체득과 그 체득을 위한 수행으로서의 두타행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해법은 없다. 불자들은 정말 부처님의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 유산을 스스로 체화시키고 그 '저절로'의 새로운 씨앗을 위기의 지구에 심는 일을 벌여볼 수는 없을까.

'종교자유' 칼럼 36. 방송 선교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공영방송은 국민 공동자산, 사적 종교표현 삼가야"

전파는 인간이나 동물들이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그 중 통신을 위해 개발 · 활용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또는 한 국가 내의 이해집단 간에 제한된 주파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인가는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지상파 대역을 공영방송이란 이름으로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공영방송이란 공적 자산을 특정집단이 사적 목적, 예컨대 종교적 의도를 가지고 이용하려는 것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횡포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방송이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며, 그만큼 방송의 공적 책임도 무겁다. 방송법 제5 · 6조에서 "국민의 윤리적 ·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화합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분명히 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성숙하지 못했던 10여 년 전만 해도 어처구니없는 종교 편파방송이 있었다. MBC가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17개 지방국에서 순복음교회가 자체 제작한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선교용 비디오를



한 광고의 '종교편향적 자막' 사례.

거액의 돈을 받고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 1980년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방송을 했었다. 1992년 보리방송모니터회 등 시민단체들이 5개월간 노력한 끝에 방영을 중단시켰지만,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특정종교의 선교에 앞장선 꼴이 된 대표적인 사례다.

1993년에는 개신교 장로가 경영하는 (주)신원에벤에셀의 의류제품 광고화면 왼쪽 위에 '주일(主日)은 쉽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공영방송에서 공용어인 '일요일' 대신 기독교 용어인 '주일'을 방송용어로 쓰는 것은 반문화적 행위이며 방송법에도 저촉됨을 지적했고, 결국 방송심의위원회 · 고등법원 · 대법원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후에야 변경시킬 수 있었다. 위 두 사건은 시민의 높은 권리의식 없이는 방송 권력에 편승한 선교행위, 즉 종교권력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1997년 김용옥 교수는 차범근 감독의 '기도' 행위를 두고 "그러한 사랑을 권력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을 때, 차 감독은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 운운하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가 '권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게 틀림없다.

기도와 권력, 사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떻게 공적이고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력이란 말과 연결될까.

권력이란 복종을 강요하는 사회적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지칭하지만, 넓게는 강제적 힘으로 느껴질 만한 모든 세속적 구조를 통칭 권력이라고 한다. 정치권력 외에 언론 · 학교 · 재벌 · 종교 등 특정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강제성을 띠면 사회 권력이 된다. 방송과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매체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미 공인(公人)이다. 따라서 공인이 자신의 종교 신념을 방송이라는 공공의 힘을 빌어 표출하는 것도 분명히 권력행위인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의 권력화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정치권 · 언론매체 · 교육기관 · 스포츠계 같이 대중적 힘이 되는 곳이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종교적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기독교방송이나 할렐루야 축구팀 같이 특수한 집단 내에서 하는 종교행위까지야 누가 뭐라 하겠는가. 문제는 그 종교행위를 국민의 공적 공간인 공영방송에까지 끌고 나오는 데 있다. 국민들이 거부할 새도 없이 강제로 동참해야 하는 거북스러움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스포츠 선교'의 일환으로 "인터뷰 때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라"는 교육을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하라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연예인이 방송에서 큰 십자가를 걸고 출연하는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다. 방송 내용과 무관하게, 타종교인들 보란 듯이 대형(?) 십자가를, 그것도 일부러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일부 연예인들을 보면 공인의 자질이 의심된다.

방송편집자들이 그러한 종교적 과잉표현에 대해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그런 장면을 반복적으로 비추는 몰상식한 경우마저 있어 보인다. 오죽하면 방송계나 연예계에 오래 전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다"는 자조적인 체념의 소리도 들리겠는가. 방송모니터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중 종교편향을 감시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방송 권력에 편승한 종교오염이 우려할 수준이라는 반증이다.

공인이 공공 영역에서 개인의 종교 신념을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특히 공영방송이 종교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인 · 국가대표 · 연예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불자의 눈

주지스님 첫째 소임은 '포교'

'주지스님의 역할을 바꾸자.' '권위와 사찰대표의 이미지에서 포교사의 이미지로 변화 시켜라.'

최근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가 마련한 '포교활동관련 주지 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지스님의 역할과 이미지의 초점을 포교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심도 깊게 논의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주지스님의 포교 활동과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포상과 지원을 하는 제도가 거론됐다. '주지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해 학문적 측면을 강화하고 꾸준한 연수교육을 통한 현장적응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돌이켜보면 사찰의 역할은 다양하다. 그 중심에 선 주지스님은 지역사회의 종교와 문화 복지를 이끄는 힘의 근원이다. 주지스님의 마인드에 따라 사찰의 위상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일부 포교원들이 잘 입증하는 바다. 어린이 포교, 청소년 포교, 지역복지활동 등 민생에 발을 붙여야 하는 일들은 주지스님의 열성에 따라 효과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몇 가지 테마들은 불교의 미래를 담고 있는 청사진이다. 이 논의가 논의에서 그치지 말고 보다 빠른 시일 안에 힘을 담보하는 제도로 확정되어 주지스님들이 포교의 마당으로 뛰어 나오길 기대한다.

동국대 이사선임 '역전' 계기 돼야

동국대 개방형 이사 선임을 놓고 조계종이 갈등을 보였다. 종회의장과 종회의 한 종책모임이 의견을 달리하는 성명서를 내며 서로의 입장을 주장했다. 종회의장은 종단의 기구에서 추천한 인사의 범위에서 선임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종책모임은 그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밖에서 보기엔 일종의 지분다툼이었는데 16일 열린 이사회는 새 이사진을 선임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한 결과였다는 후문이다. 이번 이사 선임이 학교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역전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올 한 해 동국대는 개교 이래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 이제 웬만한 사람이면 동국대 하면 '신정아' '학력위조' '영배스님' '장윤 스님' 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지경이다. 목탁대학(불교대학)이라던가 양주동 서정주 경찰행정학과 등을 떠올리던 시절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이번 이사 선임이 이러한 개탄스런 현실을 극복할 계기가 될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신정아 사건'이 동국대 이사회에서 발생한 점을 미루어 본다면 이사회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뚜렷하다. 구태를 벗고 새로운 학교 만들기에 전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동국대의 오늘을 개탄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확실한 책임과 새로운 다짐을 통한 빠른 치유를 당부했었다. 종단이나 중앙종회 그리고 동국대 이사회는 눈을 세간으로 돌려야 할 때다. 중앙종회의 종책모임을 해체하더라도 화합과 상생의 구조를 확립하지 않으면 재가불자들의 존경과 신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자정보 654호 |

▷접수처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문화예술포교원
● 위치 : 서울 구로 APT 대단지
● 5층 280평(법당,선방, 공양간 등 170평,세미나실,칠보, 자연염색,한지공예 등 110평)
● 6층 70평(집무실, 요사채)
● 보증금 1억, 월세300만원 (조절가능)
시설비 1억(반값이하)
011-9814-027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대연동
● 평수 : 72평
(아파트 약4천세대 상가 5층)분양받았음
● 모든시설 최상급, 산사와 같은 포교원
주변 자연경관수려, 교통편리, 주차편리
포교에 원력있는 스님 최상의 조건
● 가액 : 농협융자 3천만원 안고
1억 3천만원
016-9878-1282

도심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부근 (동묘역 앞)
● 평수 30평, 3층건물 2층 법당1, 방2, 보일러 및 주방 시설 완비
● 현재 포교원으로 사용중이나 일반 점포로도 사용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100만원)
011-310-0361
02)2236-0361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74-7외 4건
● 평수 : 2,100평
● 가액 : 1억2천만원(절충가능)
● 포장도로 접함, 토목 석축 완료
● 풍수적 최고의 명당터
011-9837-8668
061)362-9863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 470평
● 법당 30평, 산신각 2평, 요사채 30평, 10평
● 심야전기, 조경이 되어있고 앞에는 계곡
● 가액 : 3억원
016-274-3170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병천
● 부지 : 780평, 요사채 40평
● 대웅전 18평, 지상전 20평
● 공사 70%완성 진행중
● 가액 : 4억원
011-339-1946
011-294-8497

복지추모사업을 위한 "절"
● 위치 : 경북 고령 국도변대구에서 30여분
● 대지 약800평, 건평 약80평 (임 2천평 유입가능)
● 법당 25평, 방 9개, 주차장 약500평
● 요양원 및 추모(사리불 안치) 사업 진행중
● 동참 및 운영할 분 요망
● 인수가 : 2억1천만원 (9700만원 융자 안고)
017-501-2315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 법당 : 65평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에 최고의 시설
● 앞산 아래 무공해 지역이며 전철역에서 5분거리 롯데백화점 근교,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90만원 시설비 5천2백만원
011-9876-33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동남부
● 부지 : 2천평
● 대웅전, 삼성각, 종각, 종무소, 요사채
● 남향의 아담한 사찰
● 가액 : 5억3천만원
017-372-89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 대지 : 232평, 신축건물(3년) 60평
● 현 식당 운영중이며 심야전기 설치
● 시설: 식당 큰방 (15평) 주차시설 완비
● 강, 산이 어우러져 주변경관수려
● 가액 : 3억5천만원 (절충가능)
011-803-7448

주택가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원시 장안구 62평(2층)
● 1층 상가 3개, 방1 월70만원 수입있음, 2층 법당
● 8차선 도로 10M 인접 주택가 코너집
● 가액 : 4억2천만원 (융자 6200만원 포함)
031)257-5991
011-753-5991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 시민회관 근처
● 평수 : 90평(7층 건물 7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주방, 접견실, 요사채 삼존불, 108후불, 신중탱화, 감로탱화
● 에어컨 3개 등 인테리어 시설 최상급
● 보증금 500만원, 월57만원, 시설비 1,900만원
010-2284-073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부지 : 7천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9억
*도심부근큰가람가능 (법당+대지300평)9억

● 위치 : 기장 월내
● 대지 : 1,000평
● 법당 : 45평
● 요사 : 50평
● 가액 : 18억
*교통좋은 근교 신축사찰

● 위치 : 청송 보현산
● 부지 : 1,4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가액 : 7억
*기기막힌 계곡, 버스진입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사찰컨설팅(양도 양수 허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 전등

※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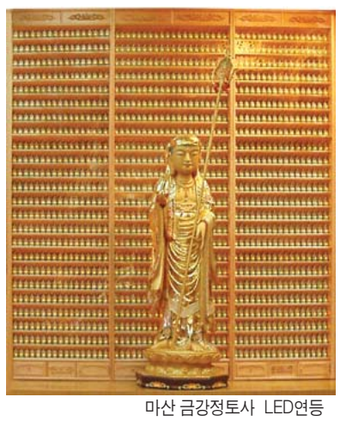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석청은 빵에다 발라먹는 일반 꿀이 아닙니다







네팔산 석청은 수백년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꿀"을 말하며 깊은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서 "아피스 라보리오사"라는 왕벌이 만들어 내는 야생 꿀이다. 네팔과 티벳의 접경지역인 해발 3500-4000m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벌이 서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벌로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한다. 고질병 치료, 강장식품이며 세포생성, 노폐물 제거등 명약으로 알려져 네팔왕국에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답례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 급 처 : 네팔왕실-국립히말라야 석청연구소
국내보급처 :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군경스포츠연맹

석청의 효능은?

석청에는 일반 토종꿀에 비해 비타민, 토코페롤, 칼슘, 게르마늄이 풍부하다. 그리고 이외에도 과당, 포도당, 칼륨, 아미노산, 무기질 등 70여 가지의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물질이 골고루 들어있다. 이런 이유로 꼭 약용이라는 부분을 떠나 일반 강장식품으로도 복용할 수 있다. 또한 석청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의 생리작용이 원활해져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허열이 제거되고, 눈에 띄게 건강이 회복된다. 네팔 왕실 산하의 '히말라야 석청 연구소' 에 따르면 석청은 현대인의 불치병인 암, 만성신경통, 혈액순환 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중풍, 야맹증, 간염, 두통,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복용 사례에도 불치병인 암, 몇 년째 어깨가 결렸던 견비통, 만성신경통, 치질, 변비가 석청을 복용한 후 완치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석청은 일반 꿀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및 빈혈 예방, 피로회복, 불면증 해소, 숙취, 기침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00년 이상 된 석청은 네팔 내에서도 구경하기조차 힘이듭니다. 아마 한국의 심심산골에서 몇 백년 된 산삼을 찾는 일에 버금가는 희귀성이 있을것입니다.
가격 또한 엄청나서 이런 석청을 발견하면 빠랑게가 사는 고산족 마음은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다만 워낙 귀한 꿀이라 네팔 전역에서 1년에 한 두번 발견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네팔에서는 참석청을 구하기 힘듭니다. 참석청은 1kg에 250만원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취급하는 석청은 등외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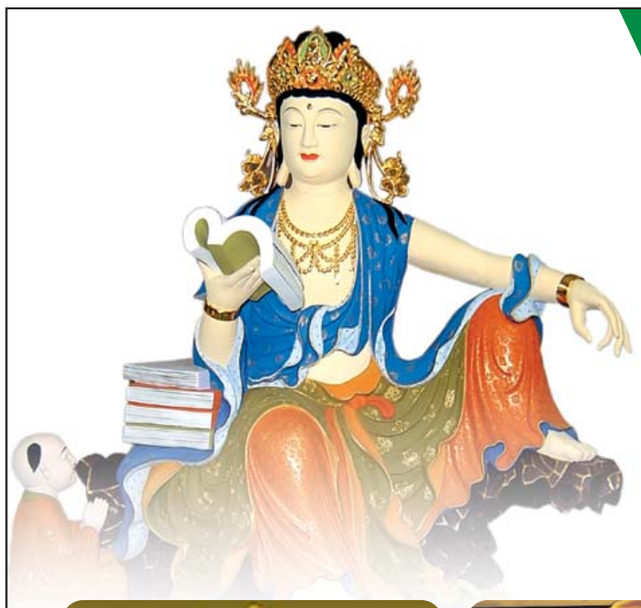
※ 아래의 보급 석청은 참석청입니다.

• 서울 02)3436-7845 • 중부 031)634-3519 • 대구/경북 054)464-4735 • 부산/경남 051)782-9386
문의 010-2039-5288, 010-5031-1355, 010-9015-9954

석청보급가액 중 일부는 네팔 불우아동들을 돕기 위해 적립됩니다.
석청 3병 이상 구입시 석청 채집 CD 1장을 보내드립니다.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